



10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10호

(루계 516)

◇◇◇◇◇◇◇◇◇◇

차 례

◇◇◇◇◇◇◇◇◇◇

공지	4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인간	5
주체조선의 참된 애국자	5
빛나는 한생	6
새 거리가 일떠서는곳에서	15
《국제공인》에 구매되지 않으시고	16
당원증	17
불타는 노을	18
백두의 새 전설	26
당원의 나이	27
당이 결심하면	27
밤노을 타는 구내길에서	28
열정의 불씨	29
탄부의 미소	31
아들을 위한 이야기	32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면모를 파시한	42
장편소설 《너당원》	42
살림집에 대한 생각	47
높은곳으로	49
별무리	50

높은곳으로 !	51
세상에 하나뿐인 집	51
우리의 길	52
검덕사람들	53
오시라 심부제로	53
노래 춤이 태어나는곳	54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뜨겁게 안겨주는	55
인상깊은 가사	55
《자력갱생》호 승강기앞에서	57
옛말처럼	59
너의 집 대문가 자그마한 편지통엔... ..	65
꿈이 아니다 !	66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의 반향중에서	68
수표	69
강도가 갈라진곳에서	70
장벽은 무너지리	73
《통일거리》, 이 이름으로	74
시인의 얼굴을 생각하며 (2)	75
그날의 그 용사를 못잊어	78
금강소나무 (외1편).....	79
망장천 한모금에	79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	80

금지

김석주

10월...

우리 당이 창건된 기쁜 소식에
맨발로 먼지이는 촌길을 뛰어다니던
우리들의 머리에도
이젠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왔는가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는가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그 세월에
우리에게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흔히 말하듯이
옛말에 나오는 그대로
얼음산도 넘었고
불강도 건넜고
가시밭길도 헤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동무들
옛말의 그 얼음산을
그 불의 강을
우리가 넘고 건너온
락동강에 어찌 비길수 있으며

험난했다는 옛말의 가시밭길을
엄혹한 12월의 눈보라를 헤치고
덧쌓인 난국을 뚫으며
자랑 높은 오늘에로 온
우리의 그 걸음걸음에 비길수 있겠나

그래 옛말에도 없었고
이 세상에도 없었네만
우리는 넘어오지 않았나!
헤쳐오지 않았나!
오늘의 존엄높은 이 높이에 올라서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동무들
열번도 더 죽을수 있는
달아오른 쇠덩이들이 불비로 쏟아지는속에서
그 어떤 손길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가를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원썬놈들이 장담했던
전후의 그 채무지속에서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안아일으켜 세웠던가를

그 어떤 신념이 있어
멀고 험한 혁명의 길에서
비겁한자들이 주저앉고 물러설 때에도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오늘도 사회주의 한길을 나아가는가를

그것은 판가리 돌격전에도
대건설의 진군길에도
언제나 함께 있었고
언제나 진두에 나아가는
우리 당의 손길
우리 당의 의지

이 순간에도 귀기울이면 들리지 않는가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 식의 걸음으로
혁명의 천만리길을 진두에서 헤쳐가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기발이 날리는 소리

그래 들리네!
돌격전에서 들던 그 소리네
천리마의 나날에 들던 그 소리네
저 소리를 들으며 빛나는 세월을 지나왔지
저 기치아래 백전백승의 먼길을 왔지

그래 들리네!
우리를 승리로 부르는 그 소리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는 그 소리
우리앞에
또 얼마나 금지높은 먼길이 놓여있는가

옛말에도 없고
세상이 다 못가는 길이라도
우리는 넘을수 있네, 헤칠수 있네
위대한 당이 이끌기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수 있네

김일성 그이는 위대한 인간

아브둘라흐 무함마드 엘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신은 인민의 참된 아들
당신이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의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주거늘
우리는 김일성 동지를 노래하노라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당신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현시기 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위대한 기치밑에
세계의 방방곡곡에
자주의 기발 힘차게 나뭇긴다
우리는 김일성 동지를 노래하노라
그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신은 진정한 인민의 수령
로동자 농민들에게
진정한 삶의 보람 안겨주시고

인민들을 혁명동지로 믿어주시며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국가사업을 토론하시는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풍모
우리는 김일성 동지를 노래하노라
그이는 인민적 수령의 전형이라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신은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
당신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지상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시였어라
사회주의는 전인류의 미래
조선은 사회주의의 모범
우리는 김일성 동지를 노래하노라
그이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

김일성 동지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
우리는 김일성 동지를 노래하노라
그이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필자는 민주예멘 혁명철제품공장 부지배인, 기사
임)

주체조선의 참된 애국자

이으란 자한기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계승자
그이는
조선혁명과민족의 운명을 책임진분
그이는
주체조선의 참된 애국자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지도
조선에서 위대한 업적을 낳았고

온 세계에 자주화의 새 력사 펼치시며
반제투쟁의 결정적전진 이룩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대중의 희망과 념원의 상징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통일된 조국땅에
반드시 주체위업을 완성하리라

(필자는 파키스탄 공민임)

빛나는 한생

림병순

1

외국방문을 마치고 열차로 귀국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반쯤 열린 창가에
앉아계시었다. 차창밖에서 밀려오는 선들바람에
하얀 창가림이 그이의 윤기있는 머리카락을 가볍
게 스치며 날리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상기된 안색으로 줄곧 차창
밖에 눈길을 보내시었다. 조국을 떠나실 때 모살
이를 하던 곡식들이 어느덧 뿌리를 박고 살진 푸
른 아지들을 흐느적이고있었다. 가없이 펼쳐진
들에는 초록색무늬들이 줄줄이 수놓아졌고 하늘
은 파란색으로 맑게 개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모든 전경이 처음으로 보시는듯
새로우시었다.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오래 떠나계
신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늘따라 더
욱 깊고 류다른 감회를 자아내는것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바람에 날리는 창가림을 옆으로 제끼
시였다.

나지막한 산굽이를 돌아서자 길한복판에 장끼
한마리가 다급히 기여갔다. 그놈은 마치 기차와
경쟁이라도 하려는듯 곧바로 기여나가다가 문득
한자리에 서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윽고 제결에 놀
라 꺾꺾-꺾꺾- 산중턱으로 날아올랐다.

《허참, 맹랑한놈이로군...》

그이께서는 눈가에 미소를 지으시고 날아가는
장끼를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며칠을 가도 끝나지 않는 외국의 광활한 초원
을 달리시며 넓다는 생각은 드시였지만 그보다
더 보고싶고 귀중한것은 바로 이 땅, 이 하늘이
였다. 하루를 떠나도 사무쳐 그리워지는것이 조
국이었던가? ... 조국...

그이께서는 조용히 창턱에 손을 얹으시고 승엄
한 생각에 잠기신채 조국이란 의미를 속으로 되
새겨보시었다.

《벌써 세벌김을 매고있습니다.》

국경도시에까지 영접나온 최철수가 논김을 매
고있는 농민들을 보자 말씀올리었다. 그이를 가
까이 모시고 일하고있는 일군이였다.

《곡식들이 실하게 자랐습니다. 작황이 아주 좋
습니다.》

최철수는 이어 서해갑문 건설정형을 말씀올리
었다. 그동안 군인건설자들은 돌격전을 벌리며
어려운 가물막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
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만났던 한 병사의 모습을 상기하시었

다. 그는 수십길 바다밑에서 일하는 영웅잠수공
이였다. 어찌 그 청년뿐이라. 해발 1,200미터가
넘는 은룡덕에 대규모의 선광장을 일떠세운 검덕
의 광부들, ... 그런 사람들은 조국땅 도처에 있
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도 당의 요구라면 서슴없이
한가슴으로 막아나서는 인민, 전후 허리띠를 졸
라매고도 한마디 힘들다는 말조차 모르던 인민,
그런 인민들이 있어 조국은 그토록 정답고 소중
한것이 아닌가!

그이께서는 사색을 이으시다 문득 박일의 모습
에 생각이 미치시었다. 한생을 혁명에 바쳐온 로
혁명가였다. 우리 인민들을 조국을 떠받들고있는
강철기둥에 비한다면 그는 그 기둥들이 뿌리내린
초석의 한 부분이였다.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지금껏 조국땅에 돌아오시여 느끼시는 깊은 정
회가 그 한마디 말씀속에 함축되어있는듯 그이의
음성은 가볍게 떨리었다.

《그동안 박일동지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그는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침상에
서 운신조차 할수 없는 몸이였다. 그이께서 일군
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시며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실 때 그 자리에 없는 박일의 모습이 오래동
안 눈앞에 밝히시여 마주저으시던 손길이 절로
굳어지셨던것이다.

최철수는 박일의 병세에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려
운 고비를 용케 이겨냈습니다.》

《음...》

《요즘은 원장이 땀을 좀 빼는 모양입니다. 어
제는 끌어놓았던 입원실전화선을 다시 연결시키
라고 조르는바람에 하는수 없이...》

모가 없이 등근 최철수의 입언거리에 민망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박일리와 함께
유격대에 입대하였고 같은 련대에서 지휘관으로
싸우다 전사하였던것이다. 그런것만큼 그와 박일
은 친혈육과 다름없이 지내고있었다.

《불같은 성미니 그럴것입니다.》

《이제야 그 나이에 몸조리나 하면서 편안히 보
내면 그만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

최철수는 성급히 말끝을 얼버무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색을 살피었다.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의논하시듯 부드럽게 물으시었다.

《아무래도 사업을 내놓기전에는 완치되기가 어

려울것 같습니다. 그 성미에 또 일을 하시다 다시 악화되는 날에는...》

그이께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묵묵히 최철수를 바라보시었다. 그의 말대로 박일이 사업을 내놓으면 마음편히 지낼수 있을것인가? ...

《본인도 그런 생각입니까?》

《아직 본인에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설복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제대로 못할바에는 차라리 지금...》

그이께서는 못내 서운한 안색으로 말끝을 더듬는 최철수를 물끄러미 지켜보시다가 창가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박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무엇도 주저할것이 없었다. 그러나 료양생활도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해야겠다고 뛰쳐나오는 박일이고보면 그것은 그에게서 날개를 잘라버리는것이나 다름없었다.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헌신, 불타는 사업의욕, 그것은 로혁명가의 사색과 생활의 모두였고 생의 활력이고 기쁨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혁명투사 박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정 그런 방법만이 유일한 처방일것인가?

...그렇게 되면 한생 혁명밖에 모르는 로투사의 영생은 한갓 인생말년의 안식으로 그치고말것이다.

그이께서는 쉽없이 갈마드는 박일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 하여 등받이에 약간 몸을 기대신채 더한층 깊은 회억의 물결에 휩쓸어드시는것이였다.

×

몇년전, ...

그해의 마지막밤이였다. 수도의 거리에는 갖가지 장식등이 현란한 빛발을 뿌리며 쉽없이 명멸하고있었다. 설맞이공연도 끝나고 머지 않아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퍼질 깊은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일이 입원하고있는 병원에 나가시여 의사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계시였다.

방안에는 자주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였다.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이여서만이 아니였다. 지금 방안에는 얼마전 환자의 침상결에서 울린 위대한 수령님의 갈리신 음성이 마치 가라앉지 않는 파문처럼 일렁이고있었던것이다.

《내 설맞이공연을 해마다 박일동무와 같이 보군하였는데 오늘저녁에 동무가 결에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더구만... 그래서 내 여기 왔소. 동무마저 내결에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우?...》

귀여운 세배동지들의 설인사를 받으시고 그길로 박일이한테로 오시였던 수령님이시였던것이다. 어린이들의 온갖 재롱을 보실 때마다 못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의 내심깊이 자리잡고있는 그 쓰라림을 가셔줄길 없는 아

픔으로하여 의사들은 모두 어깨를 움츠리고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그 피로움을 묵새기고계시였다.

한동안 묵묵히 의사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그늘진 눈가에는 고뇌의 흔적이 짙게 어려있었다. 환자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수술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로쇠한 고령의 환자에게 그런 치료방법을 적용한다는것은 모험이 아닐수없었다.

《동무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침상에 누워있는 투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왕청에서부터 수령님을 모시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을 걸어온 로혁명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로혁명가들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나는 그것이 가슴이 아쁩니다.》

물기어린 그이의 음성에서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감득하자 원장은 뜨거운것을 삼키는듯 고개를 숙이고 지그시 입술을 감싸물었다.

《로혁명가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리에 앉아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서 일을 할게 아닙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꼭 환자를 구원하겠습니다.》

원장이 말씀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의사들의 의지를 고무하시듯 결연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수술을 해야만 환자를 구원할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대신 그에게는 강한 의지가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원장이 주저없이 대답을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수술을 위한 준비들이 면밀히 세워졌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받기를 단념하였다. 그는 로환은 무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사들의 결심을 돌려세워보려고 애썼다.

한생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로투사의 투지와 신념이 한갓 병마에 꺾이었던 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획된 현지지도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또다시 병원에 나가시였다. 침상결에 앉으시여 자기를 타이르시는 그이께 박일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로환은 무책이라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제 병이 나오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몸조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다가 마치고싶습니다.》

순간 그이의 안색은 한층 엄숙해지시였다.

《어려운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분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몇십년은 더 일해야 하는데...신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박일의 입가에 경련이 일듯 잔물결이 흘렀다.

《수술은 꼭 하셔야 합니다.》

《...》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정히 환자의 여원 손을 조용히 당겨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제 제 일로 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더구나 래일은 현지지도의 먼길을 떠나시겠는데...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하는걸 보아야 마음을 놓고 길을 떠날게 아닙니까?》

박일은 뜨거운것을 삼킨듯 턱을 누르며 약간 고개를 옆으로 돌리었다.

《혁명을 오래 해온 분들이 건강하여 일을 하여야 우리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럼 수술을 받도록...》

언제보나 가식을 모르고 어린이들과도 같이 순결무구한 로투사의 그 마음이 그지없이 고마우시었다.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시여 다정히 말씀하시고 로투사의 손등을 오래동안 쓰다듬으시었다.

그렇게 되어 수술일정이 정해지고 드디어 마음조인던 그 순간이 다가왔었다.

수술장천정에서는 축수높은 전등불이 수술대우에 누워있는 박일의 전신을 비치고있었다.

침묵속에 눈길이 오가고 말없는 대화가 진행되는 수술장은 몹시 긴장된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수술정형을 보시기 위하여 최철수와 함께 병원에 나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텔레비존 화면을 통하여 그 정경을 지켜보고계시었다.

수술대가까운 창가에 이미 반백이 넘은 박일의 안해가 시름겨운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그 모습을 띠어보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흐려진 눈길을 밑으로 떨구시었다.

집도할 원장의 눈가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떠돌고있었다. 그 감출길 없는 불안감은 의사의 실무적인 타산에서 오는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을 민감하게 포착하신 그이께서는 자연히 마음이 무거우시었다.

화면에는 박일의 수척해진 모습이 비쳐졌다. 그역시 근엄하게 입술을 다물고있는 표정이 몹시 긴장된것 같았다. 술이 짙은 눈섭을 마주붙이고 있는 그의 기름한 얼굴은 더한층 홀쭉하게 여위었다.

환자의 모습을 측은하게 눈여겨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눈길을 내리시고 탁상우에 두손을 얹으시었다.

수술장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눈길들이 심전계기의 눈금만을 지켜보고있었다.

박일의 안해가 성글어진 속눈섭을 연방 슴뻑이며 환자를 지켜보고있었다. 불안과 초조감, 기대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팔소매를 밀어올리시고 시계를 보시었다. 수술을 시작할 시간이 지났으나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혈압계와 심전계의 눈금을 살피고있는 원장의 주위에 조수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당황해하는 기색들이었다.

《저 동무들이 왜 저럽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술장의 분위기를 주의깊은 시선으로 눈여겨보시다가 의혹을 품으시고 물으시었다.

급히 밖으로 나갔던 최철수가 몹시 수심에 빠인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환자의 호흡과 혈압 수치들이 적힌것을 조심히 내놓았다.

《잡자기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그이께서는 잠시 갖가지 수치들이 적힌 종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정상 상태로 돌아와야 할 호흡과 맥박은 물론 모든 측정계기와 그래프의 수치들은 혼란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을 받기가 곤란하였다.

수술장에서는 원장은 물론 간호원들까지 매우 초조한 표정으로 측정을 반복하고있었다.

박일의 안해가 마음의 불안을 억제하는듯 한손으로 의자모서리를 틀어쥔채 의사들의 얼굴을 살피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시던 종이를 앞으로 밀어놓으시었다.

지금 환자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과 힘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저 안해의 모습에서 무엇을 받을수 있겠는가.

한동안 말쑤를 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고 눈길을 드시고 최철수를 찾으시었다.

《철수동무, 내가 당중앙위원을 대표하여 수술 립회를 하여야겠습니다. 나에게 위생복을 가져다 주시오.》

방안에는 일시에 납덩이같은 침묵이 온 가슴을 내리눌렀다.

최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선뜻 응해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술립회만은...》

《아닙니다. 환자가 마음을 안정하고 수술을 받을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이렇게 최철수를 타이르시듯 다정히 말씀하시고 먼저 방에서 나가시는것이였다.

잠시후 수술장의 출입문을 조용히 여시고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박일의 안해옆으로 걸어가시었다. 마음을 놓고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타이르시

는 그이의 말씀을 듣자 지금껏 눈물을 억제하고 있던 안해의 눈에서는 거침없이 뜨거운것이 쏟아져 내리었다.

이윽고 박일의 안해를 내보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곧 수술대옆으로 다가가시었다.

뜻밖에 그이를 알아본 환자는 다급히 일어나려고 두손을 수술대에 뻗디디며 큰몸을 움직이였다.

그이께서는 얼른 환자를 저지시킨 다음 바로눌도록 부촉해주시고 묵묵히 박일의 두손을 움켜쥐시었다.

《마음을 꼭 놓고 수술을 받으십시오. 내가 수술립회를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이의 손길을 감촉하자 박일은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을 더듬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만...》

《힘이 들면 내 손을 꼭 잡으십시오. 내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곁에 앉아있겠습니다.》

걱정을 억누르고 있는 박일의 술진 두눈섭이 섬없이 꿈틀거리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나서 환자는 집도할 원장을 자기옆으로 불렀다. 원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먼구스러운 표정으로 타이르듯 말했다.

《어서 걱정말고 수술을 시작합시다.》

박일은 평온한 기분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후 혼란되었던 계기와 그라프의 수치들이 점차 정상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곧 수술이 시작되었다.

2

박일은 입원실 침상에 일어나 앉아 부관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미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것이 어딘가 마음이 켜기였다.

오늘따라 원장의 눈길도 유심해진듯싶었다. 그의 감시와 통제는 날을 따라 더 엄격해졌다. 출판물이나 통신을 보는것마저 통제를 받으니 기가 막혔다.

박일은 눈시울을 쪼프리고 갈마드는 생각에 험싸인채 움직이지 않았다. 건강이 회복되고있으나 웬일인지 몸은 그전과 같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것이 나이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혁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짐이 되고있다는 쓰라림으로 하여 그지없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그때 탁상우에서 전화종이 울리었다.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이였다. 그는 박일을 확인하자 송구한 어조로 비료공급정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예전한대로 전진이 없었다.

《물론 생산된 비료야 언제든 다 농촌에 나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날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가 늦으면 소출이 어떻게 된다는거야 나보다 부위원장동무가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있지만 수송수단이 걸렸 습니다.》

몇마디후부터 벌써 우는 소리였다.

수화기를 든 박일의 이마에 주름살이 패이였다. 인내성있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박일은 애라는 어조로 말했다.

《물론 애로조건이 있겠지요. 그래서 내나 동무가 있는게 아니겠소? 당정책이 드팀없이 집행되라고 우리들이 있단말ि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외국방문도중에 올해 농사일때문에 전화까지 걸으셨단말ियो. 나나 동무가 무책임해서 비료공급이 좀 늦었소. 더 늦기전에 우리 힘을 합쳐서 풀시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몇가지 방도들을 이야기하고나서 전화를 끊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출입문가에 최철수가 서있었다. 손에는 난데없는 지팡이가 들려있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도중 현지에서 협의회를 지도하시고 오늘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철수는 원탁가까이로 걸어왔다.

《방금 어데다 전화를 걸었습니까?》

박일은 아무 응답이 없이 묵묵히 쏘파로 자리를 옮기었다.

《자꾸 그러시면 안됩니다. 의사들의 립장도 생각해줘야지요.》

《난 밖에서 걸어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규률을 위반한 셈인가? ...》

잔주름이 잡힌 박일의 입가에 어쭙은 미소가 비끼었다.

《지금 박일동지 몸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네 또 원장선생을 만난게로구만. ... 이젠 제발 중환자라는 딱지를 떼버리라고 하게. 언제 보아야 의사들은 과장하기를 좋아한다니까. 아 이렇게 신수가 말썽한 사람에게 그런 딱지를 붙이다니...》

최철수의 입가에도 가벼운 미소가 스치었다.

《그런데 이자 어데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박일은 눈을 치뜨고 최철수를 마주보았다.

《난 그런 말을 한게 없는데?... 하긴 병원에 누워있자니 답답해서 들에 나가 신선한 공기라도 마시고 와야겠네. 그것이야 허용될테지?》

《아마 아직은 승인하지 않을겁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요.》

《이거 신용을 단단히 잃었는걸. ... 그럼 자네가 보증을 하면 될게 아닌가?》

《내가요? ...》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옆의 쏘파로 다가선

최철수는 박일의 기색을 살피면서 넋지시 한마디 더 하였다.

《나야 원장선생한테 통제를 늦추면 안된다고 늘 강조하는걸요.》

《그럴테지. ... 아주 솔직하네그러.》

박일은 느닷없이 침울해진 낯색으로 나직이 뇌이였다.

《부락인데 인젠 사업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년세도 높은데... 대신...》 하고 최철수는 가져온 지팡이를 박일의 앞에 내주었다.

《하루에 두번씩 정원에 나가 산보를 하십시오. 이것이 한결 의지가 될겁니다.》

《허허, 자네도 마치 의사가 된것 같군그래.》

박일은 허구프게 웃으며 지팡이를 받아들였다. 제법 손잡이에는 장식까지 하였다.

《재간스레 꺾았는걸...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지팡이를 동무삼아 산보나 하라는거겠소?》

어딘가 허망하고 서글픔에 젖은 목소리였다.

《반드시 부관과 동행하는 조건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심란한 표정으로 잠시 지팡이를 이리저리 살피던 박일은 그것을 쏘파옆에 세워놓고 침상으로 맥없이 옮겨앉았다.

그는 그 어떤 커다란 상실감이 괴롭게 가슴을 누르는듯 속이 그지없이 답답하였다. 자신이 이제 혁명사업을 내놓으면 남는것은 박일이란 이름 두자뿐이었다. 애당초 이름을 남기자고 혁명을 한것도 아니요, 말년의 안식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온것도 아니였다. 그렇다면...

박일은 비스듬히 침상에 몸을 눕히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있던 최철수가 부관이 어데 갔는가고 물었으나 박일은 자기도 기다리고있는중이라고 하면서 시침을 뺐다.

그러는 박일이 어딘가 수상하였으나 최철수는 내색하지 않고 좀 안정하라고 이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하는걸 봐도 심상치 않았다. 혹시 어데 나가려는것이 아니겠는지? 그러다 무리해서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에는...

최철수는 한자리에서 생각을 굴리였다.

밖에서 승용차의 동음이 들리였다. 부관이 돌아 온 모양이였다.

그 소리에 귀를 강구고있던 최철수는 지체없이 방에서 나와 조급히 계단을 내리였다.

젊은 부관이 최철수를 보자 멧적은듯 굴곡있는 얼굴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최철수는 마주오는 부관에게 무슨 일로 갔댔는가고 따져물었다.

부관은 대답을 피하였다.

《그건 묻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이 비밀이 탄로되면 입이 가볍다고 날 책망할겁니다.》

그러자 최철수는 부관까지 그렇게 같이 춤추다

또 무슨 후파가 미칠지 아는가고 일부러 눈지방을 비틀어보이였다.

부관은 한숨을 지었다. 독촉을 몇번 받고나서 그는 갑자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몇번이나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막아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란 무엇인가 말이요?》

최철수가 다그쳐 묻자 부관은 잠시 뜻있는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에 도착하시는 시간을 알리고 갔댔습니다.》

그 순간 최철수는 자기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였다. 정말 뜻밖이였다.

(아, 그래서였구나! ...)

최철수는 숨이 막혀 목깃을 헤치였다. 승엄한 감정과 함께 자기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뉘우침이 번거롭던 뇌수를 휘저으며 가슴을 짓눌렀다.

《박일동지의 몸으로 역에 나갈수 없다고 막아나서겠지요? 나도 그래서 몇번이나 말렸습니다. 그러나 박일동지의 결심을 막아낼수가 없었습니다.》

부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철수는 성급히 몸을 돌리여 2층계단으로 향하였다.

복도를 지나 입원실의 문을 연 그는 방안의 광경을 보자 그만 문가에 얼어붙고말았다.

박일이 혼자 걷는 연습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무겁게 발을 옮겨딘고있는 로투사의 주름깊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였다. 창가로 걸음을 옮기던 박일이 웬일인지 두손으로 허리를 그러쥐고 몸을 굽히였다.

뒤따라 온 부관이 지체없이 달려가 박일을 부축하였다.

《가만 뒤두게!》

무뚝뚝하고 엄한 표정이였다.

부관은 박일의 몸에서 손을 떼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환자를 지켜보았다.

최철수가 신중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글쎄 그런 몸으로 어델 나가신다고 그럼니까?》

박일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다 불시에 몸의 균형을 잃고 두팔을 맥없이 휘저으며 간신히 창턱에 가서 기대인다.

《정 나가시려면 지팡이를 짚고 나가십시오.》

최철수가 마지 못해 권하자 박일은 가쁘게 숨을 뿜으며 입속으로 뇌이였다.

《지팡이를 짚고 나가면 그이께서 걱정하시지나 않을까? ...》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나가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동지께 심려를...》

그 소리에 박일은 돌연히 눈을 지릅뜨고 최철수를 쏘아보았다.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노기어린 박일의 눈썹에 찢려 최철수는 말문을 막힌채 마른침만 삼키었다.

《중요한 사업을 맡은 임자가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하면 안되네. 내 의식이 있는한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침상에서 맞이할수는 없네.》

박일은 이마의 땀을 훔치고나서 다시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그 모습에 감전된듯 최철수는 화석처럼 굳어진 채 출입문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로투사의 저뜨거운 결심을 어떻게 막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막아야 한다는 누를길없는 의무감이 또다시 머리를 들었다.

그는 달아오르는 가슴을 추기듯 몇번이나 침을 삼키고 주저없이 박일이한테로 가까이 걸어갔다.

3

특별렬차는 수도의 중심거리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시야에는 하늘을 찢를듯 높이 솟은 고층건물들의 각이한 위용이 흘러들었다. 시원하게 뻗은 넓은 거리들과 신록이 짙어가는 푸른 가로수들, 산뜻한 여름옷차림의 행인들로 하여 수도는 한층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렬차는 보통강유원지를 지나 서서히 평양역구내로 들어섰다. 저쪽에 마중 나온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첫눈에 띠여보시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천천히 승강대로 나오시었다.

홀우에 내리시여 일꾼들을 향해 활달한 걸음으로 걸어가시던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놀라신 안색으로 약간 걸음을 늦추시었다. 일꾼들속에 유별나게 큰 몸을 구뵈하고 서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박일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낮익은 모습을 확인하시듯 눈시울을 좁히시었다. 박일이 분명하였다. 그가 퇴원하여 저렇게 일꾼들과 함께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솟구쳐오르는 반가운 마음을 누를길 없으시여 걸음을 다우치시었다. 로투사는 아직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있었지만 수술전에 질게 어렸던 중환의 병색을 한결 가신 기색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기쁘시었다.

사실 박일은 험난한 유격투쟁시기에도 상처하나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가시덤불길도 먼저 걸었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곳이라면 수천척지하막장이나 건설장에 언제나 먼저 달려갔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앞에 심장을 내대는 저런 로혁명가들이 있어 자신께서도 더욱 마음이 든든하시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일의 앞으로 다가서시여 먼저 로투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중나와주시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쁜 안색을 보이시자 박일은 환히 웃으며 그이께 외국방문성과를 축하하였다.

《아직 불편한 몸인데... 무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젠 산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팡이까지 짚아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일의 손을 놓으시고 지팡이에 눈길을 돌리시었다. 그것은 마치 로투사의 몸안의 깊은 상처를 헤쳐보시는듯 쓰라림을 이길수가 없으시었다.

《하긴 산보할 때는 이런것도 제법 심심풀이가 됩니다.》

《네...》

그이께서는 피로운 심점을 애써 감추시고 로투사의 밝은 기분에 미소를 지으시며 응수하시었다.

《옛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멋으로 개화장을 짚고 다녔지요. 하긴 나도 젊었을 때는 스테끼를 짚고 공작을 다닌적도 있습니다.》

박일은 지팡이를 가볍게 휘저으며 밝게 웃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빙그레 따라 웃으시였으나 여전히 안색은 밝아지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침통한 기색으로 묵묵히 지팡이를 쓸어보시었다.

그 모습을 대하자 박일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누가 짚았는지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지팡이를 박일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다.

《철수 그 사람이 부탁하여 짚아온 모양인데... 원장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통제를 합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뇌이시며 허구프게 웃고있는 로투사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을 하다 죽는것이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이던 로투사였다. 로혁명가의 그 불같은 의지와 소원을 과연 무엇이 꺾을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한생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면서 움트고 거목처럼 뿌리내린 그의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이러한 신념이 있어 우리 혁명은 수많은 시련을 이기고 승리해왔다는 생각이 굳어지시자 박일이 더없이 미덥고 고마우시었다.

우리가 이제 로혁명가에게 안겨줄수 있는것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이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천천히 자리를 옮기시었다.

이윽고 일꾼들과 헤어져 집무실로 가시는 승용

차안에서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투사에 대한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으시였다. 지팽이를 휘저으며 웃어보이던 박일의 모습이 자꾸 가슴을 누르고 심장을 허비였던것이다.

(우리는 한생 혁명밖에 모르는분에게 기껏 지팽이를 쥐여주었는가? 여생을 그 지팽이에 의지하여 지내라고. ...?)

그 아픈 심정은 이튿날에도 가셔지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원에 전화를 거시여 박일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신 다음 친히 최철수를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한동안 전화기옆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철수가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서자 먼저 박일의 행처부터 알아보시였다.

병원에서는 어제 나간 환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최철수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주춤거리다가 의혹이 실린 어조로 말씀을 올리였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며칠전부터 퇴원을 하여야겠다고 요구는 하였지만...》

《승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알고보니 어제 역으로 나가시려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이께서는 한결 더 심중해진 안색으로 묵묵히 최철수를 바라보시였다.

《그래서 그 몸으로 역에 나가시는걸 막았지만 얼마나 완강하게 나오는지 결국 지고말았습니까.》

《물론 어려웠을겁니다. 하지만 막았어야 했습니다. 지팽이까지 짊고 나오자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나오지 않아도 회복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나야 여간 기뻐올게 아닙니까...》

물기에 젖은듯싶은 갈리신 그이의 음성을 듣자 최철수는 실한 몸을 약간 숙이였다. 이윽고 그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조심히 말씀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만큼 회복되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의사들도 로년기의 난치의 병이다보니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실망한 표정으로 최철수한테서 눈길을 돌리시였다. 최철수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아직 이것저것 다 돌보려고 하시니 야단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잠시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계시였다. 누구보다도 로투사의 심정을 깊이 이해해줘야 할 최철수였다. 그런데 그는 지금 로투사의 애타하는 그 심정과 노력을 한갓 부질없는 늙은이의 로파심으

로 치부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러는것이 몹시 서운하시였다.

《박일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책이라도 세웁시다. 그러나 난 동무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물론 환자가 그만큼 회복된것만 해도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수가 없습니다. 로투사를 위해 할수 있는것이 고작 그것뿐이겠습니까. 지팽이를 짊고있는 그를 편한 마음으로 대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탓하고 책망하시는것이 아니였다. 로투사에게 지팽이만을 안겨준 그 피로움에 그이의 음성은 몹시 갈리였던것이다.

최철수는 깊은 충격과 자책에 사로잡혀 몸둘바를 몰랐다. 하찮게 여겨온 그 지팽이가 이토록 그이의 심증을 아프게 허비게 될줄은 몰랐었다.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여 송수화기를 드시고 박일의 저택을 찾으시는것이였다.

송구스러워하는 박일의 안해의 목소리가 조용히 수화기의 강관을 올리였다.

박일은 집에도 없었다.

《방금전에 원장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돌아가실것 같지 않습니다.》

안해는 이미 짐작하고있듯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올리였다.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닙니까?》

《없습니다. 다만...》

말끝을 잠시 풀며 망설이던 박일의 안해는 숨을 깊이 들이그었다.

《아침부터 응접실의 그림앞에서 떠나지 않기에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주인한테 오늘이 뜻이 있는 날이였습니다...》

순간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충격적으로 움직이시였다.

안해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혁명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갈길몰라 헤매던 젊은 박일이 장군님을 처음 만나뵈고 친히 정치공작임무를 받은 날은 그가 혁명가로 이 세상에 새로 태여났을뿐아니라 참된 인생의 시작이였다. 바로 그날이 50여년전의 오늘이였던것이다.

《주인은 자기 생신날은 잊어도 이날만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지지 않는다고 독촉만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끝없이 밀려드는 감동의 물결을 고이 감싸안으시듯 송수화기를 드신 손을 앞가슴에 얹으신채 깊은 상념에 잠겨계시였다.

밀영의 귀틀집앞에 마주앉으시여 정치공작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젊은 박일, 응접실에 있는 그 그림은 박일이 60돐 생일을 기념하여 수령님께서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거기에는 실로 깊고 숭엄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으나 변심을 모르는 박일은 지금도 그날의 의

지와 신념으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고저 아글타글 애쓰고있는것이였다.

로투사의 그 간절한 심정을 자신께서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쓰라림이 앞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촌에 나가 씨원한 바람이나 쏘이겠다고 하였습시다. 그밖에는...》

이윽고 송수화기를 놓으신 그이께서는 박일의 행처를 추적하시는듯 그대로 책상옆에 서계시였다. 박일이 오래동안 침상에 누워있다고보니 산책을 하려 갈만도 하였지만 오늘은 그럴것 같지 않으시였다.

그 예측이 확고해지시자 그이께서는 박일이 간데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송수화기를 드시는것이였다.

한동안 또릿한 처녀교환수의 맑은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울리였다. 농업위원회와 15호초소에서 확인을 하고난 교환수는 마지막으로 수도에서 떨어진 어느 군당의 책임비서를 불러냈다.

그를 통하여 박일의 행처를 확인하시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안색은 일시에 밝아지고 입가에 얹은 미소가 피여났다.

군당책임비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울리였다.

《박일동지는 오시자 농촌경영위원회에 들리어 비료공급정형을 알아보시고 곧 화평농장으로 나갑니다.》

《비료공급정형을 말입니까?》

그이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시고 저으기 심중한 기색을 하시였다. 지금 농촌에 비료를 운반하는 데서 수송수단이 긴장되어있었다. 그이께서 귀국하시여 올해 농사정형을 료해하시면서 긴급히 포치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였다.

짧은 기간에 많은 물동량을 전국의 농촌에 보내야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고리를 나라의 예비수송수단을 총동원하는 전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비상한 방도를 찾으시였던것이다.

박일이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여 농촌실태를 모를리없고 알기만 하면 걱정만 하면서 침상에 누워있을 그가 아니였다.

군당책임비서는 계속하였다.

《박일동지는 비료운반이 늦어진걸 걱정하시면서 자기가 꼭 책임지고 풀테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였습시다.》

《그래 몸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자 책임비서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였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였습니다.》

《네...》

《하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작황이 좋은 곡식을 보니 몸이 날것처럼 거뜬해진다고 기뻐하

였습니다.》

《그렇소? 일밖에 모르는분이니 그랬을것입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작황을 돌아보는것이 더없는 휴식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금전에 농업위원회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평양으로 떠나갔습니다.》

전화는 끝났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고 또다시 깊은 상념에 잠기시였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우리 혁명을 떠받들고있는 박일이였다. 어떻게 해야 로투사의 마음속 한가닥 번민을 씻어줄수가 있으며 그길에서 생의 활력을 소생시키고 끝까지 혁명가의 높은 긍지를 간직하도록 도와줄수가 있을것인가? ...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철수한테로 몸을 돌리시며 무겁게 말씀을 폐시였다.

《철수동무, 박일동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혁명밖에 모르는분이 지팡이를 짚고 산책이나 한다고 그것으로 자기 여생의 위안이 되겠습니까?》

나직이 울리는 그이의 음성은 명상에 젖어 가늘게 떨리시였다.

《그의 존재가 결코 과거의 투쟁경력으로만 빛나는것이 아닙니다. 투쟁으로 시작된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빛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혁명을 오래한분들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전부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립장에서 로혁명가들의 여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미쳐...》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최철수는 달아오르는 눈시울을 세차게 습벅이며 목이 메여 말을 떠듬거리였다.

《로혁명가들의 여생이 어찌 인생말년의 한갓 안식에 그치겠습니까? 그렇게 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자 후대들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철수는 무거운 자책감에 잠겨 그이를 우려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여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이윽고 안면에 밝은 기색을 띠시며 최철수를 뜻있게 바라보시였다.

《오늘 박일동지를 태봉숙소로 보내야겠습니다.》

순간 최철수는 그이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태봉숙소에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가계시였다. 태일부터는 그 일대 농촌에 대한 현지도도 예견되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어제 박일동지의 건강상태를 료해하시면서 그만하면 이제는 말동무라도 하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이왕 병원에서

나왔으니 며칠동안 태봉숙소에 가서 수령님과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에게 뜻깊은 날이니 수령님과 함께 회억도 나누고... 그리고 래일 부터는 사업도 같이 의논하고 현지지도에 동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것이 병원에서 치료받는것보다 더 나을것입니다. 더없는 휴식으로 되지요. 그에게서 사업을 빼앗으면 안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뜻깊은 말씀을 듣자 최철수는 깊은 감동과 뼈저리는 후회심에 가슴이 저미는듯 괴로웠다. 로투사의 여생을 빛내여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하고도 웅심깊은 사랑에 어느덧 최철수의 눈굽이 젖어올랐다.

그이께서는 그동안 박일의 건강에 대하여 한시도 마음놓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주치의사를 보내어 검진도 제대로 하고 치료사업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다시한번 타이르시고 나서 최철수를 곧 태봉숙소로 떠나도록 하시였다.

4

그 시각.

박일은 수도에서 백리가량 떨어진 농장포전들을 돌아보고 농업위원회를 향해 가고있었다.

방금 보고 오는 농장의 강냉이작황은 아주 좋았다. 이랑을 덮은 강냉이잎들이 윤기를 머금고 설렁이는 모양을 바라보는 박일의 마음은 흐뭇하고 유별나게 기분이 상쾌하였다.

이제 그 곡식들이 덧비료까지 먹으면 소리치며 물썩물썩 자랄것이다.

그러나 농장들에서는 비료가 도착하지 않아 속을 태우고있었다. 포전머리에서 하던 처녀관리위원장의 말이 예리한 화살처럼 그의 머리에 박혀있었다.

《비료는 반드시 때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곡식들이 한창 배고파할 때 주어야지 허기증이 지난 다음에 주면 효과가 적습니다.》

일군들이 농민들의 심정으로 일하지 못하고있었다. 기일이나 농작물은 어떻게 되든 비료를 농장에 다 보내주었다는 말만 들으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중간지도단위에 걸려있었다.

《생산된 비료야 왜 제때에 실어다주지 못하겠습니까? 농민들처럼 애타하지 않습니다. 요령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는것은 곡식이고 결국 땅에 손실을 줍니다.》

땅과 같이 거짓과 요령을 모르는 순박한 처녀관리위원장의 말이였다.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도와주고 일을 잘하도록 떠밀어줄 사람은 다름아닌 자신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껏 무엇을 하였던가?

투명하고 생기있는 눈동자를 깜빡이며 애타하던 처녀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어 박일

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당장 찾아가 풀어야 할 기관들을 머리속에 익혀 나가느라 생각에 골몰하고있던 그는 승용차가 갑자기 흔들리는바람에 눈을 떴다. 15호초소였다.

《웬일이요?》

《초소에서 정지신호를 보냅니다.》

운전수는 점차 속도를 죽이였다. 초소에서 멈춰 세우기는 처음이었다.

저쪽 초소막앞에 초소장인듯싶은 팔에 완장을 낀 군관이 서있었다.

차가 속도를 죽이자 초소장이 급히 걸어왔다. 그는 차창결에 와서 박일을 확인하자 정중히 경례를 하였다.

《박일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전화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일은 놀라 앉은 자세를 고치였다.

《동무네 초소에 전화를 걸으셨단 말지요?》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초소를 수많이 통과하시였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기는 처음입니다.》

초소장은 금지에 차있었다. 그는 전화내용을 전달하였다.

《박일동지가 돌아오거든 평양으로 들어오지 말고 태봉숙소로 가시도록 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초소장은 마디마디 힘을 주어 말하고나서 다시 경례를 하고 한걸음 물러섰다.

이윽고 승용차는 천천히 15호초소를 떠났다.

박일의 두툼한 입술이 씩없이 썰룩이였다.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가지는 하나의 습관이였다.

로투사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방금 초소장이 하던 전화말씀을 조용히 되새겨보았다. 짧은 그 말씀속에 무엇인가 큰 의미가 포함되어있을것이라는 짐작이 들자 마음의 격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로투사의 생각은 한층 깊어졌다. 길가에는 화창한 해벌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정갈하게 꾸려놓은 화단을 바라보던 박일은 불현듯 자기의 존재가 영원히 해빛의 애무를 받는 화초와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태양의 자양분을 받아 자신은 지난 날도, 오늘도 참되고 보람있는 인생을 누리고있는것이였다.

어느덧 승용차는 갈림길을 가까이하고있었다. 한쪽은 수도로 가는 길이였고 산기슭으로 굽어진 길은 태봉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승용차는 산기슭으로 꺾어져 둔덕진 포장도로를 잠시 달리였다. 민출하게 하나와 같이 자란 송림속의 그윽한 길을 지나니 저쪽 전나무의 검푸른 수림속에 숙소의 일각이 보이였다.

박일은 숙소가 가까와지자 어딘가 모르게 숨엄한 분위기를 감촉하자 절로 마음이 긴장되였다.

숙소현관앞에 커다란 검은 승용차가 보이였다.

그것을 발견하자 박일은 경건한 표정으로 옷깃을 여미고 차에서 내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것이 분명하였다. 열려진 창가에서 금시 우렁우렁한 수령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오는듯 싶었다.

정문에 나와 기다리고있던 최철수가 급히 박일 이한테로 달려왔다. 그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 자기를 여기로 보내신 은정깊은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눈앞이 흐려져 한자리에 굳어져버리 었다.

그때 저쪽 현관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 나오시었다.

박일은 형언할수 없는 감회와 걱정애 휩싸이어 한자리에 멈춰선채 잠시 수령님을 우러렸다.

《박일동무가 왔소. 박일동무가 제발로 걸어왔 단 말지요...》

수령님께서는 거듭 이렇게 되이시며 두팔을 쯈

벌리시고 활기있게 박으로 걸어나오시었다.

그 모습을 우러르던 박일은 무슨 생각이 들었 든지 손에 들고있던 지팡이를 최철수한테 넘겨주 고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다급히 걷는 그의 몸 이 이따금 휘청거리었다.

《아직 몸이 불편할텐데...》

《수령님 ! ...》

박일은 자꾸 이슬방울이 앞을 가리워 연방 눈 시울을 습벽이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오늘은 박일동무가 보고싶었는데 이렇게 왔구 만...》

《수령님 ! ...》

박일은 거듭 수령님을 목이 메여 부르며 그리 품에 안기듯 가까이로 걸어갔다. 바로 이 걸음이 래일은 들끓는 건설장이나 포전으로 이어진 길이 였고 투쟁으로 이어지는 빛나는 여생의 길이였다.

새 거리가 일떠서는곳에서

박철

건설의 동음 메아리치는 락랑땅
웅장하게 일떠서는
새 거리를 걸으며
평양이여 나는 너의
넓이와 높이를 생각한다

진동하는 땅
무수한 강철팔에 휘저어지는 하늘
어디나, 창조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넓어져가는 너의 그 끝은
높아져가는 너의 그 끝은

바라보면... 십리로 아득한 저 끝이더냐
아니여라 아니여라
동으로도 서쪽으로도
건설의 음향 가득차 넘치는
너 평양이여

문수거리와 룡라도
두 기슭을 이으며 새롭게 뻗어가는
황홀한 줄다리를 안아보노라
화강석을 다듬어 정히 쌓아올린
쑥섬의 아름다운 유보도를 걸어보노라

가슴을 흔들며 흔들며 울려와라
대성산기슭에 새롭게 일떠설 유희장
거기서 피여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가에 수천수만의 창문을 열며
하당거리에 넘쳐날 노래소리가

아
땅이
땅으로 넓어지는것이라
하늘이
하늘로 높아지는것이라

그것은 인민의 행복을
사랑의 한품에 안고
우리 당이 위대한 사색으로 불태우는
그 천만날이
평양의 하늘땅에 펼쳐지는것이라

사랑의 높이이리 !
은정의 넓이이리 !
내 조국의 수도 평양을
이 세상 가장 빛나는곳에 반들어올리려는
우리 당의 구상에서 나래치는

아, 그 사랑, 그 은정에 실려
평양이여
너의 지경 그 어느곳에서 끝이 나도
너의 행복의 터전은 기슭을 모르리 !
네우에 쌓여지는 재부는 하늘을 모르리

나는 지금
건설의 동음 메아리치는 새 거리에서
평양의 행복 내 행복으로 안고
터질듯한 기쁨에 취해있노라
터질듯한 긍지에 넘쳐있노라

《국제공인》에 구매되지 않으시고

1975년 3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함경북도를 현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

도안의 건설사업을 말아보던 한 일군이 그이께로 찾아와 경기장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지도차로 내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분초가 새롭게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군이 부득이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풀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진에서는 국제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현대적인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설계과정에 그만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애초에 설계일군들은 지정된 위치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경기장의 장축을 동서방향으로 앉혔다.

그런데 체육관계자들은 설계를 보고 경기장의 장축은 반드시 남북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장축을 남북으로 놓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기때문에 경기장을 건설해놓고도 국제경기를 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헛공사를 하는셈이라는 것이다.

《국제공인》이라는 이 녀석에 놀리어 설계가들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립장에 빠졌다.

그리하여 경기장건설은 계획에만 예견되었을뿐 사실상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일군들과 설계가들은 토의를 거듭하며 모대해보았으나 워낙 문제가 심중했던만큼 아무런 방안도 세울수 없었다.

더구나 이 경기장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시안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로 일떠서게 된 중요한 건설대상이여서 그들의 심정은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건설이 진척되지 않는데 대하여 나무람하실 대신 오히려 일군들의 딱한 심증이 심분 리해되시는듯 공감을 표시하시였다.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이 펼쳐든 설계도면을 보시더니 경기장의 장축을 국제공인대로 남북으로 놓는다면 주석단을 서쪽편에 앉힐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서쪽에는 체육관건물이 있기때문에 주석단을 앉히기 곤란합니다.》

물으시는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일군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한동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다가 그렇다면 부득불 주석단을 동쪽에 앉혀야 하는데 앞으로 수령님을 주석단에 모시게 되는 경우 해빛이 어떻게 비치겠는가를 생각해보았는가고 다시 물으시는 것이였다.

《예?!》

그제야 말씀의 뜻을 알아차린 일군은 주석단을 동쪽에 앉히면 대체로 경기나 행사가 오후시간에 진행되기때문에 해빛을 정면으로 많이 받게 된다고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사색깊은 안색으로 오래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라면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아도 좋으니 경기장의 장축을 동서방향으로 앉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축을 그렇게 놓으면 축구선수들이 좀 의견을 가질수 있지만 그러나 경기를 밤에 할수도 있다고 하시며 중요하지 말고 경기장의 장축을 동서방향으로 놓으라고 이르시였다.

어조는 사뭇 부드러웠으나 그이의 결연한 심정이 비껴있었다.

《알았습니다.》

일군은 이 한마디밖에는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국제공인》에도 구매되지 않으시는 그이, 모든것을 오로지 수령님의 안녕을 첫자리에 놓고 판단하시고 결심을 내리시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에 그 일군은 깊이 머리가 숙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의 향좌를 위대한 수령님을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지 못했던 자신들의 면목없는 처사도 뼈아프게 뉘우쳐졌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후 설계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장축을 동서방향으로 잡은 경기장의 설계도면을 완성시켰다.

오늘 우리나라 북방도시 청진시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훌륭한 경기장, 해마다 국내의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세계의 곳곳에서 선수들이 찾아와 국제체육경기도 활발히 벌리고있는 현대적인 경기장은 바로 이런 뜻깊은 사연이 깃든 설계에 의하여 건설된 것이다.

당원증

인훈

밝은 전등아래
내 다시한번 펼친다 붉은 당원증!
아 이제는 나도
우리 당 대오의 한 성원이란 말인가

여기엔 다 담겨있어라
무너지는 차굴앞에
가슴내대던 돌격대의 그밤도
완공의 기쁨을 안고
자갈밭에 출판을 벌리던 그 환희도

당원증을 받아안은 이날은
청춘시절 내 행복의 령마루인듯
보다 희망에 넘친 내 생의 시작인듯
마음은 울렁이고 눈시울은 젖어와라

내 얼마나 바랐던가
학창시절을 넘어 청춘시절 내내
마음속으로
당원이 되기를

허나 당이여
그대앞에 나는 말 못하였더라
그대 안겨주는 사랑에 비해
바치는 충성이 너무도 모자라
나를 당원으로 받아달라고
당대오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러나 당이여
그대는 말 못하는 이 마음속을
누구보다 먼저 환히 꿰뚫었더라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이 진정을

그대가 아니었던가
내 밤새워 창안품을 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지켜본 그 눈길은
사소한 잘못을 놓고도
눈물이 나도록 타이르던 그 목소리는

당이여 그대는
현장속보판에 나붙은
나의 이름 하나도 스치지 않았고
서투른 나의 도면우에는
탐구의 밝은 전등빛을 비쳐주었거니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앞에서
내뒤에서
나를 이끌며 떠밀어주며
영광스런 대오에 나를 세워준 당이여
세월도 모르게 나를 키워준 은혜론 품이여

그 품에서 성장한 나의 청춘시절이
다 새겨져있는 이 당원증
걸음마다 나를 키워준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다 담겨져있는 이 당증

내 정히 두손 모아
심장우에 대이나니 붉은 당원증!
그리고 엄숙히
맹세하노니 당원의 첫 목소리로
—당이여, 나는 그대의 아들,
영원히 그대와 함께 숨쉬리라!

불라는 노을

양익선

렬차는 백암령을 넘어서자 속도가 급절로 빨라진 듯싶었다. 연석침대칸에 네스듬히 기대여앉은 허칠성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희유스름히 밝아오는 새벽대기를 타고 렬차 방송이 은은한 음악을 보내오고 있었다.

허칠성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될 전국농업대회 대표로 가고있다. 덕지대농장의 한 이름없는 작업반장인 그는 최근 몇해동안 자기가 맡은 땅에서 꽤나게 농사를 지었다. 특히 올해 작황은 가슴이 흐뭇할 정도로 좋았다.

지금 그의 눈앞엔 눈덮인 차창밖의 낮선 겨울 풍경이 아니라 제고장 등판에 펼쳐졌던 풍요한 가을전경이 떠올랐다. 바람이 불적마다 저 등판 아득히 멀리까지 천천히 쓸어누웠다가 다시 물결쳐 일어서며 무겁게 설레이는 밀밭... 대지의 알찬 결실을 수려한 미소로 보여주는 보라빛 감자꽃밭... 건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등너머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호프냄새!...

옛날 고향땅 풍서일대는 울창한 수림으로 짙 덮여있었다. 사람 못살고장으로 널리 알려졌던 곳에 곰, 송냥이, 메돼지와 같은 날짐승무리들만이 득실거리며 판을 치고있었다. 그속에 검버섯처럼 드문드문 일궈진 화전들이 수난받던 이고장 사람들의 질긴 목숨을 부지해주던 경작지의 전부였다.

그러나 오늘은 한해에도 수천톤의 밀과 감자, 호프를 제고장은 물론 멀리 별방지대나 도시들에게도 보내주는 풍요하고 인정깊은 고장으로 변하였다.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덕분이요 이 산간벽지에게까지 자애로운 해발을 비쳐준 우리 당의 덕분이다. 칠성은 그저 그 은덕의 빛발아래 풍요한 대지와 자기 운명을 이어놓고 성실하게 일해온 한 이름없는 농사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그를 당에서는 이번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전국농업대회의 대표로 등을 떠밀어보내주고있지 않는다.

꼭절도 많고 진창길도 적지 않던 자기 인생길이 오늘의 이 길과 이어질줄을 꿈엔들 생각했으랴. ...

그의 눈앞엔 어제저녁 자기를 바래주러 덕우에까지 따라나왔던 마을사람들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저저마다 잘 다녀오라고 축하도 해주고 어떤 아낙네는 평양갔던 길에 무엇을 좀 사오라고 소박한 부탁도 하며 정성껏 꾸린 길참을 안겨

주기도 했다.

기쁨과 환희에 마음이 둥 떠서 오만가지 인사며 부탁에 미처 대답을 못하고있는데 좀 떨어진 소나무결에 한 사람이 석양을 등지고 서서 말없이 이 쪽을 바라보고있었다. 풍서리 리당비서 박용범이었다. 그는 이름할수 없는 그윽한 눈길로 말없이 칠성을 먼발치에서 바래주고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채 가까스로 서있었다. 칠성을 향한 그의 눈길은 한정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있었으나 등뒤로 비껴간 석양빛은 어딘가 그의 모습을 서글프게 그려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입은 어혈이 도져서 심한 고통을 겪는 그였다. 때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침상에서 몸을 뒤틀며 툭 부릅뜬 두눈으로 천정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마치 수십년전 그때의 고문이 다시 그의 몸안에서 진행되는듯싶어 차마 그것을 보아낼수가 없어서 얼굴을 싸쥐고 문밖을 뛰쳐나오곤했다.

어제만 해도 그는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칠성을 바래주러 겨우 몸을 일으켜 따라나온 모양이다.

칠성은 문득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왈각 솟구쳐 오름을 느끼며 둘러싼 마을사람들을 헤치고 리당비서앞에 다가섰다.

《정작 대회에 가야 할 사람은 비서인데 이 못난놈이...》

형용할수 없는 피로움속에 칠성은 이렇게 떠들떠들 입을 열었다.

《어서 떠나게! ...》

용범이가 레사롭게 되뇌이는 말이다.

《임잔 우리 농장 전체 농장원들의 대표라는걸 명심하구 평양에 가서두 주접이 든 행동은 말라구. 자, 어서! ...》

용범은 칠성을 돌려세워 잔등을 떠밀어주었다. 등에 와닿는 용범의 투박한 손길을 칠성은 눈물속에 느꼈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 투박한 손길이 몇십년전 바로 이 덕우에서 그의 등매기에 운명적인 채찍을 무자비하게 안겼다는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창가에 기대여앉은 허칠성의 눈앞에는 이제 아득한 옛말로 되어버린 전쟁이 일어나기 전전해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6월의 폭양아래 무성하게 피어올랐던 아편꽃밭... 그렇다. 꼭절많은 그의 운명도 말썽 많은 그 덕우에서 시작

되었던것이다.

해방은 이 강산에 자유와 행복의 려명을 안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과 약속으로만 남아있어 그들자신이 피땀흘려 거둬들여야 할 미래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주인으로서 제국실을 하려면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 깨닫기에는 아직 먼거리에 있었다.

허칠성이 역시 앞날의 생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고있었다.

해방전에도 그는 애당초 화전에 마음을 붙일수가 없어서 언제나 처서관, 광산, 칠길공사관 같은 델 뜨내기 품팔이군으로 나돌아다녔다. 허지만 고향에 돌아올 땐 돈푼은커녕 빈털터리로 등태기에 푸룻푸룻한 감독놈의 채찍자리만 새겨가지고 돌아 왔었다. 돌아와서는 그 분풀이로 술을 잔뜩 쳐마시고 불쌍한 안해만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내가 해방이 됐는데 뭇때문에 이 궁벽한 산골에 그냥 붙박혀 살겠는가.

대처루 나가자. 하다못해 읍거리같은데라두 나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꾸나. 돈을 좀 벌어들여 구박받고 고생 많던 너편네의 팔자도 고쳐주고... 더구나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딸 보옥이년을 한뉘 이런 산골막바지에 처박아두어 부대기 발귀신이 되게 할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심산으로 그는 봄씨불임을 끝낸 발농사를 안해에게 말기고는 무슨 장사거래라도 생길가 해서 오십리 넘는 읍거리를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부락세포위원장 박용범한테 불들리워 이런 기갈도 받았다.

《임자두 인젠 옛날 품팔이근성을 버리라구. 팔애와 너편네생각을 해서라두 분여받은 땅을 착실히 부쳐야지. 너편네 마음고생인들 오죽시켰나? 내 세포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벌거숭이 소급시절 동무로서 권고하는거네.》

《고맙네만 용범이, 소뿔두 각각이라구 난 나대루 생각이 따루 있네.》

그러던중 읍거리 술집에서 안면을 익혔던 리병천이란자한테서 아편농사를 하면 몽치돈을 벌수 있다는 귀바퀴가 황-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물건너 장사거래는 내가 말지. 그 값으루 나한테 삼할만 주게, 나머지는 자네가 다 먹구... 그러면 자네는 한두해사이에 일확천금을 할걸세.》

칠성은 그날부터 큰맘먹고 아편재배에 달라붙었다. 남의 눈에 잘 띄우지 않을 수림속 외딴밭을 갈아번지고 자그만치 아편씨를 수백평 뿌렸다.

그해따라 류달리 일조톨이 좋았다. 인차 싹이 돋고 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 6월이 잡히자부터 아편꽃들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칠성은 아편밭 가꾸는 일에 미쳐버렸다. 해뜨기전 이슬을 차며 올라가서는 달 뜬 저녁에야 휘청휘청 내려오곤했다. 때로는 밤에도 발머리를 뜨지 못하고 흙물은 손을 축 늘어뜨린채 일어나간 사람처럼 만발한 꽃밭을 바라보곤했다.

달빛아래 아편꽃밭은 참으로 희한하고 눈부셨다.

빙 둘러선 수림은 밀림의 보금자리마냥 고요가 깃들었다. 하늘의 입김이 애무하듯 조용히 아편밭 우를 스쳐지나간다. 희디흰 꽃물결이 설레인다. 천성적으로 요염하고 애욕적인 자태를 지닌 꽃송이들이 미소를 함뿍 머금고 진한 향기를 풍긴다. 때로는 늘씬한 허리를 굽혀 허칠성의 손과 넓적다리에 연한 입술을 슬쩍 가져다대기도 하고 집짓 몸을 뒤로 제치고 이슬을 함뿍 머금은 황홀한 백광으로 그를 희롱했다.

그러면 칠성의 가슴은 아닌밤중에 남의 집 규방에 뛰여든 사내처럼 심장이 마구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그 백설같은 광채속에 모시적삼이나 비단 옷을 입은 안해가 류달리 살갗이 보인해져서 수줍게 웃고있는듯싶었고 색동저고리를 입은 꽃같은 딸애모습이 춤을 추고있는것만 같았다. 설레이는 아편꽃밭의 물결이 자기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그대로 실어오느것 같았다.

그러면 칠성은 또다시 정신없이 발고랑을 무릎 걸음해가며 북두갈구리같은 손으로 아귀차게 풀과 흙을 움켜뜯으며 김을 매가는것이였다.

밤에도 그는 눈앞에 어룡대는 아편꽃밭때문에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 아릿다운 자태... 수림속 공지를 가득 채운 진한 향기, 백설같은 광채를 생각하며 그는 안해결의 잠자리에서 달아오른 몸을 참지 못해 궁싹거렸다. 그러다가는 끝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곤했다.

그날도 달이 유정히 밝은 여름밤이였다. 벽시계가 열두점을 친지 퍼그나 지난무렵, 슬그머니 잠자리에서 일어난 칠성은 옷을 주어입었다. 그런데 분여받은 땅을 혼자 가꾸느라 늘 지칠대로 지쳐서 노그라진줄만 알았던 안해가 이불밑에서 흰팔을 뻗쳐 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았다.

《여보! 요즘 당신 어느 화냥년한테 미쳤수?》

《뭘?! 화냥년은 무슨 화냥년?...임자 잠꼬대를 하누만.》

《내가 모르는줄 아우?요새 왜 밤마다 그리 몸이 달아 뒤통는거유. 그년이 넌지 대기전엔 오늘 저녁엔 못가우!》

《허허허허...》

칠성은 어둠속에서 고개를 제치고 꺾꺾 웃었다.

《하긴 그래 미쳤지, 미쳐두 단단히 미쳤지,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예쁜년한테...》

《그 예쁜넌이란게 도대체 어느 화냥넌이유?》

《임자같은건 그걸에두 못가-》 칠성은 또 한번 껄껄 웃고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난 아편밭에 가봐야 하오. 메돼지들이 와서 짓뭇개지 않는지 모르겠소.》

그는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겼다. 안해는 마비된 듯 잠시 멍멍해있었다. 이윽고 손을 거두며 꺼지게 한숨을 쉰다.

《인제 두고봐요, 그 미친 놀음에 당신이 덜미를 덮치우지 않나...》

안해의 걱정이 십분 났었다.

며칠후 칠성은 세포위원장 박용범한테 말그대로 목덜미를 덮치웠다.

그날도 그는 아편밭이 내려다보이는 멀지 않은 등성이에서 옷등을 훌렁 벗어던지고 낮으로 잔나무가지들을 후리고있었다. 산짐승들이 못들어오게 아편밭을 아예 울바자로 둘러싼 생각이였다.

6월의 땡볕이 등태기를 지지고 땀줄기가 목덜미와 가슴팍을 흘러내리며 간지럽혔다. 땀을 흠치려고 이마를 드는 순간, 그는 갑자기 가슴팍이 경련을 일으키듯 후두두 떨려움을 느꼈다.

누군가 말을 타고 언덕길을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채찍을 어찌나 세차게 휘둘러대는지 미친듯이 내닫는 말뒤통로는 산골길의 먼지가 누운 굴퓏에서처럼 타래쳐오르고 희끗희끗한 자갈들이 그 먼지속에 튀어오르는것이 보였다. 말잔등의 란폭한 주인은 다름아닌 박용범이였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말발굽소리가 곧장 칠성의 가슴에 육박해오는 듯이 느껴지며 이런 불안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화가 동해서 눈을 부릅뜨고 중얼거렸다.

(젠장, 여기 아편밭이 있다는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일인즉 이렇게 된것이다. 면당에 회의를 갔다 오던 용범은 마을어구 내가에 말을 멈춰세우고 물을 먹이고있었다. 거기서 그는 산자드락길을 아장아장 내려오는 칠성의 딸 보옥을 만났다.

《니 그 꽃 어디서 났냐?》

다섯살잡이 계집애 손에 쥐여있는 아편꽃을 보고 그는 무심결에 물었다.

《저-기 밭에 많아-》

귀염성스러운 턱을 쳐들고 계집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용범은 빙그레 웃으며 철부지 어린것의 말을 시정시켜주려고 했다.

《밭이 아니라 산에서 꺾었겠지?》

왜정때 이 덕지대 숲속에 어중이떠중이 아편밀재배업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 심었던 덤불자리들에서 지금도 봄철이 되면 다난한 세월의 흔적이 런던 아편꽃대들이 이따금씩 사람들의 눈에

띄웠다. 이 어린것이 아마 숲속에 들어갔다가 눈에 띄운것을 꺾었을것이다.

《안야, 산이 아니구 밭이야!》 허나 소녀는 고집스럽게 되뇌였다. 《울아버지가 밭에 많이 심었는데뭐...》

《으음- 니 아버지가?!》

용범은 가위눌린 소리를 내며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입귀로 게질게질 흘리며 한창 물을 들이 키고있는 말의 고삐를 와락 나꾸쳤다. ...

용범은 덕우에 솟구쳐오르자 성큼 말에서 뛰어내렸다. 칠성은 가독나무술에 웅크리고앉아 내다보고있었다. 용범은 칠성을 찾는듯 부리부리한 눈길로 무섭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발임자가 눈에 띄우지 않자 그는 성큼성큼 아편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때마침 불어오는 미풍에 설레이는 아편꽃대를 거쿨진 손으로 한웅큼 움켜잡고 와락 뜯어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팽개쳤다.

(저런 미웁한놈 뵈나!) 칠성은 제 살점이 뜯기우듯 벌거벗은 잔등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그는 제 마음을 눅눅히려는듯 이런 궁리를 하며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잘 놀아나는! 하지만 주인없는 밭에 혼자서 용빼는 수가 있다. 성이 난김에 좀 날뛰라지. 차차 속이 식어내려가면 저 혼자 씹씩거리다 내려가지 않을라구? 오늘저녁 소주나 한병 차구가서 슬슬 구슬려보자. 친구기간에 어지간한거야 눈을 감아 주겠지...)

그러나 일은 맹랑하게 번져졌다. 안될 때라 방종스럽게 머리들을 짓기 시작한 아편꽃들을 바라보는 용범의 눈은 더욱 사나워졌다. 그 회고 요염한 자태와 광채가 불붙는 그의 마음을 더 사납게 번지도록 키질한 모양이다.

용범은 발머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거기엔 봄같이때 눅혀놓은채로 있는 보습이 있었다. 그는 그 큰 보습을 장난감 다루듯 넉넉 들어서 이랑머리에다 푹 꽃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멍에채를 말등에 얹는게 아닌가! 칠성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며 떡따는 소리를 질렀다.

《게 서라! 니 미쳤냐?!》

칠성은 정신없이 달려가 보타를 움켜잡았다.

용범은 불이 펄펄 붙는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비켜라! 이 등신같은놈!》

용범은 사정없이 칠성을 팔굽으로 밀쳐던지고는 채찍으로 말궁둥이를 힘껏 때렸다. 놀란 말이 흠칫 걸음을 떼는 서슬에 불끈 솟구쳐오른 검은 흙밥이 휘우듬히 옆으로 나번져지면서 아편대들을 쓰러뜨렸다.

용범의 완력에 발고랑에 나가넘어졌던 칠성은 칠성이대로 눈에 달이 뻗다.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왜 갈아엎는거냐?》

칠성은 흙에 묻힌 아편대들을 헤집으면서 악에 받쳐 부르짖었다. 허나 용범은 들은듯만듯 채찍질을 해대며 그냥 갈아나갔다. 절망과 무력감에 젖은 눈길로 바위같은 용범의 잔등을 쏘아보며 무릎걸음을 해나가던 칠성은 옆에 나뉠구는 몽둥이가 눈에 띄우자 그걸 덥석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술취한 사람처럼 달려나가 말궁둥이에 힘껏 안겼다.

《으—흐흥!—》

산천을 메아리치는 호곡소리와 함께 말은 앞발로 허공을 굽더니 말머리로 내뺐다.

《이놈의 새끼!》

용범은 철퇴같은 주먹을 후들후들 떨며 코앞에 다가섰다. 칠성이라도 저 주먹이 얼마나 드센지 잘 알고있다. 감자흙년이 든 어느헛간 용범은 굵은 식구들한테 먹이려고 늦강냉이밭에 갔다. 그런데 밭은 온통 짓몽개지고 이삭들도 깡그리 없어졌다. 성이 꼭두까지 치민 그는 그길로 발자국을 쫓아가서 바위그늘밑에서 낮잠을 자는 곰을 때려잡아가지고 돌아왔었다. 곰가죽을 그때 칠성이가 벗겼는데 곰의 골통이 바가지처럼 부서진것을 보고 허를 차던 일이 어제같다.

칠성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뒤걸음질쳤다.

《너 미쳤니? 이게 무슨짓이냐?》

《무슨짓이냐구?》

용범은 복두갈구리같은 손으로 칠성의 목덜미를 덥석 움켜잡았다.

《네놈이 말을 쫓아버렸으니 대신 네놈이 멍에 끌어라!》

《나라! 이…미웍한놈아!…》

목에 피대줄이 뻗고 개키여 껍껍 소래기를 내며 칠성은 발버둥쳤다. 《인민정권이 이런 짓을…용서할줄 아느냐!》

《뭐, 인민정권이 어쩌구 어쩐여? 니 이런 대갈통으루 신성한 인민정권을 다 생각하니? 이놈, 이 배은망덕한놈, 이 땅이 어떤 땅이라구 아편꽃을 심어?!》

용범은 당장 살인이라도 칠 기상으로 움켜진 칠성의 목덜미를 멍에채밑으로 옥다질렀다.

《끌어라, 이놈! 끌지 않으면 당장 사등뺨를 분질러놓을테다!》

칠성은 지척거리며 몇발자국 내딛다가 발이랑에 나가 넘어졌다.

《못끌겠다! 니 이런 미친짓을…》

《끌구야 배긴다. 등때기에 채찍맛을 보기전에 당장 일어나!》

《내손으루 가꾼 땅을 내가 갈아번지라는거냐?》

용범은 그의 앞에 떡 버티고서서 가슴을 들먹

거리며 말했다.

《이게 바루… 어리석은 네놈과 네 딸년을 위해서다. 넌 지금 눈깔이 멀어 아무것두 모른다. 허튼 수작 말구 끝기나해라!》

땀과 흙범벅이 되어 험상스럽게 이즈러진 칠성의 얼굴에서 두눈이 번개불을 일으켰다.

《좋다, 갈아번질테면 갈아번져라!》

비칠거리며 일어서서 멍에채를 뚫다꽂진 그는 말은 끌어다 고삐를 움켜잡고 발길질을 해대며 자기가 뚫던 멍에채를 메웠다.

《자, 어서 갈아라.》

《간다, 못갈아엎을줄 아니?》

용범은 보탑을 빼앗아쉬고 말엉덩이에 힘껏 채찍을 안겼다.

보습날이 번쩍하더니 고기비늘같이 번들거리는 흙밥을 번지며 전진했다. 칠성은 뿌잇해오는 눈길로 보습날에 들리워 보습판을 따라 기어올라와 옆으로 번져지는 흙의 모양을 보았다. 그 검은 흙의 물결밑에 백설같이 희디흰 아편꽃들이 몸부림치며 쓰러져나갔다.

패이고 번져지는 흙밥은 그대로 절망의 무지되어 칠성의 가슴에 쌓여졌다. 온몸은 땀발보다 더 쓰고 짜디짠 수치와 굴욕감에 젖어들었다. 미칠듯한 절망감이 흙무지와 함께 그의 가슴속에서 일어섰다가는 번져져 정신없이 말엉덩이를 후려치고 또 후려쳤다.

해질녘에 아편밭은 깡그리 갈아번져졌다.

칠성은 말머리에 보습을 내동댕이치며 소리쳤다.

《자! 인젠 네 속통이 시원하니?》

폭풍이 지나간듯이 탄산한 발머리 저쪽 한끝에 용범이가 두손을 축 늘어뜨리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격렬한 흥분 뒤끝에 그 어떤 슬픔과 허탈감이 그의 가슴에도 밀려든 모양이다.

《왜 등신처럼 멍청하니 서있는거냐? 갈아번진 내 살점판우에서 춤이라도 출것이지!》

칠성은 킁킁해진 땅우에 펄쩍 주저앉아 절망어린 눈물방울을 툇툇 떨구며 땅을 쳤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잊을줄 아느냐. 이놈아! 네놈은 발이 아니라 이 가슴을 갈아번졌다. 파헤치고 찢어발기고 짓몽개버렸다. 자, 봐라, 이게 내 피덩이구 살점들이다!…》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흙을 움켜쥐고 용범을 향해 마구 내뽐렸다.

부스러진 흙들이 그의 얼굴이며 가슴팍에 사정없이 맞았다. 허나 용범은 서글픈 눈길로 녀두리를 하고있는 칠성을 바라보며 움직일줄을 몰랐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검붉은 얼굴이 갑자기 걸늘어보였다. 부리부리하던 두눈엔 물기같은

것이 어려웠었다.

《이 땅에 인젠...》

용범의 우울한 목소리가 저녁어스름속에 울렸다.

《면에 가서 종자를 구해다줄테니 늦밀이라두심게. 땅이 걸어서 인차 싹을 틔워줄거네...》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그는 말있는대로 갔다. 그는 말등자를 두번씩이나 헛짚고 미끄러져내렸다.

말잔등에 오르길 단념한 그는 고삐를 손에 쥔 채 석양빛을 등지고 천천히 등판을 내려왔다.

칠성은 술취한놈처럼 비칠거리며 일어나 용렬하게 그의 등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다.

《개자식아! 너같은걸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어디 두고보자. 내 눈에 흠이 들어가도 오늘을 잊지 않을테다! 네놈두 똑똑히 새겨둬라. 이놈아! -》

그 험상스러운 욕설이 귀에 미쳐갔으려면 용범은 왜서인지 기가 죽어 바위등같은 어깨를 축 처뜨린채 어정어정 석양길을 걸어내려갔다. ...

칠성은 그후 거의 반생을 두고 그때 용범이가 자기같은놈은 그 둔덕에서 때려눕혀야 했을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오늘 용범의 그 어혈로 인한 아픔도 없었을것이요 허칠성의 정신적인 어혈로 인한 후회와 수치와 괴로움도 없었을것이다.

칠성의 생각은 잊을수 없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날로 이어졌다. ...

칠성은 음산한 그날을 고향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객지에서 맞았다. 그때까지 그는 농사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자주 나돌아다녔다.

고생깨나 겪으면서 며칠만에 읍거리에 들어섰을 땐 마가울의 광풍만 몰아치고있었다.

거리가 텅 비어서 그런지 낮익던 거리며 상점 건물이며 집들이 서먹서먹하고 판세상같이 보였다. 고향이며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두루 걱정을 하며 음식점앞을 지나는데 때마침 문이 열리며 리병천이 나왔다.

병천의 색날은 고르뎡양복팔소매엔 벌써 《치안대》 완장이 감겨있었다.

한때 이자는 일제의 《경방단》에 끼워들어 몇 달동안 이런 차림새로 우쭐해서 읍거리를 싸다니 적이 있다. 그때의 그 차림새가 오늘 또다시 되살아난것이다.

이자는 다리에 각반까지 치고 손에 말채찍까지 들었다. 채찍으로 멋부리듯 한손바닥을 철썩 치며

병천은 소리쳤다.

《친구 왔네그러, 들어가자구!》

칠성을 다짜고짜로 음식점앞으로 이끌었다. 안에서는 그러루한 패거리들이 한창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 세상이 왔단말이야! 자, 마시라구.》

병천은 칠성이앞에 고뿌를 가져다놓고 꿀럭꿀럭 소리나게 술병을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 서너고배채 안기고는 바지주머니에서 누런 천조박지를 꺼내어 칠성의 팔에 감아주었다.

《이건 뭐-야?》

칠성은 두눈을 홑떴다. 취기로 흐릿해진 망막에 《치안대》라고 먹물로 흘려쓴 글자가 그물그물 보였다.

《너한테 용범이 같은 빨갱이놈들의 명줄을 쥐락펴락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다.》

《이따위 상제따같은게 나하구 무슨 상관이야.》 하고 칠성은 팔에 감긴 천오리를 와락 뜯어던지고는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어딜 가나? 내 좋은 구경을 시켜주지.》

병천이놈은 그를 붙잡고 일어섰다. 뒤따라 여러 놈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그들이 떼를 지어 물려간곳은 옛날 지하창고로 쓰던 어둡컴컴한 방공호였다. 누군가 두팔을 뒤로 틀리워 묶인채 차디찬 콘크리트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리병천이 전지불을 비쳤다.

《자, 보게, 자네 덜미에 말굴레를 메웠던 세포위원장<어른>일세. 인젠 자네 차례야!》 하고 그자는 칠성의 손에 가죽채찍을 쑤셔넣듯이 쥐여주었다.

《본때를 보이게, 복수를 하란말이야!》

용범은 불빛에 얼굴을 찌프렸다. 이윽고 앞을 가려보자 준엄한 표정이 어리었다. 이글거리는 눈길로 자기앞에 버티고서있는 놈팡이들을 한놈 한놈 훑어보았다. 그는 웨침도 몸부림도 없이 그 눈길로 앞에 서있는 놈들을 불태워버리려는듯싶었다. 그 눈길이 칠성이한테 이르자 일순 굳어지는듯싶더니 이어 서글픈 비웃음으로 바뀌며 두툼한 입술을 천천히 스쳐지나갔다.

칠성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칠성은 그때 그 눈길에 담긴 질책과 런던의 표정을 알아봤어야 했다. 한순간 가슴속에 무엇인가 든 중한 충격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취중에 그것을 자신의 그 어떤 비굴성과 나약성으로 치부해버리려 했다. 보습날을 훑으며 일어서던 검은 흙밥, 그 흙밥에 묻히는 아편꽃들... 멍에밑에서 겪던 수치와 굴욕, 원한...

칠성은 눈을 지그시 감은채 채찍을 들어 한번

은 용범의 오른쪽 어깨를, 또 한번은 왼쪽어깨를 바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리쳤다. 채찍끝에서 마른 삭정이 부러지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다음은 차마 더 때릴수 없어 어깨를 떨어뜨린채 멍청히 서서 안개속을 바라보듯 용범의 이그러진 얼굴을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용범은 입을 딱 앓다문채 준엄한 눈길로 쏘아보았다.

그 시선을 마주볼수 없어 눈길을 떨구니 발끝에는 내리드리운 채찍끝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웬일인지 전신에 식은땀이 짝 내뿜었다. 혼란된 의식속에 맞은 사람이 용범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것처럼 느껴졌다.

《시라소니같은자식! 제 목덜미에 멍에를 씌우던놈앞에서 무슨 예수의 흉내야!》

어느 놈팡이가 이렇게 씨벌거리며 와락 밀어제끼는바람에 칠성은 게걸음을 치다가 벌렁 나자빠졌다.

《자, 내가 숨씨를 보여줄테니 눈깔을 뜨고 잘 봐둬.》

그 뇌까림과 동시에 놈들이 이리떼처럼 용범에게 와르르 달려들었다. 번뜩이는 전지불속에 발광하는 무리들이 보였다. 부르건 주먹, 몽둥이며 불갈구리, 쇠꼬치들, 징알박은 구두발들!...

칠성은 눈을 홑떴다. 저것들이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놈들인가? 사람을 저렇게 치다니...

칠성은 비칠거리며 일어나 한손에 하나씩 두놈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무섭게 고향을 질렀다.

《이 무슨 짐승같은짓들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가?》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군가의 호된 주먹이 면상으로 날아들어 그는 다시 벌렁 나가 넘어졌다. 코구멍이 선향하여 손으로 훑치니 끈적끈적한것이 묻어났다. 코피가 터진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다시 란동하는 무리에 달려들어 뜯어말리려고 애썼지만 어느놈이 덜미를 잡아 내동녕이치는바람에 방공호입구모서리에 머리를 짓조으며 나자빠졌다. 정신이 아팠었다.

(저것들이 사람을 아주 죽일 잡도릴 했구나!)

달리되기는 형세가 글렀다고 생각되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그는 벌벌 기어 정신없이 방공호를 뛰쳐나왔다. 그 밤중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50리길을 올라와 자기 집 골방에 들어박히고말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이 미웁한놈이 무슨짓을 저질렀어?!)

그는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 하고 그는 혼자소리로 부르짖어보았다. 허나 그런

몸부림도 웨침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저 측은하게 바라보던 용범의 준엄한 눈길이 떠오를뿐이였다. 그 눈길은 지하실에서뿐만아니라 갈아빈진 아편밭 머리에 석양을 등지고 서서도 바라보고 지금 어둠속에 처절한 영상으로 나타나서도 바라보고있었다. 아! 아! 복수도 아니요 증오도 아닌 야수들의 울부짖음과 광란의 폭행!... 바로 그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됐고 자기의 《복수》의 간판을 걸고 벌여 지지 않았는가!

그 구두발들이 지금은 그의 머리와 가슴속에 엉켜들어와 심장과 뇌수를 마구 짓밟고 춤추는듯싶었다. 때로는 그 수많은 구두발들이 자기 몸에서 돌아나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구 너덜대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어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에 폭 젖고 헤어날길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한참동안이나 누운채로 망연히 천정만 올려다보곤했다.

우울과 불면증때문에 그는 정신없이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놈들은 덕지대에서 얼마 건디여내지 못하였다. 장진호반에서 녹아난 놈들은 물밀듯이 쫓겨갔다.

마을은 해방되였다.

용범은 놈들한테 입은 어혈이 너무 심해서 도에 있는 어느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왔다.

어느날 도소새지에 일이 있어 갔다가 병원을 들러온 이웃이 허를 차며 돌아다니며 말하였다.

《예구- 그 정상이 말이 아니라우. 어느 놈팡이들이 그런짓들 저질러왔는지. 역대우갈던 사람이 가슴이랑 어깨랑 잔등이 온통 상처투성이더군요. 인차 돌아와 농사를 지어낼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봄.

용범은 이 마을의 리당위원장이 되어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봄풀이 돋기 시작한 동구밖에 그가 지평이를 짚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역대우갈던 몸은 마른짚대처럼 가늘어지고 얼굴은 골방선비처럼 창백해졌다. 눈확은 폭 꺼져 들어가 서글서글하던 본래의 빛은 간데없고 그대신 깊은 사색에 잠긴듯한 눈길이 조용히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마을어구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땀을 훑었다. 인젠 걷는 걸음새도 시원치 않았다.

칠성은 웅당 와야 할 시각이 닥쳐왔다고 생각했다. 저지른 잘못은 웅당 그만큼 값을 치려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어쩐지 그날은 달포가 넘도록 울줄 몰랐다. 그는 차라리 죄의식감에 시달리느니보다

그 보상을 빨리 치르고 싶어 안달이 날지경이었다. 어느날 밤 칠성은 술을 잔뜩 쳐마시고 리당사 무실로 갔다.

용범은 허리를 구부정하고 난로를 지피고 있었다. 고문을 받은 이후로 그는 한여름에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녹녹한 저녁이면 방에 군불을 지피곤 했다. 그건 밤이면 오혈이 도지여 온몸이 쭈서왔기때문이었다.

연기가 자욱하니 피어오르는 난로앞에 쭈그리고 앉아 쿵쿵쿵쿵 기침을 해가며 불을 지피는 그 정상을 차마 보아낼수가 없었다.

허나 칠성은 우정 몰락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 왜 아직 날 그냥 놔두나? 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지하실에서 내가 저지른것을 날날이 폭로하게. 난 그날을 기다리고있네.》

용범은 타오르는 불길에 장작개비를 집어넣으며 대답이 없었다. 불빛에 비친 옆얼굴에 알릴듯 말듯 경련이 약간 스쳐지나갔을따름이었다.

《난 내가 무슨짓을 저질렀는가를 알고있네. 그러니 죽이든지, 머리를 깎아 영창에 집어넣든지 어서 처분을 하게, 자네 그럴 권리도 권한도 다 있지 않나?》

그래도 용범은 대답이 없다. 무슨 생각인가를 깊이 하는 근엄한 표정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아궁이안만 물끄러미 들여다볼뿐이다. 어제날의 용범은 어디 갔을가싶을만큼, 아니면 열에 퍼서 지껄이고있는 칠성의 말은 개의치 않고 그 어떤 먼곳의 다른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처럼...

한순간 칠성이라도 무엇인가 형용할수 없는 두려움에 놀리워 장작불에 비친 그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윽고 용범은 침울한 눈길을 들어 칠성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아직 덕발 봄같이를 안한채 그냥 놔뒀다군.》

칠성은 참지 못해 책상을 쳤다.

《판전을 부리지 말게, 자네 덕우의 발이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내 간을 말리우자는거지? 자네 속심은 알고두 남아! 그러니 어서 끝장을 내란 말이야.》

그 말에 용범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눈길이 거칠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그러니 말라죽기보다 맞아죽고싶다는 말인가?》

《...》 칠성은 마주 쏘아보는것으로 그것을 수궁했다.

《하긴 옛날같았으면 권력이 아니라두 이 주먹

으로 자넬 가만두지 않았을거네, 자네 말대루 내겐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왜 가만있나? 재판을 하던지 처벌하던지 마음대로 하란말이야. 어서... 난 결코 용서를 바라지 않아.》

용범의 목소리가 조용해질수록 칠성은 더욱기가 뻗쳐 야단쳤다.

용범은 한동안 묵묵히 아궁이만 들여다보았다. 아궁이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눈동자속에서 파들 파들 떨어졌다.

《어떤 벌도 다 받아들일 각오를 한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자넬 용서받을거네. ...왜냐구? 그건 우리 당이, 우리 인민정권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이네. 자넬 그앞에 고맙다구나 하게.》

그는 갈린 목소리끝에 한참동안 허리를 꺾고 기침을 깃었다. 이마엔 진땀이 흥건히 내배었다.

이윽고 기침이 멎자 그는 갑자기 격해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너를 조금두 편히 놔두지 않을테다. 네 그 매끈한손이 복두갈구리가 될 때까지 땅을 일쿠고 씨를 뿌리게 할테다. 먼 후날 네자신이가꾼 포전머리에 네 스스로 뚫어앉아 눈물을 떨구며 용서를 빌 때까지 말이다. 그게 바로 너의 운명이구 너한테 내리는 처분이란말이다.

네 자신과 네 딸을 위해서 내 진실루 권하는거다. 래일 당장 그 덕을 갈아엎구 씨앗을 뿌려라. 땅에 무릎을 꿇고 착실하게 일하란말이다. 래일 두 그 덕우의 발이 목은채로 있다면 네 목에 다시 멍에를 메울지언정 용서치 않을테다!》

그 다음날로 칠성은 보습날을 메고 안해와 함께 덕우에 올랐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한해 남짓하게 묵였던 땅에 첫 보습날을 대었다.

《자, 어서요! 왜 그렇게 멍청하니 서있어요?》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포전에 나선 기쁨에 한껏 들뜬 안해가 소고삐를 천채 새된 소리를 질렀다. 칠성은 고개를 푹 떨구며 보타에 힘을 주었다. 그는 보습날에 천천히 뒤집어지는 검실검실한 땅에 일평생 성실히 흘리기로 결심한 땀보다 먼저 눈물을 떨굴가봐 무진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눈물은 점점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바로 몇해전 굴욕과 수치와 항거에 몸부림치며 이 덕우에 흘렸던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 그 뜻과 깊이를 아직한 다 헤아릴수 없는 고상하고 위대한 그 무엇앞에 불효를 깨달은 자식처럼 순종의 마음을 안고 흘리는 눈물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봄... 여름, 가을, 칠성은 이 덕우에서 전승의 날을 맞았고 협동화의 봄도 맞았었다. 허나 용범

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의 귀전에 서 사라질줄 몰랐다. 보탑을 잡고 발을 깔고 씨를 뿌릴 땐 먼 하늘의 봄우뢰 되어 울렸고, 장마철 보도랑을 치러 가래살을 메고 나설 때는 사나운 번개와 비바람이 되어 그를 후려갈겼다.

이름할수 없는 억센 힘과 의지로 하여 대지는 더욱 풍요해지고 고향사람들과 허철성이자신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허나 그는 자기의 편협한 죄의식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죄의식감은 자기자신이며 자기가 향유하고있는 생활자체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있음을 그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그해도 하루해가 다 넘어가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얼굴에 병색이 짙어 푸릿푸릿해진 리당비서 박용범이 칠성의 집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자네, 이런 몸으루 나다니나...》

칠성은 그의 얼굴색이며 저는 다리를 우울한 눈길로 바라보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네탓일세!》

용범은 칠성을 성난 눈길로 쏘아보며 단도직입들이었다.

《애들 대학추천문제때문에 좀 토론할게 있다구 해서 학교엘 갔더랬네. 교장선생이랑 담임교원이 자네 딸의 걱정을 몹시 하더군. 공부를 제일 잘하던 애가 성적이 떨어진다면서?... 자네 왜 공부를 시키지 않나?》

《내가 공불 시키구 았구가 있나... 다 제탓이겠지...》

《어물어물 발뺌을 말구 솔직히 말하라구!》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있다가 괴롭게 입을 열었다.

《난 그 앨 농사를 시킬 작정일세.》

《왜서?...》

《왜서구 뭐구 있나. 집에 대를 이을 로력자가 있어야지. 집에 로친두 나두 늙어가네.

리당비서 자네두 회의때마다 입버릇처럼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구 하지 았았나?》

사실 칠성이자신도 오래전부터 성장하는 딸의 모습을 우울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난 중학교를 졸업하거들랑 의학대학에 가겠어요. 같은 값이면 평양대학엘요!》

귀여운 딸애가 목에 매달려 이렇게 재잘거릴때면 가슴이 껍 막히는것 같았다. 이 어린 녀를 애비인 자기가 꺾어버려야 한다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애야, 넌 학교를 졸업하거들랑 농사나 착실히 지을 생각을 하거라. 네 앞길은 그렇게 정해져있느니라.》

《어째서요?선생님들은 모두 절더러 대학엘 가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딸은 의혹에 찬 까만 눈길로 아버지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며 되묻는다. 그러면 칠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와 철부지 딸애에 대한 편민의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해주곤했었다.

《참으로 고마운 선생님들이지... 허지만 그렇게는 안된다. 그건 이 못난 애비가... 어쨌든 너는 대학엘 가지 못한다.》

...이런 뒤사연을 짐작한듯 용범은 한참동안 칠성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자네 자식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되누만.》

이윽해서 조용히 그가 하는 말이다.

《그건 사실일세...》

《뭐가 사실인가!》

용범은 참지 못해 소리쳤다. 그는 손에 들고왔던 종이두루말이를 칠성이 코앞에 내흔들었다.

《꽤썸한 생각같아선 이 추천서를 당장 찢어팽개치구실네. 보육이가 뭐 자네 딸인줄만 아나? 당에서 키워주구, 배워주구 꿈을 키워준 애네. 그 꿈을 당에서 꽃피워주자구 하는걸세.

현대 자네는 뒤꼍방에 앉아서 그 꿈을 허물고 있어? 어린것의 가슴에 어떤 상처를 입히려구 알겠나? 당장 어린것앞에 사죄를 하구 공불 시키게, 만일 자네때문에 그 애가 입학시험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엔 자넬 용서치 았겠네!》

용범은 가까스로 일어나 인사도 없이 문을 나섰다. 문턱을 넘는 그의 거동이 씨원치 았았다. 저런 본새로 가다가는 집에도 채 닿지 못하고 마을길 어디선가 쓰러질것만 같았다.

하지만 칠성은 감동의 충격이 너무 커서 비칠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뿌잊해오는 눈길로 바래우고있을뿐 움직이지 못했다. 한참만에야 정신이 들어 허둥지둥 마당으로 달려나갔으나 용범은 이미 보이지 았았다. 그러나 안보인다고 되돌아 들어오기에는 가슴속에서 고괘치는 걱정이 너무나도 컸다. 그래 내친 걸음으로 칠성이 그의 집에 달려갔을 때 용범은 자리에 쓰러져있었다.

《용범이 이사람! 정신을 차려주게!》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를 부여안고 칠성은 부르짖었다. 잊을수 없는 6월의 그날, 등때기에 울렸던 채찍소리를 다시 듣고 멍에채를 다시 메라면 메기라도 할테니 제발 았지 말고 일어나달라고 말하고싶었으나 그는 말을 못했다. 애타고 절통한 울음이, 껍껍 막히면서도 사나이다운 통곡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와 칠성은 침상결에 뿔어았았다.

《날 용서하라구 응?! 날 용서하는 심정으로 눈을 떠주게!》

아득히 멀리서... 아니 마음속 깊은곳에서 울려 오는 메아리를 들은 사람처럼 용범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얼굴에 조용히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이미 오래전에 오해와 불신과 번뇌를 깬그리 가져버린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녀이 짓는 미소였다.

《용서라니?... 그게 무슨 대순가, 내 아픔같은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네. 병이야 그러다 말겠지... 중요한건 모든것이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뜻대로 났다는걸세. 해마다 풍년들구 생활두 유족해지구, 사람들도 몰라보게 의젓해지구! ...이것이면 다지.》

용범은 눈길을 창가로 돌렸다. 창밖 멀리 덕지대우엔 붉은 저녁노을이 한창 불타고있었다.

그의 녀은 지금 그 노을빛속에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밀밭과 감자꽃 설레이는 덕우에 가있는듯싶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풍년든 대지의 설레임소리를 듣고 구수한 난알냄새며 싱그러운 호프냄새를 맡는듯싶었다.

《저걸 보라구! 저녁노을이 불타는걸! ...레년에 없는 풍년일세.

내 미처 못가봤네만 자네의 그 덕밭은 어떻던가?》

《걱정을 말게! 밀포기두 실하구 알차게 여문게...》

칠성은 고개를 푹 떨구며 목메여 대답했다.

《그래그래, 저녁노을이 류달리 불타오르면 레일 날씨두 좋아지는 법이지.

우리 인생두 노을과 같은거여. 저 불타는 노을

처럼 당을 받들어 우리 가슴이 불탈 때... 레일의 행복도 있고 참다운 인생도 있는거지...》

...차창밖에 붉은 노을이 비끼더니 광휘로운 태양이 솟아올랐다. 차창의 서리가 녹아내리고 비껴든 붉은 해빛이 생각깊은 칠성의 옆얼굴을 비쳐주었다. 어쩐지 칠성이한테 저 노을빛이 고향둔덕우에 서서 자기를 바라주던 용범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니 용범의 녀과 심장이 저 불타는 노을이 되어 태양을 옹위하고 떠받들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의 진리는 영원하며 그 진리를 벗어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창조하는 길우에 참된 한생을 바쳐온 용범이와 같은 사람들의 불타는 녀과 같은것이였다. 것처럼 자기 신념에 충실하고 역세고 아름다운 인간정신의 승리...

그렇다. 광휘로운 태양밑에 노을은 더 붉게 타고 불타오르는 노을의 옹위속에 태양은 더 장엄하고 광휘로이 이 땅을 비친다.

칠성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렬차도 그 어떤 벅차고 강렬한 지향선의 궤도를 돌진하듯 기적을 울리며 더 높은 속도로 내닫는듯싶었다.

칠성은... 그 뜨거운 심장이 믿었던 신념의 승리속에 자신도 이 길을 가고있다는 경건한 생각에 고개를 더욱 깊이깊이 숙이였다.

렬차는 누리를 밝히는 태양과 노을의 장엄한 광휘속을 더욱더 거침새없이 달리고있었다...

1990. 5

가사

백두의 새 전설

안근배

밤을 새워 내리던 비 어느새 멎고
구름도 저 멀리 사라지었네
친애하는 그이께서 오신 날
백두산은 신비경을 펼쳐드렸네

자욱하던 안개는 순간에 걷히고
푸른 숲도 기쁨에 설레이었네
친애하는 그이께서 오신 날

백두의 맑은 하늘 열어드렸네

아름다운 무지개 하늘에 걸고
오시는 걸음걸음 꽃을 피웠네
산천도 끝없는 감격을 안고
백두의 주인을 맞이하였네

아 백두의 새 전설

당원의 나이

최호진

태어난 그날보다
더 귀중한 날이
나의 생일과 같이 기록되고있어라
입당년월일이여

자서전에
어느 문건에
영생의 삶이 뿌리내린 이날을
더없이 소중한 날로 적으며
마냥 가슴 뿌듯해오는 생각
당원의 값높은 생이여

어머니품에서 태어난 그날을
내 때로 잊은적 있어도
입당년월일만은
그 어느해도 스쳐지날수 없었노라
이 세상 더없이 소중한 날로

당생활 25년
짧지 않은 세월이건만
때늦게 철든 자식처럼
무엇인가 당에 더 보답을 못해 모대길 때
입당의 맹세를 깨우쳐주는
입당년월일

간혹 난관이 앞을 막아
주저앉은 일터에서
모두들 로당원인 내 얼굴 바라볼 때
당원의 깨끗한 량심으로
마음을 다잡게 하는
입당년월일

진정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시련의 언덕을 헤쳐온 그 길에서
어머니 당의 믿음속에
하루를 천년으로 살고픈
내 삶을 더욱 빛내여주는구나

행복하구나
수백만 당원의 한 성원으로
당의 성벽을 떠받든 고임돌이 되어
투쟁하고 혁명하는
성스러운 대오의 기수로 산다는것이

오, 입당년월일이여
내 머리 희여져도
입당의 그 시절 젊음이 넘치여라
한해두해 더해가는 년한을
내 생의 나이로가 아니라
당원의 나이로 헤이며

당이 결심하면

권강일

색날은 천막이며 둥근 가마
공사장에 펼쳤던 생활을 걷어시고
돌격대원들이 떠나간다
뒤에는 양수장과 아름답리관들을 남겨놓고

생활의 웃음과 노래를 안고
차들이 떠난다
끝없이 뻗은 물길을 남기여놓고

봄빛이 짙은 푸른 방축에
하얀 돌을 골라 한자한자 새긴
글발들이 남아 빛을 뿌리누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황토먼지 타래치던 돌서덜에
굽이굽이 물길뚝 흘러흐르고
성에장을 헤치던 강물속에는
흙입관들 줄줄이 잠기였거니

우등불자리마저 잔디에 덮여
어려웠던 흔적 찾을길 없던 여기
펼쳐진 모든것이 아름답고 거창한
천지개벽 전변을, 전변의 이야기를
저 한줄 구호에 다 새겨놓았구나

쉽게는 남겨놓을수 없는 저 글발우에
어려온다
힘있는 속보와 나뭇기던 기발
억센 얼굴
웨치던 목소리...

방축에 새기기전에
심장속에 저 구호를 안고 달려와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되었다
거기서 순간마다 기적은 솟아
이미 약속된 승리를 펼쳐놓고 간다

오 묻지 말자

돌격대가 가는 그곳은
벌써 당이 결심한곳-

위대한 창조물은 솟아
거기에 또다시 저 구호는 빛나라!

밤노을 라는 구내길에서

김만영

금방 당위원회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고
밤바람은 달아오른 내 두볼을
정겹게 어루만져줍니다

탓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내 지금 집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압니다
이밤 별빛어린 창가에 서계실 어머니
밤바람에 머리카락 가벼이 날리시며
당원증을 안고 돌아올 이 아들을
이윽도록 기다리고계시리란것을

그러나 보세요
또 하나의 불빛이
저의 온몸을 감싸안습니다
한걸음 두걸음 다가가면
열가닥 스무가닥으로
가슴에 안겨오는 눈빛들
한세포당원들의 뜨거운 그 마음!

미제와 맞선 3년간의 전쟁으로
벽돌 한장 성한곳 없던 그 폐허우에
수령님을 따라 맨주먹으로 공장을 일떠세웠고
56년 시련에 찬 그 나날에도
순간도 변심을 모른 그들
오직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이날이때까지 천리마를 타고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온 그들

그래서인지 제 가슴엔
언제나 그들의 모습이 얼른거립니다
내 때로 뜨거움에 밀려
달아오른 쇠정관을 내리설 때면
아버지처럼 엄한 눈빛으로
채 익지 않은 강피를 돌려보낼 때면
어머니처럼 정겨운 눈길로

그 믿음직한 손길에 이끌려
나는 당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충성스런 마음에 이끌려
나는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밤늦어도
압연장 하늘가를 바라보아주세요
이밤 어머니 바라보시는 구내에서
류달리 불빛이 눈부시게 안겨온다면
그리고 그 불빛이
평양의 밤하늘가로 빛발쳐간다면

믿어주세요
강철로 당을 받드는 로동계급
그 영광스러운 대오에 이 아들이 서있음을
그 사람들처럼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영원히 변함없을
아들의 이 마음을...

열정의 불씨

김명익

보슬비가 푸실푸실 내리던 지난해 어느날이었다. 퇴근시간이 퍼그나 지났는데 해주시당 3층청사의 한 창문에서는 이윽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아마도 그 방의 주인은 깊어가는 밤도 내리는 비도 상관없이 없는상심였다.

지방산업공장들에 니갔다가 이무렵 늦어서 돌아오던 시당책임비서 한봉필동무는 그 불빛을 보고 한동안 걸음을 멈추었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불빛이었다. 깊은 사색에 잠겨 방안을 거니는 창문에 비낀 모습도 무척 낯익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 언제나 정열에 불타는 눈빛, 그는 다름아닌 교육부장 박승조동무였다.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지는 오래지 않지만 열의가 있고 사업에서 패기가 넘치는 그에 대하여 그는 잘 알고있었다.

《정말 제앞에 맡겨진 임무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당에서는 그토록 교육에서 깨우쳐주는 방법을 구현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아직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교수에서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에 의연히 매달리고있습니다.》

부임되어온 자기의 첫 사업을 학교들의 교육실태를 료해하는것으로 시작한 박승조동무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적이 있었다. 그후 그는 어떻게 하나 교육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해보려고 학교들에 나가 교수참관도 하고 시험도 쳐보고 과외 학습지도도 해보면서 방법론을 찾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오고있었다.

깊어가는 이밤도 사무실을 뜨지 못하고 자기 사업을 놓고 구상하고 사색하는 교육부장 박승조동무를 바라보느라니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당에서는 시, 군당책임일군들이 교수교양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있는데 당면한 경제사업에만 치우치면서 교육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리지 못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부장방으로 들어서던 시당책임비서는 자못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글썽 넓은 책상과 긴 앞상우에 여러가지 모양과 형태의 교편물들이 주련이 놓여있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것은 학생들의 지능을 계발하기 위한 놀이기구들과 상식자료들이였다. 어찌보면 교편물전시장을 방불케 하였다.

물론 교육부장이 시내의 경험있는 교육일군들을 발동하여 지능놀이기구와 지능계발을 위한 학습참고서를 만들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놓았으리라고는 미처 몰랐다.

지능계발책을 만들어 수업하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간 박승조동무는 자신 이 직접 《수자맞추기》, 《방진놀이》, 《신기한 고리뽑기》 등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문제들을 구상하여 만들면서 실천적모범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왔던것이다.

그가 늘 들고다니는 남달리 큰 가방에는 별의 별 자료들과 도안집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무리 바쁜 길을 가다가도 지능계발과 관련한 문제가 떠오르면 그자리에 가방을 펴놓고 적어놓고야 떠난다는 말은 결코 뜬소문이 아니였던것이다.

당의 교육방침관철에 바쳐진 한 일군의 수고와 정력적인 노력을 헤아리며 눈길을 더듬던 시당책임비서 한봉필동무는 책상우에 깐 맑은 유리판안에서 유난히 안겨오는 정열, 그것은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라는 글발을 뜨거운 마음으로 읽었다.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제를 되새겨 읽을수록 그는 가슴이 하얗게 부풀었다. 정녕 한 당일군의 심장에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활력을 안겨준 생활의 지침은 무엇이었는가. 당일군은 직업적인 혁명가인것으로 하여 누구보다 왕성한 정열을 지니고 일해야 한다. 오늘 일하다가 래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할 때에는 밤이 새고 끼니때가 지나는데도 모르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혁명가적인 일본새! 이밤 시당책임비서는 당중앙의 보살핌속에서 성장한 한 당일군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긍지에 넘쳤다.

깊어가는 밤과 더불어 창밖에서는 보슬비가 조용히 내리는데 지나온 일과 앞으로의 사업을 두고 시당책임비서는 박승조동무와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정작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니 당의 지능교육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난관이 많았다. 지능계발문제 하나, 지능놀이기구도안 하나도 자체로 생각해내고 만들어야 했다. 이런 형편에서 교육행정일군들에게 하라고 지시만해서는 말공부로 되고만다. 게다가 일부 학교들에서는 현재 교육강령을 집행하는데만 급해하면서 이 사업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행정실무적으로 내려먹일수 없는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며 시당책임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어려움이 더 많을거요, 그러나 부장동무,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문제는 우리 당일군들의 심장에 달려있다고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열쇠는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 열정과 패기라고 가르쳐주시었소. 당일군의 가슴이 열정으로 불타고 그 열정을 일군들과 대중의 가슴에 심어준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능히 해낼수 있소.》

그는 박승조동무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이제부터는 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겠소. 그러니 부장동무, 앞으로는 나를 시당책임비서로가 아니라 교육사업을 맡은 같은 일군으로 여겨주오. 자 우선 이 방에 있는 지능놀이기구들과 교편물들을 죄다 우리 방으로 옮겨갑시다.》

이렇게 되어 그날밤 시당책임비서방은 방금전 교육부장의 방처럼 교편물전시장처럼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박승조동무는 그날도 교육일군들과 함께 석천고등중학교에 나가 지능계발책을 편집하고 지능놀이기구와 교편물들을 만드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농장에 나왔던 길에 들렀노라고 하면서 시당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이 찾아왔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것을 보며 자기들도 생각한것이 있는데 들어보라는것이였다. 《자리옮기기》와 《신기한 종이접기》라는 문제였다. 모두 감탄했다. 학생들의 기억력과 주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기발한 착상이다.

지나는 길에 들렀던것처럼 선결음으로 떠나가는 그들을 동구밖까지 배웅하며 박승조동무는 생각이 깊어졌다. 교육사업에 대한 시당위원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는 그 한가지때문만이 아니였다. 전문 교육부문 일군들이 아닌 그들도 그런 문제를 생각해내는데 시내 교원들을 잘 발동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수 있겠는가.

박승조동무는 지체없이 당의 지능교육방침에 대한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침투하는 한편 행정일군들과 짜고들어 지능계발도안 경연을 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애로로 되었던 자료나 도안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되었을뿐아니라 교육자들 자신이 자질을 높이고 이 사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열정의 불씨는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지능계발책을 묶고 지능놀이기구와 교편물들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교수에 리용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학교들마다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지능소조실》, 《지능교편물실》, 《야외

지능놀이장》을 꾸리는 문제가 나섰다. 그리고보니 난관은 이제부터인듯싶었다.

매 학교들에 그것을 새로 꾸리자면 엄청난 자재와 로력이 있어야 했다. 우에만 바라보며 주저하는 기색도 보였다.

그렇지만 교육부장 박승조동무의 결심은 드림이 없었다. 애당초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일이 아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창조의 원천은 정열이며 사업성과의 열쇠는 혁명적열정과 패기라고 가르치시였다. 일단 당앞에 하겠다고 결의한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물러설 권리는 없다.

자체의 힘으로!

교육부장 박승조동무는 교육행정일군과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본보기단위를 꾸리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자신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는 밤과 낮이 따로 없이 학교들에 나가 살면서 통이 큰 작전을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박승조동무는 시당으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초여름 저녁이였다. 시당 책임비서가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방금 무슨 회의를 끝마치였는지 시내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과 당비서들이 모여있었다.

《어서 오시오. 기다렸소.》

시당책임비서는 반기면서 그에게 사업일지를 펼쳐보였다.

《이것보시오. 온 시가 교육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호응해나섰소.》

사업일지에는 지능놀이기구와 교편물들에 대한 제작분담표가 적혀있었다. 어린이놀이감공장과 일용품종합공장에서는 생산지표로까지 받아물었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인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수 없다는거요.》

쭌 벗어지기 시작한 굵실굵실한 머리를 들며 시당책임비서는 혼연히 웃었다.

그를 보며 박승조동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보슬비 내리던 그날밤 지능놀이기구와 교편물들이 시당책임비서방으로 옮겨진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에 열정의 불씨가 달리였던가. 시당책임비서 자신이 《립방체수자맞추기》라는 문제를 내놓았을 때 조직부, 선전부 일군들도 저저마다 한 문제씩 생각해냈으며 시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일군들도 그리고 오늘은 온 시가 당의 교육방침관철에 떨쳐나섰다.

이제 머지않아 당의 지능교육방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구현될 때 우리의 교육사업은 또다시

큰 걸음을 내어질게 될것이니 그날을 눈앞에 그리며 두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푸른 달빛이 길우에 드리웠다. 얼마 지나서 그들은 갈림길에 이르렀다.

《아니 집이 그쪽이 아니지 않소?》

《책임비서동지, 저는 학교엘 나가봐야 합니다.》

《이제말이요?!》

《학교들에서는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다?... 그건 물론 좋은 일이요. 허지만 부장동무는 지내 가정에 무관심한게 아니요?》

《제가 말입니까?!》

박승조동무는 다소 심각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자기를 부른것이 단지 회의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닌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집을 지나치면서까지 갈림길이 있는 여기로 함께 걸어왔겠는가.

《내 오늘 동무에게 좀 섬섬한 말을 해야겠소. 언제인가는 학생들의 파외학습을 지도한다고 자기 집 옷방을 동네아이들의 학습실로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학교로 나가버렸거든. 난 부장동무의 아주머니가 남들처럼 건강한 몸이라면 말도 하지 않겠소. 더우기 오늘같은 날에야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며 저녁한때를 즐겨야지요...》

《?!...》

박승조동무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며칠전부터 안해가 낱자를 쪼으며 생일날에는 집에 들어 오게 되는가고 곱씹더니 아마 부서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시당책임비서는 아무말없이 다정한 눈길로 그를 집쪽으로 떠밀었다. 박승조동무는 더는 그 눈길을 뿌리칠수 없었다.

이렇게 헤어진 달밖은 그밤 불과 한시간도 못되어 사미고등중학교에 새로 꾸리는 시 지능교편물전시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마주바라보며 어이없어 유쾌하게 웃었을뿐이었다.

당일군들의 이같은 혁명적열정은 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수내용과 방법 그리고 파외교양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전반을 지능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데서 전환을 이룩한 해주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보고받으시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살며 일해가는 이런 당일군들—진짜배기 혁명가들로 하여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고 위력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탄부의 미소

서동린

하루일 끝내고
경박을 나서는 탄부
해빛 눈부신듯 눈을 쏘프리며
미소를 짓누나
안전모 가볍게 밀어올리고
온 누리를 바라보며

밤밝혀 일한 그의 수고를
다만 앞세워 내보낸
석탄이 말해주는가
저탄장을 떠나가는 긴 화차도
그냥은 못떠나
하늘가에 뿔어올리는 기적소리

아, 이윽도록 조용히 짓는
탄부의 저 미소
비껴가는 끝은 어디까지일까

기계소리 정다운 공장구내길인가
금나락 파도치는 지평선 한끝인가
아니면 잠자는 탁아소 어린것들의
능금불을 쓰다듬어주고있는가

탄층앞에서 안고사는 그 폭과 깊이
내 다 알수 없듯
탄을 섬긴 권리로 온 나라와 마주선
탄부의 저 밝고 고요한 미소
아, 비껴가는 끝을 내 몰라라

아들을 위한 이야기

김관일

설달그믐날이라면 의례히 사람들은 그해를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날로 알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마음속의 독백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가정단위로나 막역한 벗들끼리, 또는 공동으로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함께 둘러앉아 심심히 그해를 돌이켜보는것이 며 국경너머의 어떤 민족들은 이날 성당앞에서의 참회나 목욕재계로써 혹은 창문을 열고 낡은 물건을 내던지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써 그해의 악을 추방하고 해묵은 과거와 작별한다고들 한다.

그러한 설달그믐날... 이곳 제철련합기업소의 공업시험소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여 공업시험소의 구산염실에서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 몇분동안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 있었다.

실장이 그해의 사업을 총화하던중 류지현이라는 한 시험기사가 일어나 항변하였던것이다. 그가 무슨 내용으로 항변하였든지간에 사람들은 우선 그가 자기의 격분을 표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 났다고 하는 그자체에 놀랐다. 그다음 사람들이 놀란것은 그가 실제로 격분을 터뜨려야 할 그런 때는 엽때껏 가만있다가 전혀 격분할 이유가 없는 왕청같은 때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사실이었다.

그때 실장이 한 말이란 자기와 한 대학의 동창생이며 몇해도록 사업에서 성과가 없는 그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나머지 동무도 이젠 두자식의 아버지인데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위해서도 좀 채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옆에서 듣고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극히 감동한 그 부드러운 어조에 그만 류지현시험기사가 발끈하여 일어섰던것이다.

그때 실장이 그의 격분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설달그믐날 구산염실에서는 기필코 상서롭지 못한 충돌이 벌어졌을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성미가 데설긋고 피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서인지 그 일을 별치 않게 여겼고 얼마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깨닫기 잊어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해도 모든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1)

그날 류지현은 자정이 거의 되어서야 빈집처럼 조용한 자기의 집에 들어섰다.

《왜 인제 오세요? 애들이 지금껏 아버지를 기

다리다가 금방 잠들었어요. 어디 들리셨었어요?》

안해인 성혜가 그의 외투를 벗겨 옷장속에 걸며 나무라듯 물었다.

《강바람을 좀 쏘이다가 왔소. 》

《지금이 어느때라고 강바람을 쏘인단말예요. 여름인줄 아나부지. 》

안해가 곧 밥상을 차렸으나 지현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뇌이었다.

《술이 있소?》

《?...》

그제서야 성혜는 남편의 색다른 기색을 알아차리고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정말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다. 그날밤 지현은 혼자서 술 한병을 말끔히 비워버렸을뿐아니라 안해가 묻는 그 어떤 말에도 응대가 없었다. 조립식완구와 인형을 꼭 그리안은채 썩근썩근 단잠에 든 아들딸의 모습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면서도 역시 한마디 말이 없었다. 어느때 같으면 두 자식의 잠든 얼굴이나 조립식완구로 집지은 모형을 세심히 관찰하며 《이애가 앞으로 건축가가 되려나. 제법 <설계도면>대로구만. 》 하고 감탄하던가 혹은 《이것 봐라, 아주 엉뚱한데가 있는걸. 이애의 머리속에 창조성이 움트기 시작했소! 》 하고 미지의 성과를 발견한 천문학자마냥 한없는 애정과 기쁨을 담고 말하던 남편이었다.

공업시험소에서 류지현은 누구보다 딱딱하고 푸점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흔히 일컫는 《공학쟁이》의 전형적인 대표자와도 같은 인물로 알려져있었으나 안해만은 그가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가 자기와 자식들을 대할 때처럼 숨겨져 있던 그의 다감한 성격적기질이 똑똑히 발휘되는 때는 없었다.

어느 일요일엔가는 글썽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 아들딸과 함께 숙박곡질을 하느라고 침대맡에 숨어서 고양이울음소리를 흉내내다가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안해앞에서 엉금엉금 멋지게 기여나온 일도 있다. 이런 경우 류지현은 안해한테서 아들애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가 일쑤다.

《아버지, 엄마한테 욕먹나?》

《그래, 꾸지람을 받는단다. 》

《왜?》

《아버진 침대보를 꾸겨놓았으니까. 》

이러한 아버지를 아들 신성이는 어머니보다 더 따랐다. 저녁에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환성을 울리며 달려나왔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아들딸남매가 아버지의 량옆에 나란히 누워 옛날

을 줄라대군했다.

…멀고 먼 옛적 어느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두 오누이가 살고있었다…

옛말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운을 떼곤했는데 한번 한 옛말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령리한 아들의 머리속에는 벌써 아버지한테서 들은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목동이며 머슴군총각, 천하에 이를데없이 악독한 지주나 임금, 의롭고 용감한 장수며 신선, 선녀 등에 대한 형상이 짙어차있어서 이미 한 옛말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할라치면 신성이는 제격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알지르는것이였다. 하는수없이 더러 꾸며서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매일 밤마다 새로운 옛말을 하나씩 고안해낼수는 없는 노릇이였다. 그리하여 류지현은 자식들을 위해 짬짬이 책방을 찾아다니며 새로 나온 동화집을 빠짐없이 구입해들였고 매일 한두제목씩 읽곤했다. 《공학쟁이》가 그런 책을 탐독한다는것은 짜장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류지현은 그런 사람이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시험소에서 크게 두드러진 점이 없는 평범하고 어느정도 피뻘하기 까지 한 기사일수도 있었으나 그의 안해에게는, 적어도 그의 아들 신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애에게는 자기의 아버지가 무어나 모르는게 없고 만약 자기가 소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줄수 있는 신비한 재주를 가진 《신선》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좋고 훌륭한 아버지였다.

(2)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좋고 으뜸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얼마전부터 사람들앞에서 머리를 떨구고 다녔다.

류지현은 의기를 잃었다.

그는 시험소에서 최근 5년째 아무 실적도 없는 시험기사로 공인되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축에, 공밥을 먹는 사람들의 계열에 속하게 되었다.

그가 제철소의 공업시험소에 시험조수로 처음 배치되어 가치있는 두세건의 발명품을 내놓았을 때 시험소내 모든 기사들과 시험공들이 얼마나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던가! 사람들은 이제 그가 몇년안팎에 시험소뿐아니라 학계를 진감시킬 뭔가 큼직한것을 내놓아 자기들 모두를 깜짝 놀래울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과학자—류지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사실말이지 그때 누가 감히 의심해본 사람이 있었던가!

허나 그러한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두 자식의 아버지가 된 그때부터인지, 아니면 《ㄷ》단열층의 연구에 접어든 그때부터인지 류지현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앓아몽개기》시작했고 분기나 년간의 사업총화보고서에는 자주 그의 이름이 성과부분이 아니라 결함의 항목에 오르곤 했다.

무릇 인간의 흥망성쇠란 늘 엇바뀌우기 마련이며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때나 항용 승승장구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류지현시험기사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것을 우리들의 전진 도상에 때때로 당하게 되는 답보나 후퇴의 일종으로써, 새로운 질적비약으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적이며 일시적인 침체현상이라고 듣기 좋은 감상적비유를 섞어 위안하기도 하고 고무하기도 했다. 아니, 요컨대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누구도 손을 대려 하지 않던 애초에 불가능한 시험과제를 스스로 불안은 거기에 있다고,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저촉되더라도 대담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보다 승산이 있는 새로운 과제를 잡으라고 권고하는 축들이 과반수였으며 일상시에는 가만있다가도 회의때마다 지어내는 그 어떤 준엄한 목소리로써 류지현을 무슨 타락기마냥 맹렬히 두드려대는 그런 축들도 있었다.

류지현은 어떤 회의나 모임때에도 늘 가슴을 웅송그리고 고개를 떨구고있기에 가장 편리하고 어울리는 위치인 뒤구석을 찾았으며 사람들의 유일한 동정의 과녁이 되고말았다.

그의 안해인 성혜역시 남편의 사업과는 인연이 먼 마을의 가내반에서 일하고있었지만 시험소내에서의 남편에 대한 일반의 평판을 전혀 모르고 있을수는 없었다. 그가 연구하고있는 《ㄷ》단열층이 어떤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아무튼 성혜는 그것이 크고 대단한것이라는것만은 알고있었으며 그에 대한 첫 시험용해를 진행하는 날은 마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변을 맞이할 때와도 같은 그러한 흥분과 환희의 예감, 부풀어오르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그 시험용해의 결과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틀림없을거요!》

첫 실패에 이어 두번째의 시험용해를 앞두고 류지현이 다짐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에도 안해는 락심하지 않고 그의 좋은 결과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렇게 세번, 네번… 아니, 마흔여덟번을 기원했다.

이제는 그 시험용해에서의 성공여부를 묻기가 두려워졌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것자체가 남편에게 그 어떤 무거운 압박감을 더해줄것만같아 성혜는 남편의 일에 대해 일체 모르는척하고있었다. 그러나 며칠 건너 한번씩 현장에서 시험을 하고나서 실패한 그리고 아직 열이 채 식지 않은 로를 뜯고 다시 축조하느라고 온통 새까맣게 화염에 그슬린 남편의 옷을 뵈때마다 성혜는 묻지 않고도 그 시험결과를 예상할수 있었으며 그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있었다.

《공연한 고생을 사서 하는게 아니예요? 남들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서도 여유있게 살아가고있지 않아요.》

이런 말이 하루에도 몇번씩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성혜는 그 말을 차마 뱉어놓지는 못하였다.

그가 남편의 일을 만류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딱히 종잡아 얘기할수는 없었지만 성혜는 그를 처음으로 알게된 8년전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을 통해 남편의 사람됨됨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날 한 친구와 함께 자기네 집에 찾아와 약 1분가량 단둘이 마주앉아있으면서 (그때 성혜의 전에 탁상시계의 초침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던지) 그가 성혜에게 한 말이란 고작 한마디였다.

《저... 성함을 어떻게 부르는지요...》

그것은 아마도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시도한듯한 꾀 어색하기 그지없는 물음이었었다. 성혜는 고개를 외로 접고 앉아 금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혀를 깨물었으나 외견상으로는 더없이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지현은 더 말이 없이 자리를 일었으며 함께온 친구를 통해 저녁에 약혼식을 위해 자기의 부모를 모셔오겠노라고 전갈하였다. 미처 정신을 차릴새없이 그날저녁 약혼식이 이루어졌으며 또 며칠후에 것처럼 어이없는 벼락결혼이 성사되었다.

후에야 성혜는 그가 이러한 구식풍으로 장가들게 된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는것을 알았다. 오랜 로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의 늙은 아버지가 림종을 앞두고 막내아들의 혼례를 치르어주지 못한것을 한으로 여겼던것이다.

형들이 그와 친한 처녀가 없는가를 이모저모로 타진해보고 두루 물색도 해보았지만 그때까지 결는 한번 팔지 않고 오로지 과학탐구에만 전심전력 하고있던 지현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점찍어둔 처녀조차 없었다. 하여 지현의 중학동창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장가든 두 딸애의 아버지이며 그런 물계에서는 누구보다 환하다고 자처하는 한 친구가 다음날로 류지현을 도와나섰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처녀들에 대하여 인물과 직업, 학력, 가정환경... 등등을 마치 각 조항별로 제품의 우열을 따지는 품질감독원파도 같은 실무적인 태도로 쭉 털거하고나서 틀림없이 그 취사선택에 필요한 예비지식이라고 생각되는 일장의 긴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그 처녀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고 엄격히 비교를 한뒤에 결심을 내리라는 것이였다.

《아니, 난 침 만나는 너자에게 장가들겠어!》

사실 그날 첫번째로 만난 처녀가 바로 성혜였다.

그렇게 타산없는, 또 런애없는 구식결혼을 한 그들이였으나 지금까지 언젠 한번 모르고 8년을 살아왔다. 그동안 아들딸남매를 낳아 기르며 함께 살아오는 과정에 성혜는 남편이 어떤 문제에서도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거나 털끝만치의 리기적타산도 앞세우는것을 보지 못했으며 일단 자기가 선택한 도덕적의무앞에서도 한없이 성실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그에 대한 일부 뒤흔한 뒤소리들이 돌고 있는 지금에조차 성혜는 그래도 남편이 옳다는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어마지 않았다. 그래서 성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정상만은 참으로 보기 괴로웠다. 이해의 마지막날에 동무없이 혼자서 쓰디 쓴 고배를 들이키고 어깨를 후줄근히 처뜨린채 깊이 잠든 자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에는 어딘가 참담한데가 있었다.

미구하여 벽에 걸린 패종이 열두점을 울렸고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창밖의 어디에선가 80년대의 마지막밤을 알리는 그리고 90년대의 첫새벽을 알리는 은은한 제야의 종소리가 밤의 고요를 타고 실려왔다.

순간 류지현은 취기로 하여 더욱 창백해지고 고통으로 이지러진 얼굴을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비통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이해도 또 그냥 보냈구나!...》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모질게 움켜쥐고있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까지 말 한마디없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안해... 함께 살면서도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수 없는것으로 하여 괴로와하는 안해...

지현은 애써 자신을 견잡으며 안해에게 말했다.

《이번 설에 아무데도 나가지 않겠소. 혹시 누가 찾아오더라도... 하긴 그런 일도 없겠지만... 내가 집에 없다고 해주오. 그리고 애들도 방해할 못하게 좀 해주오.》

《하지만 설명절에 어떻게... 애들이 어느때보다 아버지를 더 찾겠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거요...》

그다음 류지현은 옷방에 들어박혔고 책상우에 펼쳐놓은 수습장의 설계도면속에 파묻혔다.

아래방에서 몹시 억누르는듯한 안해의 흐느낌 소리가 사이문을 통하여 간간히 새어나왔다. ...

(3)

무수한 점과 선... 직선과 곡선... 수자와 부호들...

그것들이 모여 서로 교차되고 련결되고 결합되

면서 각이한 도형을 이룬 설계도면우에 류지현은 인차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다. 머리속에는 그 점과 선들이 구성하고있는 《ㄷ》 단열솜시험생산공정도의 총체가 아니라 왕창같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귀전에서 하나의 집요한 말마디가 들려오며 관자노리를 쭈서대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티없이 맑고 쟁쟁한 신성이의 목소리로 들려오기도 했고 전달저녁에 말한 영만실장의 목소리로 바뀌기도 했다.

그해 자기 실의 공업시험진행정형을 총화하면서 그는 이해에 시험소의 자금을 무의하게 낭비했을뿐 아니라 새 기술의 현장도입건수가 전혀없는 류지현을 비판했다. 벌써 몇해째인가!... 그리고 내가 이미 우리 실의 현재력량으로써는 너무도 아름답며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그 엠병할놈의 단열솜에서 물려서라고 몇번이나 충고했는가!...

류지현은 어떠한 말에도 응대가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태도, 이제는 하도 비판을 받아 어느덧 면역이 형성된듯한 그의 무반응한 태도가 영만실장에게는 저으기 답답하게 여겨진 모양이었다.

《여보, 동무도 이제 두 자식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랑스런 자식들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바가 없소? 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런 허무맹랑한 놀음을 집어치우고 실적을 좀 올려야 할게 아니요. 아버지구실을 해야지 않겠는가말이요.》

그 말은 종전의 모가 선 말마디와는 달리 부드럽고 절절한 어조였다. 실장이라는 자기의 공식적인 직책에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대학동창으로서의 따뜻한 감정에서 출발된 도덕적인 충고였다.

그런데 바로 그 말에 류지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여태도록 굳게 빗장이 걸려있던 그의 입이 열려진것이였다. 게다가 그는 실장이 《여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당신》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구실에 대해서까지 운운하는거요? 실장이라는 직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었는가요!》

부정맥이 오기라도 한듯 그의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상서롭지 못하게 툭 툭 뛰었고 바지가랭이까지도 그에 따라 푸들푸들 떨었다.

규산염실안의 모든 시험기사들과 조수들, 실험공처녀들이 아연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담벽의 말코지에 늘쌍 걸려있던 외투가 돌연 입을 벌기라도 한듯, 혹은 이제는 하도 소둔하여 뒤흔이라는 그 주되는 성질이 제거되었던 용수철이 불안간 다시 튕겨나기라도 한듯 놀라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중 대부분이 자기들의 실안에서 가장 신축성이 없는 뻣뻣한 사람이며 말이 없던 사람이 드디어 입을 벌렸은즉 이제 곧 폭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의 예감은 적중치 못했다. 항상 사업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사람이며 상대방이 극도로 격분하였을 때에도 지극히 침착하고 아량있는 태도를 유지할줄 아는 리영만실장이 온전한 리성과 자제력을 발휘했던것이다.

《이렇게면 가정은 신성불가침이란 말이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매 공민의 사회적의무와 가정적 및 도덕적 의무는 서로 배제되는것이 아니라 호상 밀접히 결합되어있는거요. 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또 류동무의 일을 그냥 지켜보기가 하도 안타깝기때문에 한 말이요. 더우기 목은 때를 벗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날에 동무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 마음도 솔직히 말하여 썩 흥에 겨운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가 이것으로 끝난줄 알고있었다.

그러나 리영만이 설전야의 보다 《유쾌한 총화》를 위해 그날저녁 실의 모든 성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며 특히 류지현에게 화해조의 각별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자기가 그에게 것처럼 성급히 화를 내고 조야하게 처신했는지 이해할수 없었고 스스로도 자신이 치졸하게 생각되었다. 그 말이 뭐 그다지 참기 힘든 말이라고... 그가 본심에 있어서는 자기를 진정으로 걱정하여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들은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한 대학동창이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학업성적에 있어서 학부적으로 첫 자리를 다투던 사이였었다.

대학시절 류지현이 몇몇 중요한 전공과목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냈다면 리영만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것으로 하여 우세를 보이고있었다. 놀라운것은 그가 류지현이처럼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도, 또한 그 어떤 진통도 없이 그러한 수확을 거두고있다는 사실이였다.

《이건 산부인과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무통해산법>이라는거야!》 하고 리영만은 가끔 학급처녀들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아무 꺼리낌없이 뇌까리곤 했다. 어지간히 불공평하고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것처럼 아글타글하지 않고도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맡겨진 일을 척척 멋들어지게 해제끼는 사람들, 좌충우돌없이 자기의 직선주로를 곧바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리영만이 그런 사람이였다.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시

협소에 배치된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류지현이 제철소의 생산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를 불안고 번마다 안간힘을 쓰며 씨름하고 있을 때 리영만은 그 어떤 천부의 두뇌를 타고난 사람마냥, 그 어떤 번뜩이는 기지와 령감에 충만된 시인마냥 적중한 시험과제를 골라잡고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한편 학계에 연거퍼론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험기사로 일한지 3년도 채 못되어 그가 실장사업까지 맡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도 그것을 놀라운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공업시험소내의 실장들가운데서 제일 젊고 야심만만한 실장으로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실안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한손에 거머쥐고 본때있게 내밀어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있었으나 그 규산염실안의 단 한사람—류지현만은 성적이 없었다.

여전히 그는 한자리에서 다람쥐채바퀴를 돌리고 있었던것이다.

(4)

그렇게 또 5년동안을 《E》단열솜이라고 하는 한 채바퀴안에서 돌았다.

처음 그 연구에 달라붙을 때 류지현은 아직 우리의 내화물계에 그 비슷한 전례도 없으며 일부 해당전문가들이 그 용어조차 모르고있던 《E》단열솜을 자기의 힘으로 꽤 해낼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야금로나 보이라들에 도입할 때 막대한 량의 연료를 절약할수 있다는것—그 하나의 생각이 그로록 강하게 그를 흥분시켰던것이다. 그에 대한 연구와 공업시험이 얼마만큼 자기의 맥을 뿜을것이며 현실적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열의 일정한 류실을 전제로 하는 종전의 내화물이나 보온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것으로써 내화벽을 통한 열의 량비를 완전히 차단하는 새로운 연구안이였다. 류지현은 자기의 그 새로운 내화재인 《E》단열솜의 열전도결수를 《령》의 계산까지 떨구어버릴것을 결심했던것이다.

내화물계에서의 일대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대담한 연구안이 류지현에 의해 공업시험소에 처음 제기되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허황한 공상으로 치부했으며 믿지 않았다. 영만 이도 처음에 그의 연구안에 대해 쓰아한 태도를 취했으나 본인이 하도 극성스레 고집하는바람에 더 반대하지 못했다.

《어디 해는 보라구!》

그는 류지현에게 시험조수 두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한해 두해 지나는데 따라 차츰 그것이

연구전망도 료원하며 보통 어렵지 않은 시험과제라는것을 알게 된 두 시험조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류지현의 시험조에서 떨어져나왔다. 고지식한 그 시험기사밑에서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무것도 덕볼게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였다. 이미 그 가능성이 확인된 손쉬운 과제들을 골라잡고 별로 고생함이 없이 현장도입건수를 채우며 재치있게 성과를 올리는 일부 시험기사들... 그들의 생활방식에 두 조수는 매혹을 느끼기 시작했다.

《E》단열솜이 시험기사 한사람의 두뇌와 힘만으로 어렵도 없는 과제라는것쯤 모를 리영만이 아니었으나 그는 이 사실을 묵인해버렸다. 게다가 류지현에게 옛 대학동창의 우정을 걸고 신기루와도 같은 그 단열솜에 더 정력을 허비하지 말것을 두차 권고했다.

이런 처지에서 류지현은 탐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누군가 비유하여 말했듯이 《항로 없는 단독항행》을 계속했다. 밤을 패워 연구하고 수십장의 시험생산공정도를 거둬 수정완성해나갔으며 샤모트벽돌을 날라다 시험로를 쌓았고 그밖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미립분쇄기며 혼합기, 분사구, 타면기 등 많은 설비들을 현장의 기능공들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거나 자체로 구입해들었다. 지금까지의 48차에 걸친 시험용해때의 고생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웬만한 시험기사같으면 우선 육체적으로 힘에 겨운 그 시험용해에서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것이다.

그러나 류지현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하는데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고있는 과제였고 당면하게는 제철소에서 연료절약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었다. 자기가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였으며 또한 그런 경우 자기가 지금까지 뚫아오른 5년세월을 후퇴하여 다시 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것이였다.

류지현은 오직 량심을 어제나 변함없는 자기의 성실한 벗으로, 동반자로 삼고 시험용해를 계속했다. 일부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은 고집쟁이로, 부진기사로, 국가와 사회의 기식자로까지 말하고 있는 지금에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량심만은 꺾였었던것이다.

문제는 그날 영만실장이 자기의 도덕적추진력의 마지막 한계점, 바로 그 량심을 건드린 거기에 있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앞에서, 자기의 후대앞에서 되도록 량심적이며 성실한 아버지로 되려 했던 그 가슴속 깊은곳의 감정을 그가 감히 모독한 거기에 있었다. 왜? 무슨 권리로써? ...

(5)

사이문이 열리며 안해가 조용히 일러주었다.

《시험소에서 신성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류지현은 귀찮다는듯 돌아보지도 않고 응대했다.

《없다고 하라지 않소.》

《초급당비서동지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뭐, 비서동지가?!...》

류지현은 놀라운 한편 당황하여 급히 웃웃을 걸치고 문계로 나갔다.

초급당비서 김훈이 빙그레 웃음을 짓고 문어구에 서있었다. 작년에 시험소의 초급당비서로 부임된 그가 류지현의 집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새해를 축하하오!》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류지현은 어망결에 인사하고나서 그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지현의 두 아들딸남매가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서서 김훈에게 절을 올렸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오냐, 새해에 복 많이들 받거라!》

김훈은 너부죽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으며 외투주머니를 뒤져 호두와 꿀 몇알을 꺼내 애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그 애들을 각각 량쪽 무릎우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묻는것이였다.

《애들이 귀엽게 생겼는걸. 그래 오늘아침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더냐?》

《아무 선물도 안줬어요. 우리 아버지...》

신성이는 량볼을 잔뜩 불쿠고 머리우에 두손가락을 올리려다가 류지현의 엄한 눈길을 받고서 입을 다물었다.

《허, 아버지가 정말 구실을 못하는구나, 세배를 드렸는데도 아무 선물도 안줬단말이지... 이것보오. 류동무, 옛날에 백결선생은 가난한 선비의 살림에도 생일이나 명절날 자식들에게 선물하는것만은 잊지 않았다는데... 지금 세월에야 그게 뭐 힘들어서 못하겠소. 잘 안됐군.》

김훈의 말에 신성이가 끼여들어 참례하였다.

《할아버지도 백결선생 옛말을 아시나요?》

《이것봐라, 날보고 할아버지라는군!》

성혜가 민망스러운듯 신성에게 눈을 흘겼다.

《신성아, 그럼 못써.》

《놔두십시오. 이애들에게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게 기분이 파히 나쁘지는 않군요.》

김훈은 자못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새별처럼 반짝이는 신성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래 넌 어떻게 백결선생이야기를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었어요. 웃을 백군데나 기워입었다고 해서 백결선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백결선생은 설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떡해 먹을 쌀도 없었지만 가야금으로 아들딸들에게 <

떡방아타령>이라는 노래를 재미있게 지어서 선물했대요.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대요.》

《저런!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 아오?》

사뭇 놀라와하는 김훈에게 성혜가 일견 자랑스러운 미소를 금치 못하며 대답했다.

《저 애는 아버지에게서 한번 들은 이야기는 잊어 먹지 않는답니다. 신성아, 이제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라. 글썽 저 애들이 아직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라다나니 나이 든 손님이 오시면 저렇게 렴치없이 매달리는군요. 어서 내려오래두... 자 그럼 이야기를 나누세요.》

성혜는 자식들을 아래방으로 내려보내고나서 사이문을 꼭 여며닫았다.

조용한 옷방에서 비서와 단 둘이 마주앉자 류지현은 공연히 몸가짐이 굳어지며 부자연스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가 무엇때문에 설날에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히 즐기지 못하고 여기에 찾아왔는가를 짐작하고있어서 더 그런지도 몰랐다. 아닌게아니라 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부터 꺼냈다.

《사람이 왜 그리 웅졸하오? 남들한테 싫은 말을 좀 들었다구해서 이렇게 설날에까지 문을 꼭 닫아걸고있는거요?》

《...》

류지현은 대답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려오?》

《전 사람들앞에 사실...》

《사실이 어쨌다는거요? 말해보오. 왜 혼자서만 궁궁 속을 앓는거요? 왜 자기의 속마음을 당조직에 찾아와 헤쳐놓지 못하는가!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니요!》

류지현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채 주책없이 눈굽을 습벅거리고있었다. 김훈자신도 그를 보기가 정녕 딱했던지 시신을 돌렸다.

《됐소... 이걸 동무만을 탓할 일도 아니요. 난 어제저녁 동무네 실에서 있는 얘기를 전해듣고 생각이 많았소. 내가 시험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는 잘 모르지만 동무가 어떤 과제를 맡았는가는 대략 알고있소. 동무로 말하면 우리 공업시험소에서 현시기 당이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중산절약과 관련하여 제일 아름답고도 중요한 과제를 안고있는 사람인데 어쩐지 요새 점점 활기를 잃구 못사람들앞에서 위축되고 있단말이요. 무엇때문이요?... 난 동무의 연구안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파악이 없다나니 한마디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소. 난 지금 동무가 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아니 원칙적이라기보다는 량심적으로 옳다고 보오. 문제는 량심이요! 난

엇저녁에 영만동무가 한 말이 동무에게 것처럼 심각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구 그문제를 생각하게 됐소. 천상 가야 말이 없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일어섰단말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말이 동무에겐 류달리 심각하게 작용했거든. 느낌의 강도가 달랐단말이요!... 난 어제야 비로소 동무가 왜 것처럼 어렵구 베풀 과제인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좀처럼 물러서려 하지 않는가를 깊이 알게 됐소. 그건 동무가 당정책을 단순히 실무적으로만 아니라 기술자의 진정한 양심으로써, 자신의 도덕적의무로 받아들였기때문이요. 동무의 이러한 면모를 너무나 뒤늦게야 알게 되는데 대해서는... 내 아무래도 동무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가보오...》

종내 류지현은 고개를 푹 떨구고 눈굽을 싸쥐고야 말았다. 수그린 그의 등허리에 그 어떤 세찬 전율이 번지고있었다.

김훈은 그를 등지고 일어서서 참가에 다가갔다. 한동안 창밖의 설경에 무심히 눈길을 주고있던 그가 류지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참, 동무한테 찾아온 기본목적은 잊을뻔했구만. 내 오늘 생각던끝에 동무의 시험조수로 될 결심을 했는데 어쩡소? 받아줄수 있겠소?》

《?!...》

《왜 대답이 없소? 나도 한때는 로공학계통의 시험조수였다는걸 모르오?... 하긴 다른 전공분야의 시험조수노릇을 제대로 하자면 한가지 조건부가 있는데... 동무의 그 단열솜에 관한 연구자료를 며칠동안만 나에게 좀 빌려주오. 》

《그럼 정말로...》

류지현은 코끝을 훔치며 김훈을 쳐다보았다.

《정말이 아니면 실없는 소리나 하자고 설날에 동무네 집에 찾아왔겠소. 그래 빌려주겠소, 안 빌려주겠소?》

《예... 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은 엉거주춤 일어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의식하지 못하면서 책상우에 널려있던 시험생산공정도와 기술자료를 건어모았다. 그것을 넘겨받자 김훈은 곧 외투를 걸치었다.

《벌써 가시렵니까? 식사라도 같이 좀...》

《아니, 집에 가서 하겠소. 나도 제 집이 있는데... 영만동무의 말따마나 나도 오늘 한 가정의 아버지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요. 》

김훈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류지현에게 한눈을 깜빡해보였다. 그리고는 사이문을 열려다가 불쑥 생각난듯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귀속말을 하듯 나직이 속삭이는것이였다.

《그리고 이건 아주 소중한 감정이요. 소중한하고 깨끗한 감정! 물론 누구나 제 자식을 사랑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구체적감정은 서로 다르단말이요. 솔직히 고백한다면 난 오늘 동무의 딸아들에게 아주 반해버렸소. 그 녀석 참 총명하거든!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선물을 꼭 마련

해야겠소. 알겠소?》

《...》

류지현은 그의 말에 미처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목이 꼭 잠기여 말소리가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6)

그무렵 공업시험소의 시험기사들과 조수들은 어느때와는 확연히 다른 류지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새해벽두부터 침식을 시험용해현장에 옮기고 마치 거기에 자기의 생사운명을 걸기라도 한듯 비장한 각오와 정신력, 완강한 의지로 시험로에 불철주야의 연속적인 공격을 단행하고있는 그의 모습에는 사실 그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것이 번뜩이고있었다.

리영만은 끝살을 찌프렸다. 류지현의 그 단열솜때문에 또 올해에도 실장인 자기가 단련깨나 받게 되었던것이다. 글썽 자기가 자진하여 받은 공업시험계획이니만치 스스로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젠 꼭 범표리를 쥔 사람처럼 놓지도 못하고 그냥 붙들구만 있으니...

하지만 영만은 그렇게 편협하고 좁상스러운 류의 사람은 아니였다. 그는 류지현이가 하는 일을 야비하게 헐뜯거나 방해로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방조자의 립장을 택하지도 않았다. 자기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그에게 이미 실장으로서나 동창으로서 바줄과 구명대를 던져주고 자기로써 할수 있는 모든 구조대책을 취했으나 그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그 선의를 마다했은즉 이제는 강기슭에 물러서서 구경할수밖에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허참, 원래 고집불통이란 할수 없군. 》 하고.

그런데 한가지만은 그가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초급당비서가 정초부터 류지현의 《E》 단열솜에 뛰어든 사실이였다.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류지현이가 휩쓸려들고있는 거세찬 소용돌이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었을뿐아니라 많은 협력자들을 그 위태로운 격류속에 끌어들었다. 특히 그가 내화물직장의 로동자들속에서 어떻게 정치사업을 했든지 그들은 자기들의 교대를 마친후에는 시험로에 달려와 류지현의 일을 로력적으로 힘껏 도와주는것이였다.

관이 이쯤 커지고보니 영만실장도 자연 이 일에 대하여 수수방관할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초급당비서가 과학기술적확신이 없는 일일에 뛰어든것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기술인테리들의 대집단인 공업시험소에서의 당비서사업이란 워낙 간단치가 않다. 허나 그자신이 원래 공과대학졸업생이며 공업시험소에 오기전에도 주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오래동안 사업해

은 김훈은 여태까지 대중앞에서 자기가 기술적으로 파악이 없는 일을 순수 정치적의 일면만 강조하여 내밀거나 주장해본 일이란 없었다. 이런 비서임을 알고있는 시험기사들은 그의 앞에서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발언을 경솔히 하지 않았으며 혹색야금계의 로장이고 엄격한 실무자인 시험소의 소장조차도 그가 어떤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거나 결정서의 초안을 기안할 때면 백프로의 믿음을 가지고 대하곤했다.

《비서동무가 결심했으면야 일은 성사된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한해서만은... 그가 오유를 범하는것이 아닌가, 어쩌서 객관적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것처럼 막연한 일에 지긋게 매달리는 것인가...

이 문제외에도 영만은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내적연계를 가지고있는듯한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사실에 접했다. 그것은 대학시절에 자기를 가르쳐온 스승으로부터 날아온 편지때문이었다.

대학내의 그 어느 교원보다도 제자들에게 대한 엄격한 요구성과 강의에서의 신랄한 표현들로써 학생들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 교수는 최근년간 학계에 발표된 리영만의 소론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보았으며 그에 대한 심각한 분석을 가하였다. 교수는 편지에서 서술하기를 과학론문을 현행생산과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응용과 엄격한 과학적론리의 결정체가 아니라 생산실천과 인연이 먼 문제에 대한 공리로, 러염집아낙네들의 횡설수설 (아직 예전 그대로 군!) 로 전변시킨 무책임한 투고행위에 대하여 어지간히 혹독한 론조로 지적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등등의 론문들이 당신의 학위획득과 사업상의 권위를 높이는데 유익할지는 모르겠소만 한때 당신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새로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신까지를 포함한 우리 선행자들이 도달한 현대과학의 높이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나로서는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소. 만일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어떤 탑을 쌓았느냐고 묻는다면, 가령 레를 들어 당신의 자식이 그런 물음을 제기한다면 그때도 당신은 자식앞에서 외교를 할터이요?...》

여기에서 리영만은 로교수의 그 마지막 구절-앞에서 한 그렇듯 신랄하고 가혹한 비판과 독설이 거기에 기인되며 전세대들의 기쁨과 괴로움, 때로는 분노까지도 바로 거기에 귀결되는것인 오랜 교육자의 량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마지막 말에만은 반격을 가할수 있는 어떠한 단어도 찾기 못하였다.

(7)

강철은 1,600도의 온도에서 녹는다.

그러나 《ε》 단열솥은 2,000도의 고온에 서만 녹는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적인 용점은 어디인가?...

류지현은 한번 대답하게 로의 온도를 최고한계에까지 올려보았다. 그리고 류지현과 김훈은 동공을 찌를듯한 강렬한 백색화염이 무섭게 타래치고 있는 그 시각에 《ε》 단열솥의 질적변화를 규정하고있는 새로운 법칙성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과학적인 최고온의 용점에서 비로소 제 본색을 드러낸 그리고 아마 인간생활에서도 적용될법한 그러한 법칙성이었다.

《됐소, 인젠 성공의 단서를 쥐었소!》

김훈은 흥분하여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류지현은 타면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목화솜마냥 희고 부드러운 단열솥을 말없이 손에 움켜 쥐고있었다. 이체는 그 보드라운 촉감만으로서도 섬유질의 기술적특성을 판별할수 있었다. 지금은 성적이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리라는것을 그는 예감하고있었다.

마침내 그가 손에서 단열솥을 털어버리며 김훈에게 말하였다.

《이미전부터 해오던 생각인데 로벽을 최고온에도 견딜수 있도록 흑연질로 보강하고 로를 하나 더 세워서 2단으로 설치한다면 지금까지의 약점이 극복되리라 봄니다.》

《2단으로?... 어떻게?...》

류지현은 땅바닥에 공정도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눈시울을 한껏 찌프리고 주의깊게 듣고있던 김훈은 그의 보충적인 설명이 채 끝나기도전에 일어섰다.

《알만하오!...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단열솥을 뽑자는거로구만. 완전무결하고 열전도결수에 있어서도 세계적수준의 단열솥을!... 그건 옳은 생각이요! 응당 그래야지!... 그럼 어떡헌다? 이제 좀 있으면 내화물직장동무들이 나오겠는데 그때 그들과 같이 시작해볼가?》

《비서동진 그만하고 들어가십시오. 제 혼자 할테니...》

《무슨 소릴 하오. 우리가 여적 시간을 좀 적게 잃었소? 쇠는 단김에 두드리랬다구 자, 지금 당장 시작하기요!》

그들은 쇠장대와 함마를 들고 아직 뜨거운 열을 내뿜고있는 침식된 로를 해체하는데 달라붙었다.

내화물직장의 로동자들이 그들의 시험현장에 달려나온것은 그들이 시험로앞에서 땀을 흘린 땀은 뒤에 저녁밥을 싸들고나온 신성이와 샤모트벽돌무지우에 걸터앉아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참이었다. 자기들이 좀 늦었다는것을 깨닫고 성

큼성큼 다가오던 노동자들은 자기네 직장의 고문이며 젊었을 때 유명한 축로공이었던 한 로인의 신호에 의하여 주춤 그자리에 멈춰섰다. 꼭 숲가마속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처럼 옷주제가 말이 아닌데다가 시험로의 화염에 얼굴이 거무데데하게 그슬린 시험기사와 초급당비서가 대어섯살쯤 나 보이는 천진관만하고 영특하게 생긴 어린애와 재미있는 이야기에 심취되어있었던것이다.

선뜻 다가서기가 저어되리만큼 그 세사람은 이야기에 열중해있었고 표정들도 자못 진지해보였다.

(8)

《래일부턴 나오지 말거라. 》

《왜요?》

《우리 막내딸이 너희 아버지똥까지 밥을 지어 가지고 나올게다. 》

《그래도 난 매일 나올래요. 》

《왜?》

《난 여기 나오는게 더 좋아요. 여기서 보안경을 쓰고 쇠물을 뽑는 용해공아저씨들이랑 압연공아저씨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러구 난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일하는데 가서 매일 재미나는 이야기를 듣는다구 애들에게 자랑을 하지요! 》

《그런데 아버지 눈치는 왜 살피는거냐?》

《내가 할아버지란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꾸만 눈총을 씌요. 》

《그래? 일없다, 마음놓고 할아버지라구 해라. 》

《그럼 할아버진 우리 아버지보다 더 썰나요?》

《그럼! 썰구 더 높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냐... 가만, 류동무, 담배 있소? 한대 좀 피우지요. 내 주머니의 담배는 땀에 젖어 못쓰겠구만. 》

《제것두 마찬가지로질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온통 곤죽이 되었는데. 》

《할수 없군. 그럼 구수한 담배맛대신 신성이 노래나 한번 들어볼가?》

《예. 부르겠어요. 》

《무슨 노래를 부르겠니? 어쨌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봐라. 》

《예. 》

우리 우리 아버지

자랑 많지요

새 공장도 척척

세워가고요

앞가슴엔 번쩍

훈장 빛나지요...

《참 잘 불렀다! ... 근데 정말 너의 아버지가 가슴엔 아무 훈장도 없구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빚을 단단히 졌는걸. 그렇지 않소? 류동무. 》

《예, 아마 이애가 날 교양하느라구 자주 저 노래를 부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치원교양원들이 아버지앞에서 일부터 저런 노래를 부르도록 부추기곤하는지...》

《허허... 정말 그렇다면 심보가 아주 고약하구만. 나같은데 그런 너자를 절대 머느리로 삼지 않겠소. 그런 묘한 방법으로 시아버지까지 교양하려 들게거든. 》

《뭐 그렇기야...》

《아무튼 유치원교양원들이 괜찮소! 아버지들이 이런 애들앞에서 자극받는다느니 알거든! 이런 애들을 마주 대할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이 정화된다는걸... 이것봐라, 신성아, 너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선처럼 말이나요?》

《신선? 왜 도제 신선처럼이겠니. 》

《그럼 옛말에 나오는 장수처럼 말이나요?》

《그럼! 그보다 더 지혜있구 의롭구 용감하단다. 》

《그리구 또 <최도끼와 금도끼>에서 나오는 나무군총각처럼 착하구요?》

《너석두, 모르는 소리가 없군... 그래, 그래, 나무군총각처럼 착하구말구! ...》

그때까지 등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내화물직장의 노동자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와 인사를 나누고나서 곧 일에 착수하였다.

한쪽에서 김훈이가 섬겨주는 샤모트벽돌을 받아 2단시험로를 축조하던 한때의 유명한 축로공이었으며 지금은 직장고문인 그 로인이 무수한 잔주름이 잡힌 눈귀를 가슴츠레 꼬프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좀전에 시험기사의 아들과 비서동무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전후복구건설 때의 일이 눈앞에 선하웨다. 그때 우린 마사진 로를 쌓고 쇠물을 뽑느라 노상 로앞에서 떠나지 못했지요. 기사동무의 아들처럼 그때두 애녀석들이 현장으루 밥을 나르곤했는데 그게 참 별일 아니요? 그 애들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두 고생이 아니라 락으루 여겨지구 온몸에서 부쩍부쩍 힘이 솟으니 말이웨다. 그때 우린 눈알이 까만 애녀석들을 보면서 생각했수다. 애들이 이담에 커서 자기 아버지께 대해 생각할 때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였다구 두구두구 추억할수 있도록... 그게 비록 힘에 겨웁구 빠근하더래두... 그렇게 살자구 말이웨다. 》

김훈은 일손을 멈추고 로인을 바라보았다. 무수한 주름살이 얹히우고 별에 타서 가무잡잡해보이는 얼굴, 허나 그때문에 더욱 성스러워보이기에까지 하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웁은 말씀입니다. 아바이! 바로 그거지요. 빠근하도록! ...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것말입니다. 》

(9)

이튿날 공업시험소의 회의실에서는 공개당총회가 열리었다.

안건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의 결정판철을 위한 집행대책으로서 다른 여러 문제들과 함께 류지현의 《ㄷ》단열섬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회의에서 《ㄷ》단열섬의 공업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혹이 몇몇 개별적인 시험기사들속에서 제기되었으나 그때문에 치렬한 론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ㄷ》단열섬의 과학성을 실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초급당비서가 어떻게 하였으며 이미 그것이 최종적인 시험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최대한으로 력량을 집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일단 자기가 확신을 가진 문제에 한해서 김훈은 어딘가 《독선적》인데가 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앞에 그 문제에 대해 강경히 주장하였고 공업시험소 당총회결정서의 초안에는 류지현의 《ㄷ》단열섬시험생산에 필요한 시험조건보장문제를 매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쏘아박았다. 그리고 그 결정서의 초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었을 때 모든 당원들이 손을 들어 찬동을 표시하였고 무릎우에서 한동안 주무럭거리던 리영만의 손도 결국에는 어찌할수 없는 자력권내에 들어서기라도 한듯 올라갔다!

(10)

공개당총회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그때로부터 다섯달이 지난 어느날 류지현의 《ㄷ》단열섬은 공업시험에서 완전히 성공하였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일치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여하튼 그날은 신성이의 생일날이였다.

×

아들 신성이의 생일과 관련된 류지현시험기사의 몇가지 추억이 있다.

제작년 신성이의 생일때의 일인데 그때 류지현은 《ㄷ》단열섬의 원료를 탐색하느라 멀리 외지에 나가있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밤낮없이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던 그였으나 그날이 만아들의 생일이라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하여 시료배낭을 등에 진채로 가까운 읍거리 체신소에 들어가 전보용지를 청하였다.

《류신성에게, 생일 네뉘를 축하한다. 아버지로부터.》

류지현이 쓴 전보용지를 접수하던 처녀의 눈에 금시 의혹이 실리더니 이어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몇년째 술한 전보문을 취급해온 처녀였으나 그런 전보문을 접수하기는 난생 처음이었던것이 다.

《아이참, 웃기시네. 네살짜리 아드님이 이런 전보문을 아시나요?》

물론 그때까지는 신성이가 아직 글을 모를 때였다. 그러나 지현은 기꺼이 그 전보문을 보냈다. 그 축하전보는 처음에는 그 어떤 불안의 예감으로 가슴이 후두둑 뛰었으며 다음에는 불쑥 눈물이 솟구친 안해의 입을 통하여 네살짜리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다음 다섯번째 생일날...

류지현은 그날도 시험용해현장에서 일하다가 뉘늦게야 집으로 달려왔다.

전날에 한 약속이 있어서 그는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공원으로 나왔다. 허나 워낙 늦어나오다 보니 공원의 유희시설들도, 청량음료점도 다 문을 닫아버린지 이속했다. 그런데도 신성이는 아버지에게 전날에 약속한대로 비행기를 타자고, 청량음료점에 가서 빵과 사이다를 사먹자고 그냥 줄라대는것이였다.

만약 누구든지 그때 류지현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어스름이 깃드는 공원의 빈 의자에 조그마한 아들애와 함께 앉아 한숨을 짓고있는 모습을, 그처럼 락심천만한 사람의 모습을 두번 다시 본 일이 없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리라.

그 다섯번째 생일날은 류지현이가 자기 아들과 한 약속을 처음으로 어긴 날로 되였다. 그날 자식의 빈 손목을 꼭 잡고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뇌이였다.

(섭섭해 말어라. 신성아... 대신 너의 다음번 생일에는 아버지가 더 좋은걸 마련해줄테니... 너희에게는 정말이지 하나를 주어도 참된걸... 더 크고 더 좋은걸 물려주마!...)

그리하여 신성이의 생일 여섯뉘에 아버지는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그날저녁 그의 집에는 신성이네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도 함께 왔는데 그는 신성이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설날그믐날의 일에 대하여 아버지네끼리만 조용히 얘기하는것이였다.

그날 신성이가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한것은 《할아버지》가 생일선물로 들려준 옛말이였다.

그 옛말은 정말로 아득히 먼 옛날에 있는 일처럼 구수하고 재미있게 꾸민 옛말이였는데 물론 주제는 마음씨 착한 아들과 아버지애 관한것이였으며 종당에는 그의 아버지가 한 모든 옛말이 그러한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고금조선의 옛말과 전설들이 대체로 그러한것처럼 《권선징악》과 《고진감래》로 끝나는 그러한 옛이야기였다. 다만 신성이가 암만해도 모를 일은 이야기의 가장 환희로운 그 마지막대목에 이르러 별안간 자기의 어머니가 얼굴을 싸친채 부엌으로 뛰쳐나간것이였으며 다른 어른들도 모두 웬일인지 심각한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있는 그것이였다.

그 세사람은 한 천진한 어린애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것이다.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면모를 과시한

장편소설 《너당원》

박춘택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은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체질과 미감에 맞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개척하며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최근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양적가치가 매우 높은 소설이라고 하시면서 당성단련의 교과서라고 높이 평가하신 장편소설 《너당원》(김보행작)은 발전하는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여주며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면모를 과시하는 성과작들 중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우리 당 력사에 빛나는 장으로 영원히 아로새겨진 조국해방전쟁시기 락원기계공장의 한 너당원을 원형으로 하고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잊지 못하시며 거듭 감회깊이 회상하시는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한 장편소설은 당원의 고결한 신념과 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을것이지만 특히 이 작품이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 식 소설의 혁신적면모를 보여준것이다.

우리 식 소설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형성하는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인 문학은 인간생활의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문학의 형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성격이 서있으며 인간의 생활과 그 운명문제가 놓이게 된다.

우리 식 소설에서는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나가는 인간, 당과 수령과 혈연적관계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가는 인간의 운명을 그린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은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동지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그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혁명적의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으며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마땅한 도리인것이다.

때문에 우리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이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신조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인 혁명적수령관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수령님의 품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길에 진정한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는것을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로 하는것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와 관련하여 나서는 이러한 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이 작품에 형상된 주인공의 성격이 가지는 매력은 가장 준엄한 시기에 수령과 혈연적관계를 이루고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노동당원의 고결한 품모를 보여준데 있다.

주인공 용녀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받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그가 지닌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마음의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졌는가 하는것을 그가 겪어온 생활체험과 유기적으로 밀착시켜 형상적으로 해명하였다.

성격이 기초하고있는 생활적바탕은 그 성격의 형상과 발전의 논리에 진실성을 보장하는 전제로 된다.

용녀는 몸매가 작고 어깨가 가냘프며 눈물이 해픈 32살의 평범한 녀인이였다.

해방전 그는 머슴살이, 품팔이, 고용로동에 시달리고 천대와 멸시속에 죽지 못해 살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날부터 용녀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공장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적바탕은 용녀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된 타

당성을 진실하게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당원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는데서 주위환경이 미친 긍정적영향에도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인간성격은 일정한 사회관계속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 형성발전된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관계와 집단생활의 영향을 받기마련이다.

말하자면 일정한 사회적관계와 그속에서 빚어지는 집단생활이 인간성격형성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이러저러한 사회적관계와 집단생활의 본질과 특성이 성격속에 반영된다.

이것은 일정한 환경속에서 사는 인간성격형성의 필연적론리이다.

용녀는 공장의 당세포위원장인 강태수와 남편인 한인호를 비롯한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영향밑에서 당원이 지녀야 할 신념과 의지를 키워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락원의 이름없는 로동자였던 남편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은정을 베푸신것은 용녀의 심장속에 충성의 신념이 뿌리내리게 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정세가 복잡했던 1945년 11월에 신의주 《학생사건》으로 현지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강태수, 한인호들을 친히 몸가까이 만나주시고 자기힘을 믿고 제 손으로 용선로를 복구하려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장차 공장의 기둥으로 될 그들은 난생처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았으며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충성의 일념을 안고 용선로를 일떠세웠다.

이때 한인호는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할수 있소.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때문에 꼭 되오.》라고 신념에 넘쳐 말하였으며 그가 확신한대로 일은 그렇게 되었던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목격하는 과정에 용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한다면 모든것이 이루어 지며 수령님께서 계시면 만사가 다 바로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것이고 수령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 그 은덕에 보답하는것을 최고의 인간적도리로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게 된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용녀가 지닌 신념과 의지는 그가 체험한 생활에 뿌리박은 투철한 계급정신에 기초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 조국과 인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거기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은데 있다는것을 그의 실천활동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전쟁은 날이 갈수록 가렬해지고 헤쳐야 할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로력과 기능이 부족하고 원료와 자재가 긴장하였으며 적의 폭격은 계속되고 원쑤들의 파괴압해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런 속에서도 주용녀는 수류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쉬임없이 장입물을 나르고 물을 길었으며 장마철에는 녀성들의 《배낭부대》를 이끌고 물흐르는 모래를 배낭으로 날랐으며 모자라는 선철을 구하기 위해 금천강으로 나가 얼음구멍을 까고 해방전에 파묻혔던 선철조각들을 하나하나 파내는것이다.

적기의 폭격으로 용선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도 그는 1호용선로 복구에 필요한 내화벽돌을 구하기 위하여 《7》공장을 찾아 사선을 헤치며 6백리길을 주저없이 달려간다.

거기서도 내화벽돌을 구할수 없게 되자 내화물공장을 찾아 또다시 2천리 동해안까지 가서 끝내 그것을 실어오고야마는 용녀의 헌신적이며 강의한 투쟁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운것이다.

소설은 이런 실전투쟁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간의 신념과 의지가 어떠한 힘을 나타내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동차적재함우에서 왕복 4천리가 넘는 길, 그것은 용녀의 신념과 의지를 강철로 다져주는 용광로였고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학교였다.

끼니를 건넌면서도 배고픔을 몰랐으며 엄습하는 봄날의 새벽추위와 밀려드는 줄음, 육신의 피로도 그는 의지의 힘으로 이겨나갔다.

이 길에서 그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원쑤놈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처럼 일떠선 거창한 전쟁현실을 더욱 절절하게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전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였다.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7》강의 도하장에서 몸가까이 우러르면서 용녀는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그이의 크나큰 로고를 심장깊이 느끼는것이다.

36년동안 왜놈의 구두발에 짓밟혀 주접이 들었던 인민들의 넋을 부추겨주시고 새 생활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위해 장군님께서 해아릴수 없이 많은 일감들을 한몸에 지니고계셨다.

그런데 또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새 생활이 꽃피나던 조국은 불바다에 잠기고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오직 위대한 장군님 한분께 의탁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또다시 우리 인민에게 노예살이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미국놈들을 무찌르는 전쟁의 맨 앞장에 서시여 겹쌓이는 시련과 불바다를 헤쳐나가고계시는것이다.

미처 살림살이를 꾸리지 못하여 대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를 가지고 전쟁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로고가 많으시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가시는 이러한 크나큰 로고에 대하여 심장으로 느끼면서 용녀는 장군님의 그 로고를 덜어드리고 그이의 그 높이신 뜻을 받드는것은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이끄시는 조국땅위에 사는 우리 인민의 본분이며 도리임을 깊이 자각하는것이다.

그러한 주용녀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세포회의에서 전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 그이께 충성의 맹세를 다질 수 있었던것이다.

소설에서는 소설의 절정인 세포회의장면이 참으로 감동깊게 그려져있다.

하루밤과 하루낮동안에 파괴된 직장을 복구해 놓고 긴장된 2.4분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로동자당원들의 평범한 세포회의의—

여기에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문도 없이 참석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도 당원이고 동무들도 당원인데 무슨 못할 말이 있겠는가 하고 하시며 당원들의 소박한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전쟁이 끝나면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해 복구건설을 해야 하겠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남은것은 재더미뿐인데 정말 할일이 많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이 깊으신듯 말씀을 맺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순간에 당원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은 그이께서 다하시지 못한 그 말씀까지 심장으로 듣고있었다.

《장군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주십시오. 》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용녀의 맹세는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충성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의 대변이었다.

장편소설은 이 인상깊고 감동적인 빛나는 화폭속에서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오한 사상 예술적해답을 주고있으며 수령님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필승 불패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장편소설 《너당원》에서는 주체의 혁명관을 세워 나가는 인간을 형상하면서 투쟁의 길에서 겪게 되는 생활의 우여곡절을 잘 그리는데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서만 점차 계급적자각이 높아지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므로 작품에서는 투쟁의 길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주인공의 생활을 잘 그려야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있으며 흥미도 끌게 된다.

소설은 전쟁이라는 준엄한 현실에서 조국과 더불어 매개 인간이 겪어야하는 시련과 불행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한고비 넘어서면 또 한고비, 시련과 불행은 용녀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기동같이 밟고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의 전사, 게다가 담벽처럼 뒤를 받쳐주던 세포위원장의 희생, 원수놈들에 의한 사랑하는 딸 명희의 살해 그리고 간고한 투쟁끝에 제작한 첫 수류탄 생산에서의 대량적인 오작사고…참으로 한 녀인의 작은 가슴으로 새기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가혹한 재난이었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 슬픔을 이겨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타당성있고 설득력있게 형상한것은 장편소설이 거둔 중요한 예술적성과의 한 측면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수령과 전사사이의 혈연적 관계의 숭고성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주인공 용녀를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닌 참다운 당원의 모습으로 더욱 부각시켰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된다.

주인공 용녀는 자기의 운명이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다는것을 깨닫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과 생사고락을 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다.

용녀를 비롯한 당원들은 개인의 행복과 영예에 사회정치적생명을 올려놓았으며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단순히 령도자와 령도를 받는 대중의 관계로만 리해한것이 아니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련결된 혈연적관계로 체득하였다.

용녀는 이 숭고한 관계를 자신의 생활체험과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한것이였다.

해방전에 머슴살이, 품팔이, 고용로동에 시달리며 모진 천대와 멸시속에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용녀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인간의 참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서른두살에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 혁명투쟁의 진리를 지식으로 체계화하여 인생의 참다운 보람이 어디

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신 장군님, 해방직후 신의 주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남편과 강태수아바이를 친히 부르시여 공장복구의 길을 깨우쳐주시었고 지난 겨울 내화벽돌을 싣고올 때에는 자신께서 먼저 건느셔야 할 다리로 자기들의 자동차를 먼저 건너가도록 해주신 장군님,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고 힘겨운 좌절감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던 그러한 때에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수 있는 힘을 주신 장군님.

용녀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은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시고 자신을 키워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그의 참다운 성장의 요람이며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를 견결한 혁명가, 당원으로 키운 자양분이였으며 상상할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낳게 한 원천이고 신념의 넋을 키워준 토양이였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과 용녀를 비롯한 로동계급의 관계는 단순한 조직적관계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육친의 정,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관계인것이다.

주인공과 수령님사이에는 조직사상적결합만이 아니라 거기에 친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 같은 혈연적관계, 정신도덕적관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끊을수 없는 혈맥을 이루고있다.

주인공 용녀가 체현하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은 수령과 자기와의 관계를 단지 령도자와 대중의 관계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동지, 친혈육인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로 느끼는 사상감정인것이다.

때문에 용녀는 수령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르고 모시고 받드는것처럼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효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효성은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 된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변함과 가식이 없이 모든것을 다 바쳐 수령의 은덕에 보답해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발현이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녀는 수령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체질적인 것으로 몸에 폭 배였고 매일매일의 사업과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높이 발현되였던것이다.

그는 수류탄을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았으며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온갖 고통과 불행도 생산과

정에 부딪친 수다한 난관과 시련도 곳곳이 이겨내면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충실성과 효성을 지닌 인간전형을 창조한데 이 장편소설이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 성과가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에서 중요한것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체현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의 혁명적 료리와 도덕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감명깊게 그리는것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적집단에서만 제기되는 공산주의적도덕관계가 동지들사이의 관계와 가정생활, 사회공동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사람들사이의 의리와 우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날의 작품에서도 취급되었으며 그러한 작품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감명을 준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작품의 경우에도 의리나 동지애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사랑의 순수한 료리도덕과 관련되는 문제로만 취급되였다.

작가는 작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사람의 품성으로가 아니라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도덕관계를 동지들사이의 관계와 가정생활, 사회공동생활에서 단순히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거나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는것과 같은 개인적감정과 품성에 대한 문제로만 그릴것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의 성격은 바로 이렇게 형상되어야 지난 시기의 작품에서 보여준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형의 인간전형으로 될수 있다.

장편소설 《녀당원》은 우리 식 소설창작의 이러한 미학적요구를 구현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당원들과 로동계급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는 충성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주물직장 10명 당원들의 뜨거운 동지애의 관계, 극절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인 혜선이와 오금이를 위해 자신의 지성을 바쳐가는 아름다운 생활, 남편이 생명을 바쳐 구원해준 영예군인 기남이를 친동기와 같이 아끼고 당원으로 키워가는 감동적인 생활,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300리길을 걸어 공장을 찾아온 나어린 학봉이와 정식이를 위해 바쳐진 친누나의 사랑 등 참으로 눈물없는 읽을수 없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와 뜻깊은 인간관계들이 가지가지의 기쁨진 생활화쪽으로 펼쳐지고있다.

작품은 이런 인간관계의 묘사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믿음과 존중, 혁명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용녀의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은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뜨겁고 조직과 집단에 무한히 성실하고 헌신적인 주용녀의 형상을 통하여 투철한 집단주의적생활관을 지닌 인간의 아름다움을 높이 구현하고있다.

주체적인 집단주의적생활관은 자신만을 위하는 생활을 중요시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집단의 공고발전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이다.

사람은 집단주의적생활관을 가져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집단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적생활관의 확립문제는 혁명관을 세워나가는 주체형의 인간형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장편소설 《너당원》이 성과작으로 되고있는것도 그것이 조직과 집단에 대한 주인공 용녀의 투철한 자세와 조직과 집단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는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을 받고 공장으로 나온 용녀가 자기 세포의 미더운 당원들을 두고 자기에게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작은 가정의 세포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 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는 장면, 사랑하는 딸 명희를 묻는 날에도 주저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일어나 기남의 입당을 심의하는 세포총회에 참가하여 보충인으로서 토론하는 용녀의 모습, 어머니로서는 오늘이 슬픈날이지만 당원으로서는 기쁜날이라고, 집에서는 식구 한명을 잃었지만 당세포에는 식구 한명이 더 늘었으니 딸은 없지만 투쟁의 한길에서 함께 싸울 동지를 한명 얻었다고 눈물겨웁게 말하는 용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은 더없이 큰 것이지만 조직의 성장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참다운 한 당원의 투철한 집단주의 생명관, 조직과 집단에 대한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보게 된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집단주의생명관을 체현하고있는 용녀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혁명적 료리와 도덕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부각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 면모를 갖추게 된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생활과 밀착된 인간심리를 간결하고 섬세하게 깊이 그려냄으로써 성격형상의 진실성과 심오성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식 소설창작의 기본심리본

석방법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의 형상의 품위는 바로 생활과 밀착된 사실주의적심리묘사를 잘 살려서 성격의 전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데 있다.

사람의 심리세계는 생활과의 밀착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되 된다.

생활과의 밀착, 이것은 사람의 사상의식의 형성조건이며 표현조건이다.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형성발전도 그렇고 그의 표현도 진실하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움직이는 상태로 그려내는 심리묘사는 객관적계기와의 관계속에서 그려야만 성격의 료리, 생활의 료리에 맞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다.

장편소설 《너당원》의 주인공의 형상이 그토록 독자들을 감동시키는것은 산 개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용녀가 생활과의 관계에서 보고 느끼는 내면심리세계와 고결한 품모가 깊이있게 그려져있기때문이다.

당위원장 김형운이 《당위원회는 용녀동무에게 중요한 과업을 하나 주자고 합니다. 조형작업반 장일을 맡기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할때 너무도 뜻밖이어서 당위원장의 말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 (아니야...못해) 하면서 중대한 반장일을 자신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용녀의 심리.

기남이에게서 남편 한인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신이 어떻게 전사할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수 있나요. 장군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자던 당신이 아니였나요...전쟁이 끝난 뒤에 서로 그동안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한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자던 약속을 어데다 두고 그렇게 아주 가버렸나요 라고 하면서 억울함, 분노, 슬픔속에서 두손으로 잔디풀을 쥐어뜯으며 비오듯 눈물을 흘리는 용녀의 심중의 세계.

내화벽돌을 싣고 공장으로 가면서 《天》강 다리에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수척해지신 기색을 띠신 장군님을 우러르는 용녀의 내면심리...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설이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형상화에서 달성한 성과는 생활과 밀착되어 움직이며 발전하는 과정적인 내면세계, 개성적이며 특징적이고 감성적인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묘사한것이다.

장편소설 《너당원》이 우리 식 소설의 특징적 면모를 과시한것은 이밖에도 전형창조에서 정책적대를 바로 세웠고 생활의 주도적흐름,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을 반영한것을 비롯하여 내용과 이야기줄거리의 명백성,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에 맞는 생활묘사 등과 관련되고있다.

우리 식 소설의 혁신적면모를 훌륭히 보여준 장편소설 《너당원》은 당성단련과 혁명화의 교파서로서 계속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할것이다.

살림집에 대한 생각

리의남

나는 지금 가을걷이가 한창인 들판을 굽어보며 우뚝 솟아있는 농촌 씨리카트벽돌집 창가에 서있다.

활짝 열어젖힌 창문으로는 밝은 해살이 흘러들어 텔레비존과 윤택이 흐르는 가구들이 그췌히 놓인 넓은 방안을 어루만지듯 비쳐준다. 세칸짜리 넓은 방에 부엌과 전실, 목욕탕까지 달려있는 살림집을 보며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 집은 나의 소꿉시절 친구의 집이다. 나는 출장길에 친구네 집에 들린것이다.

옛날에는 오막살이 한칸 제집이 없어 해매이던 친구가 이런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누릴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나의 소꿉동무들중에 유별나게도 《소덕석》이라고 불리우던 몸이 체소한 친구가 있었다. 다른 동무들은 영남이, 철규 등 좋은 이름들로 불리웠으나 유독 그만은 《소덕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후에 알았지만 그에게도 아버지가 지어준 정태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 자라면서 철이 들어서야 나는 그가 《소덕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

해방전 정동무의 부모들은 지지리도 못살았다. 께지게 가난하여 입에 풀칠도 할수 없었던 그의 부모들은 지주놈에게 땅을 떼우고 오막살이 집까지 차압당하고 류량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정동무의 어머니는 임신한 몸이었다. 그래서 해산한 다음에 떠나겠다고 사정해보았으나 악착하고 린색한 지주놈은 들어주지 않았다.

할수 없이 정처없는 길을 떠난 그의 어머니는 30리도 못가서 남의 집 소외양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 알몸뚱이도 가릴것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래도 짚단보다는 나을가 하여 소덕석을 깔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자연 그는 이름대신에 《소덕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도 제것이 없어서 남의 집 소외

양간에서 소덕석을 깔고 태어난 정동무가 이런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될줄을 상상이나 했으랴.

나는 정동무와 헤어진후에 수년간 멀리 떨어져 살았으므로 그의 집에 자주 와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한번씩 출장길에 들릴 때마다 몰라보게 변모되는 친구네 집을 두고, 변모되는 생활을 두고 기쁨을 금할수 없다.

집 한채 없어 정처없는 길을 떠나 화전민들의 신음소리 처량하게 울리는 초막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소덕석》네는 해방을 맞아 조상의 무덤이 있고 자기들의 태를 끊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그들도 옥답 4천평을 분여받고 첫째 농사를 잘 지어 세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다. 그들에게 초가삼간이 차례졌을 때 온 집안식구가 춤을 추었다.

그후에 내가 정동무와 헤어져 평양에 들어가 학교에 다니다가 수년후에 이곳 친구네 집에 들렸을 때는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 때였다.

그때 그들은 초가집을 헐어버리고 그자리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었다.

나의 귀전에는 그때 정동무의 어머니가 하던 말이 쟁쟁하게 울리는듯싶다.

《수령님의 은덕은 정말 천년을 두고 갚아도 다 갚을수 없느니라. 조상대대로 초가마리에서 살며 그게 팔잔줄로만 알았더니 수령님 덕분에 이런 기와집을 쓰고 살게 되었구나. 》

그런데 지금은 그 기와집 대신에 이런 현대적인 2층집에 살게 되었다.

소외양간—초가집—기와집—현대적인 2층문화주택—이것은 마치 우리 농촌이 걸어온 아니 우리 조국이 걸어온 력사의 상징처럼 생각되어 나는 그 어떤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들었다.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창가에서 눈길을 떼고 고개를 돌렸다.

학교에 갔던 정동무의 막내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들었다.

《큰아버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

금희는 생긱 웃으며 책상우에 가방을 놓고는

옷방에 올라가 전축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은은한 음악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금희도 나도 음악의 세계에 서서히 끌려들어갔다.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똥똥 뜨는것만 같애요.》

금희는 방실거리는 웃음을 입가에 띄운채 한마디 하고는 소리를 내어 노래를 따라불렀다.

나는 생각깊은 눈길로 금희를 바라보았다.

구름 한점 없이 밝게 웃는 저 모습,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라온 저 금희같은 새 세대들이 어찌 부모들이 겪어온 지난날을 알 수 있으랴. 금희도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긴 탓에 피눈물 뿌리며 좋은 이름을 두고도 《소덕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온 아버지의 지난날을 모르고있으리라.

이때 정동무가 소리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전축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있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띠어보노라니 나의 눈굽도 찡하게 달아올랐다. 친구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기때문이다.

소외양간에서 고고성을 터쳤던 그가 당의 품속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리병원 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옛날 지주놈도 생각할수 없었던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으니 오늘의 이 행복을 두고 눈시울을 적실만도 했다 .

이 모든 행복은 참말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의 결과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짓눌리고 천대받던 수난의 그 나날엔 나라도 제 나라고 땅도 제 땅이었건만 죽어서 누울곳 없고 살아서도 밭불일 땅이 없어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이 아니었던가. 하여 강산에 울리는것은 신음소리뿐이요, 흐르는건 눈물뿐이었다.

그러나 만경대고향집에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라 조국광복의 새 아침이 밝아온후에야 희망찬란한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보게 되었고 우리 인민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민으로 되었다. 하여 우리 조국의 이름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얼마나 긍지높이 불리우는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이것은 정녕 조선민족의 긍지, 조선인민의 영광이다.

생각할수록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행복과 자랑이 가슴속깊이 끓어오른다.

나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노을이 곱게 비낀 풍요한 들판우에 벼수확기의 동음이 교향악처럼 정다웁게 메아리친다.

시누런 벼이삭을 무겁게 드리우고 일매지게 펼쳐진 그 사이길로 아이들이 붉은넥타이를 휘날리며 돌아오고있다.

펼쳐진 모든 풍경이 한쪽의 수채화처럼 안겨온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진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풍경이었다.

이렇듯 행복이 샘처럼 넘쳐나는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나를 주면 열을 더 주고싶어하는 친부모의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 이 평양시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 그 건설을 지도하고계신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해야 할 건설이 또 얼마나 많이 제기되고있는가. 하건만 인민의 복리증진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은 다른 모든 건설을 뒤로 미루면서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앞자리에 놓으시고 그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창공높이 치솟은 광복거리, 창광거리 다층살림집들과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있는 통일거리의 살림집 그리고 우리 문화농촌의 여기저기에 우뚝 우뚝 솟아나는 씨리카트벽돌집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 행복의 상징처럼 안겨오며 한없이 가슴부풀어오른다.

나의 생각을 더해주듯 깊은 사색속에 울려가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절정에 달해서 별가득 울려퍼지는듯싶었다.

시초

높은곳으로

리동후

오늘도 함께 계시여라

채굴계단 굽이굽이
층계우에 또 층계
철산봉에 오르던 내 발걸음
후더워오는 가슴 진정할길 없어
문득 멈춰서노라

정녕 무심히 걸을수 없어
내 앞길 정히 살피노라면
오늘도 눈앞에 어려와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소 오르셨던
그날의 성스러운 그 자욱자욱...

어려와라
바람결에 옷자락 날리시며
밝은 해빛 누리에 뿌리시며
무변광대한 쇠돌기 지 굽어보시던
그이의 거룩한 영상

천년을 만년을 캐여내도
끝도 넓이도 밀창을 모르는 철의 보물고
여기가 공업의 생명선!
쇠돌을 더 많이 캐여내자고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그이의 손길이어

그날에 받아안았어라

몸이 다부진 과묵한 로인
반백이 서려도 정정한 모습
폐장깊이 빨아삼키는 담배연기에
하많은 사연을 굴실리는가

기승치는 눈보라
한여름 띄약별에

무산의 광부들은
한없는 영광 숭고한 믿음
그 믿음 철의 신념으로 새겨안고
질풍같이 내달으거니

얼마나 벅찬 숨결로 뿜어번지는 격전장인가
해종일 산정을 뒤흔드는 발파의 메아리
숲을 이룬 착정기와 회착기의 동음소리
분주히 엇갈리며 오르내리는 운광차들
락광정에 쏟아지는 쇠돌의 폭포

밝은 전망 환히 펼쳐주신
그이를 못잊어
그리움에 목메여
아침에도 한낮에도
때없이 철산봉을 바라보는 광부들

아, 우러르고 우러르면
쇠돌산마루에 그날처럼 서계시는 모습
하늘가득 안겨오는 자애로운 영상이어
그날처럼 뵈옵던 마음속에
친애하는 그이는 계시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언제나 광부들과 함께

영웅

차를 몰아 채굴계단 오르내린 길
실어나른 쇠돌은 그 얼마이랴만

-언제면 철산봉의 쇠돌을 다 실어내릴가

성실한 그 마음이 모자랐던가
아들 손자 운전수로 그꼴히 키워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언제나 시작인듯
채굴장을 바라보며 걱정을 앞세우더라

-언제면 철산봉의 쇠돌을 다 실어내릴가

아, 영웅이란
허끝으로 맹세를 앞세우지 않아라

심장속에 진심을 보석처럼 간직한
그대는 쇠돌과 운명을 하나로 이어놓았기에

삶의 밝은 빛 티없는 량심을
쇠돌에 비쳐보며 숨쉴줄 아는 사람
조국을 받드는 성재의 고임돌이 되어
우리앞을 견고있구나, 평범한 광부의 모습으로

네 먼저 다 알아

아무도 알리 없으랴
신호수처녀의 가슴속에
날마다 피어나는 그 꿈을
날마다 적어가는 작은 수첩속에
소중히 쌓여는 그 기쁨을

호각을 불며 기발을 흔들며
밟게 피어나는 네 웃음도
차관가득 실려오는 쇠돌과 함께
해종일 락광정에 부리울 때면
가슴속에 설레는 행복의 물결

빨간 수첩의 갈피마다
네 손에서 적혀지는 쇠돌의 톤수가
신문과 방송의 특보감으로 전해지고

온 광산이 떨쳐온 하루의 그 위훈
처녀야, 네 먼저 다 알아

살뜰한 정을 담아
네손에서 적혀지는 쇠돌의 톤수가
수고로운 광부들의 마음과 함께
날마다 당중앙에 기쁨으로 전해짐을
처녀야, 네 먼저 다 알아

오, 그 기쁨 그 자랑을 안고
쇠돌과 함께 꿈을 키우며
날마다 얼굴에 웃음어린 너를 보고
온 광산마을 채굴장 그 어디서나
철산봉의 꽃이라더라 사시절 피어웃는...

별무리

낮에도
밤에도
빛나는 별들이
땅우에 흐르고있으랴

나는 본다 이밤도
쇠돌을 가득 싣고
채굴계단 굽이굽이
전조등의 불빛 흐르는 운광차의 행렬

사시절 구름피는 산정에서
비 뿌리면 비에 젖고
눈내리면 눈바람 다 맞으며
억센 의지 키워온 수송전사들

미더워라, 낮과 밤 따로 없이
락광정에 와르르 쇠돌을 부리우는

그 기쁨 그 보람속에 청춘을 빛내며
보급자리를 정한 철산봉의 수리개들

운전대를 틀어친 눈앞에 안겨오리라
수송관 따라 정광은 흘러
이밤도 제철기지 용해장에
장쾌히 굽이치는 쇠물의 폭포

땅우에 흐르는 기계의 행렬
하늘가에 키를 솟구며 일떠서는
언제들과 철의 기둥
무성하는 철골의 숲

오, 그것을 안고살기에
당이 준 믿음으로 떳떳이
조국을 쇠돌로 받들어가는
척후병의 사명은 얼마나 숭고한것이라

축복하노라!
불의 바다 불빛의 바다

철의 생명선을 지켜선 충성의 별들
아, 철산봉에 흐르는 금별의 바다여!

높은곳으로!

발돋움하며 바라보아도
한가슴에 다 안을수 없구나
무산의 쇠돌바다
시작은 그 어디
끝은 또 어디바루

너를 믿어
우리 더 높이 집을 세우고
행복의 거리를 더 넓히며
하늘가에 무수한 창문을 내린다

너를 믿어
드넓은 유희장 화려한 극장들
더 많이 세우고
더 큰 유람선과 고기배를 무으려나

사회주의대건설 모든 전선에
거센 숨결과 활력을 부어주며
질풍처럼 격랑처럼

온통 뚫어버지는 채굴장

날을 따라 철산봉은 낮아져도
날을 따라 철의 산악은 높아져
여기서 담보되여라
이 땅에 솟아오르는 창조의 기념비들
락원의 거리와 리상촌의 새 모습도

아, 당은 보화의 산악을 믿고
원대한 구상을 펼치였나니
광부들의 위훈에 받들려
조국은 누리에 강대성을 자랑하며
또 얼마나 웅대한 위용을 펼칠것이나

그 기쁨 그 환희를 안고
가자, 조국이며
전변의 나래를 펼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상상봉
높은곳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집

김병두

여기서는 볼수 없구나
뜨는 해 지는 달을
여기서는 들을수 없구나
푸른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
여기 천길깊은 지하막장
《막장전투지휘부》에선

삼가 들어서노라
그러면 머리는 천정에 닿을듯
둘러보면 천연암벽이 그대로 벽이 된 집
그날처럼 나무락상엔 펼쳐져있는 도면...
그날의 사연을 간직한
조용한 방

내 여기서 더듬어보노라
꽃피는 락원
이 강산 방방곡곡
내 들리는곳 가는곳

그 많은 고장과 마을에 빛나는
우리 당의 사적이 깃든 집들을

허나 나는 아직 모르거니
석수 떨어지고 화약냄새 풍기는
여기 수천척 깊은 막장 한끝에
우리 당의 위대한 자욱 간직한
《막장전투지휘부》
세상에 하나뿐인 집

어데 있으랴
광부들이 일하는곳이면
천길만길 깊은 막장
그 어디나 함께 있는 당

그 어데 있으랴
발과소리 메아리쳐오는 막장에서
우리 나갈 길 밝혀주며

큰 걸음을 내딛게 하는 당

내 하루의 첫걸음을
불타는 결의와 함께
이앞에서 내디디면
90년대 불을 안고 사는 이 마음에
오늘도 당중앙의 지령을 받은듯
내 가슴 광맥처럼 힘이 뻗쳐라

뻗어가는 막장
깊어가는 막장
땅우에서 천리만리로 떨어진다 해도
언제나 우리 당이 앞길을 가르쳐주기에
내 가는 길 혁신으로 빛나고

내 하는 일 위훈으로 빛나올라라

아, 폭풍치는 90년대!
투쟁의 신념으로 불타는 90년대!
오늘도 작전지도우에
전번의 력사를 끝없이 펼치며
승리의 한길로 우리를 이끄는 집

세상에 하나뿐인 집
《막장전투지휘부》여!
푸른 하늘 없는 깊은 막장에 있어도
우리 당중앙이 언제나 앞길을 밝혀
너는 우리 광부들의 마음속에
해가 솟고 별이 뜨는 집이여라

우리의 길

최정용

검덕의 광부
우리 가는 길은
남이 찍은 발자욱우에
덜찍으며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지심깊이
우리 가는 길은
한치한치
우리의 땀으로 젖고
우리의 의지로 열리는 길
그 길우에 언제나 우리의 첫 자욱이 새겨지노라

그 누구도 선뜻 설수 없노라
불타는 심장이 없이는
설사 그자리에 선다해도
끝까지 갈수 없노라
자신을 바치는 그 신념이 없이는

머리우에
붉은기는 펴럭이지 않아도
승엄히 우리는 마음을 세운다
백두의 노을 비끼
성스런 그 기치앞에

그러면

불을 던고선듯
온몸은 달아오르고
심장에 피는 끓어
가슴에 메아리쳐온다
백두밀림을 흔들던 그날의 노래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침침 암반이 막아선다하라
쏟아지는 석수가 앞길을 가린다하라
그러나 우리는 주저를 모르리
멈춰서지 않으리
에돌지 않으리

그렇더라
드림없이
우리 가슴에 자리잡은 이 신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한치도 못갈 광부의 길
한생을 하루같이 가라

아, 우리는 가리
당의 부름에
천만의 발파소리로 대답하며
사회주의 기치높이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고
90년대 진군의 그 앞장에

가고 또 가리
신념으로 시작되고

신념으로 이어지는
검덕광부의 길
조선로동계급의 이 길을
위훈으로 빛내며 승리로 수놓으며
우리는 가리라 !

검덕사람들

럼우봉

수수하고 평범하더라
우리과 다름없더라
하지만 같지 않더라
한번 만나면 떨어질수 없고
한번 사귀면 잊을수 없더라

버려두면 수수한 막돌
케어내면 천금같은 쇠돌
그것이면 천길땅밑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더라

불쑥 던지는 한마디 말도
쇠돌처럼 무겁고
한번 한 언약은
쇠돌처럼 굳어 변함없더라

웃어도 쇠돌때문에 웃고
걱정을 해도 쇠돌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 마음 그 진정
언제나 잇닿아있더라
우리 당의 결심에

그러하더라
당의 결심이 삶의 전부이고
그것 없이는 광부의 보람도
아름다운 노래도 즐거운 웃음도
다 모르더라

그때문에
언제나 우리 당이 못잊어
먼저 위해주고 믿어주고
먼저 내세워주는
검덕사람들
검덕사람들

사람들이여
사랑하려거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먼 길을 가려거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라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
우리과 다름없더라
하지만 돌우보이더라
닿을수 없는
저 하늘의 별처럼 높이 빛나더라

아, 쇠돌 쇠돌
은금보화의 메부리
그 아득한 높이우에
당의 전사 그 삶이 빛나는
검덕사람들
검덕사람들

오시라 심부어로

김송남

그 누구든
금줄을 찾으시거든
오시라
심부어로

사무실에서
마을에서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거든
오시라
심부어로

갱과 갱이
마음과 마음이 잇닿은곳
검덕의 기쁨을 안아내는

쇠돌의 흐름이 시작되는곳

쇠돌이 좋아
쇠돌이 많아
광부도, 일꾼도, 가두녀인도
한마음으로 뛰며 뚫으며
지열보다 뜨겁게 굽이치는곳

물어보시라
마을길을 나서는 너인에게
인차에서 만난 선전대처녀에게
그러면 웃으며 대답하리
심부리로 간다고

들으시라
심부를 찾는 지배인의 목소리
심부에서 울려오는 당비서의 목소리
보시라
석수에 젖은 앞벽에

간데라불길로 새겨놓은 글발
-가자, 심부로 !

그 누구든
한번 심부를 찾으면
쉽게 발걸음을 뗄수 없으리
광부의 이마에 흐르는
그 더운 땀을 보지 않고서는
한덩이 버력을 나르지 않고서는

천길 막장에서도
다시 수천길
검덕의 가장 먼곳
가장 깊은곳에서
우리 땅을 가장 높이 받들줄 아는
검덕의 심장을 보게 되리

그 누구든 금팔을 찾으시거든
먼저 심부로 오시라 !

노래 춤이 태어나는곳

리금녀

내 찾아갔던 막장
뜻밖에 울리는 취주악의 선율
어느 예술단인가 물었더니
갱취주악단이라네

검덕에도 제일 큰 집
문화회관무대우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군무를 보고
평양에서 온 배우인줄 알았더니
그들모두가 광부
전차운전공들이라네

찾는곳
들리는곳
놀라웁고 황홀한
검덕은 정녕 노래의 교장
춤의 무대

천만 메부리 흔드는
발파소리
그대로 복소리되고
은돌 금돌 일며 돌고도는
부선기의 불동이
그대로 춤가락이 되는가

불수록
들을수록
힘이 나고 흥이 나
저도 모르게 따라부르는 노래
저도 모르게 뛰어드는 춤판

생활이 굶고
로동이 굶어
나날이 꽃피는 문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아름다워

산 높고 골 깊은 이고장에서
실려가고 실려가는것 광석만이더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광부의 노래
청룡산 검덕산 넘어
온 나라에 울려가거니

우리 땅의 뜻으로
노래가 솟구치고
춤이 펼쳐지는 땅
로동계급의 새 문화 꽃피나는
아, 검덕 검덕이여 !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뜨겁게 안겨주는 인상깊은 가사

— 가사 《조선의 모습》에 대하여 —

홍영길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되어 나 오는 수많은 가사들은 노래로 되어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뜨겁게 간직하게 하는 노래 《조선의 모습》 (김정훈 작사) 도 그러한 작품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선들과 함께 가사를 통하여 사상감정을 표현합니다. 깊이있고 품위있는 좋은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려면 가사를 잘 써야 합니다.》

노래가 잘되자면 가사를 잘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라고도 말하는것이다.

명가사를 쓰지 못하면 명곡이 나올수 없다.

가사 《조선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 심오한 사상정서적내용으로 하여 명가사로서의 품격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모습》하면 그것은 많은것을 련상케 한다. 그러나 가사에서는 조선의 모습 가운데서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오직 주체조선에만 고유한 모습, 다시말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치여 하나같이 오직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나가는 숭고한 품모에 초점을 두고 조선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사상정신적지향으로부터 가사는 매 절마다에서 조선의 모습이 어떻게 위력하고 자랑찬가 하는 문제를 일심단결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노래하면서 그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꽃바다로 설레이네 하나의 마음
해불되어 타오르네 하나의 신념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아 영원하리

여기에서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은 당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신념으로 굳게 뭉쳐있는것을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계속하여 가사는 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해도 당의 사상과 신념대로 말하고 또 걸음을 걸어도 오직 당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한결음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사상과 의지도, 생각과 행동도 당과 함께 하는 여기에 일심단결의 조선의 모습이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

천만사람 말을 해도 한목소리요
천만 대오 걸어가도 한결음일세
(후렴)

...

가사는 이처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신념, 한목소리, 한결음새에 형상적초점을 두고 조선의 모습을 선명히 부각하면서 이 일심단결로 거연히 솟아 찬연히 빛나는 조선의 모습은 그 어떤 모진 광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할것이라는것을 3절에서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없고
우리 세대 바뀌어도 변함없으리
(후렴)

...

여기에는 일심단결의 공고성, 일심단결의 조선의 모습의 영원함에 대한 확신이 자랑차게 울리고 있다.

참으로 가사에서 노래되고있는바와 같이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이며 조선의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인민은 그 얼마나 피눈물나는 생활을 해왔으며 망국노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왔던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

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위용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부럽지 않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궁지높고 자랑높은 인민으로 되게 되었다.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이 궁지와 자랑을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가사의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더욱 뜨겁게, 더 절절하게 새겨지는것은 그 바탕에 이러한 깊고 넓은 뜻이 웅심깊게 간직되어있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가사 《조선의 모습》의 사상정서적 내용의 심오성이 있으며 이 가사가 옳으면 옳을수록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간직하게 하는 명가사로 되게 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가사는 또한 심오한 사상정서적내용을 담을수 있게 시적계기를 옹계 탐구하고 그것을 생동한 시형상으로 구현함으로써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여주었다.

시를 창작하는데서 시적계기를 어떻게 찾아주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몇줄 안되는 짧은 가사에서 시인이 말하자고 하는 문제를 옹계 보여주자면 그 계기를 잘 찾아야 한다.

이 가사에서 시인은 일심단결에서 시적계기를 찾아주고 그것을 우리 인민의 마음과 신념, 말과 걸음새를 통하여 집약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나라 조선이 얼마나 위력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빛나는가 하는 문제에 긴 설명없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적으로 명백하게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었다.

사실 하나의 가사에서 조선의 모습을 다 노래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용이나 제도의 우월성을 통하여 노래할수도 있고 산천경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노래할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가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가사에서 조선의 모습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며 기본으로 되는 모습, 다시 말하여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거기에서 조선의 모습을 노래하려는 의도밑에 그에 기초하여 참신한 시적계기를 찾아냄으로써 그 어떤 대상을 통하여 노래하는것보다 조선의 모습을 더 위대하게, 더 빛나게, 더 자랑차게 노래할수 있었다.

이처럼 시인이 시적계기를 바로 찾아냄으로써 가사는 철학성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강한 여운을 남겨줄수 있게 되었다.

가사는 또한 일심단결의 조선의 모습을 노래하

는데 적중한 표현과 간결하고 평이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들을 잘 골라쓰고 반복법을 비롯한 형상 수법을 옹계 리용하였다.

가사에는 《하나》, 《한》, 《일심단결》, 《당을 따르는》, 《오직 한길에》, 《영원하리》와 같은 시어들과 표현들이 비교적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언제나 흔히 듣고 말하는 쉽고 평이한 시어들과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모습을 부각하는데로 지향된것으로 하여 조선의 모습을 더욱 생동하게 드러내면서 가사의 내용을 쉽게 리해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가사는 반복수법을 쓰는데서도 긍정점을 시사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매 절마다 후렴을 똑같이 반복해 쓰고있는것이 특징이다.

흔히 같은 말의 반복은 내용의 심화를 악화시키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할수 있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이 가사에서는 매 절마다에서 후렴구를 똑같이 반복해 쓰고있지만 전혀 단순한 반복이라는 감이나 지루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절이 거듭될수록 더욱 의미깊게, 힘있게 안겨온다.

그것은 발전적으로 절의 내용을 강조해주는데 이바지하는데도 있겠지만 보다는 그 후렴구자체가 일심단결의 위력이 뜨겁게 느껴지게끔 시적으로 잘 형상되어 씌여진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여기서도 《일심단결》이라는 말은 거듭 반복되고 《우리의 모습》, 《조선의 모습》이라는 뜻이 같고 내용이 같은 비슷한 말이 또 반복되지만 이러한 언어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강조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의미깊게 안겨온다.

가사에서는 이처럼 반복수법을 효과적으로 씌으로써 조선의 모습을 생동하게 드러내는데서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사를 쉽게 암기하도록 하는데서도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었다.

가사의 운률은 비교적 힘차게 그리고 흥취있게 흐르게 조성됨으로써 옹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신심, 궁지와 락관을 간직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가사 《조선의 모습》은 당을 따르는 그 길에서 오직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과 의지를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오늘날뿐아니라 먼 후날에도 인민들의 사랑속에 격조높은 선률과 더불어 널리 불리워지며 영원히 기억될것이다.

《자력갱생》호 승강기앞에서

윤승홍

날마다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길에 오를 때마다 나는 계단식승강기앞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그것은 내가 지상역과 지하역을 련결시켜주는 계단식승강기를 만든 로동자라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앞머리에 새겨져있는 《자력갱생》호라는 자호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벽찬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주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의 네번째해인 올해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세월은 멀리 흘러갔지만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오늘, 나에게는 지난날에 대한 감회도 깊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많다.

내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건설기계공장(오늘의 승강기공장)에 입직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대고조운동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 꺾쇠와 접철따위를 만들던 우리 공장에서는 그즈음에 이르러 권양기와 기초기중기를 제작하였고 또 그로부터 몇해후에는 탑식기중기와 문형기중기를 비롯한 비교적 복잡한 건설기계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때에는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도 없었고 기술과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자재도 변변치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에 새로운 생산지표가 하

달되였다.

그것은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건설하게 될 지하철도용 계단식승강기를 한번 대담하게 만들어볼데 대한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울렁이게 하는 전투과업이였다.

공장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문의의 기본초점은 자체의 힘으로 계단식승강기를 만들수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은 해볼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우리가 언제 편안히 앉아서 조건이 주어져야 일을 했는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빈터우에서 절단기와 완곡기를 맨손으로 만들어 썼고 우리 힘으로 기중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은 무엇이나 다 만들수 있다는것이 우리 로동자들의 각오였고 결심이였으며 신념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안의 일꾼들속에는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생산과에 있던 《번대머리기사》는 계단식승강기를 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것을 만들겠다니 코웃음이 저절로 난다고 하면서 자기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갔다가 지하철전동차를 타보았노라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 로동계급은 동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수록 더욱 꺾끗하게 맞받아치며 나아갔다.

어느날 제관직장의 한 로동자가 산소용접기로 계단식승강기의 부속품인 사슬판을 따내고있었다.

마침 그때 기술지도를 한답시고 현장에 나와 돌아치던 그 《번대머리기사》가 무엇을 하는가고

물었다.

평소에 그를 아니꼽게 보아오던 그 노동자는 돌아앉으며 사슬판을 따낸다고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순간 《번대머리기사》는 양천대소하였다.

제관직장 노동자는 저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상 이 왔는가 하여 의아한 눈길로 뒤돌아보았다.

제멋에 한참 웃고난 《기사》는 노동자들이란 무 식해서 별수 없다느니, 미웁하게 일한다느니 하 고 씨벌이다가 작업을 중지하라고 제법 호통쳤다.

더는 참을수 없었던 그 노동자는 자기도 모 르게 산소용접기를 휘두르며 어서 물러가라고 작업 장밖으로 내쫓았다. 그바람에 몇오리 남아있던 기사의 앞머리카락이 뜨거운 열기에 노랗게 지저지 면서 콧수룩하게 오그라들었다.

그결에 모여섰던 노동자들이 기술신비주의가 또 하나 녹아난다고 하면서 통쾌하게 웃었다.

후에 그 노동자는 기사의 머리를 《파마》하여 주었다고 비판은 좀 받았지만 끝내 계단식승강기 의 사슬판을 만들어냄으로써 숙보에 크게 소개되 었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계급의 억센 무쇠주먹으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맞받아치며 다섯아름이 넘 는 전동부의 대치차를 깎아내였고 굴곡부와 련결 부도 제작해내었다.

공장구내 한복판에 첫 계단식승강기를 일떠세 유을 때의 그 환희, 그 기쁨을 어디에 비길수 있 었으랴. 물론 제작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었 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다.

일할수록 새힘이 솟구치였다.

당이 안겨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중에 주저앉을수도 있었고 일감을 췌버 릴수도 있었다.

자력갱생 !

이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면 그 무 엇도 두려울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와 지향을 담아 계단식승강기에 《자력갱생》호라는 자호를 달아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 《혁신》, 《전진》으 로 부르자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자력갱생》이 제 일 좋았다.

나는 첫 계단식승강기를 만든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을 시행에 담아 서정시 《자력갱생 앞으로》를 창작하여 《로동자신문》편집부에 보냈다.

그 작품은 곧 발표되었다.

이렇게 우리 노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 려운 나날로부터 자력갱생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 어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자체로 만든 기계설비들의 자호 대부분이 《자력갱생》호 였다.

절단기도 《자력갱생》호라 불렀고 완곡기도, 기 중기도 《자력갱생》호라고 불렀다.

그래도 좋았다. 자력갱생 ! —부름수록 새힘이 솟구치고 대담성과 담력이 커졌다.

오늘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증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것을 뜨겁게 호소하 고있다.

그럴 때마다 첫 계단식승강기를 만들던 그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거니, 사람들이여, 《자력갱생》호라는 자호를 새겨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 는 나를 탓하지 마시라.

그리고 당신들도 계단식승강기를 무심히 타지 마시라.

그대들이 딛고선 승강기의 발판밑에는 천리마 대고조시기에 자력갱생의 힘으로 일떠세운 산악 같은 기계들이 놓여있다 !

옛말처럼

리화

과연 손꼽아기다리는 그날은 그 언제일가, 아무리 꿈같은 일이라고 해도 밤이 지새면 날이 밝아오듯이 조국통일은 어기지 않고 찾아오고야말 사변이어서 눈앞에 그려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진다.

정녕 그날에는 이 사실을 옛말처럼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얼마전에 나의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전고미문의 《비상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다.

이른봄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아침해가 퍼질 무렵에 전정가위를 들고 트랙으로 나섰다. 봄물이 오르기전에 포도넛출이며 장미꽃나무 아지자르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복데기속에 묻었던 포도넛쿨을 꺼내놓고 한창 헛아지를 잘라내고있는데 대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열려진 문으로 중년의 낯선 녀인이 조심스레 들어섰다.

《이 집이 리창규작가선생님댁인가요?》

《예, 제가 리창규입니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의아한 기색으로 응대했다.

《안녕하세요.》

녀인은 러행용가방을 두손으로 모아잡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나는 두눈을 습벽이며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분인지요.》

《함주읍에서 왔습니다.》

《함경도에서요?》

《예.》

놀람에 앞서 심각한 기색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녀인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동해바다에서 서해기슭까지 나라의 동서를 가로질러 찾아온것이 아닌가.

빨래줄에 옷가지들을 널고있던 안해도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녀손님과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먼데서 오셨군요. 들어오십시오.》

나는 손님을 옷방으로 안내했다.

《어서 앉으십시오.》

나는 녀손님에게 옆에 놓인 안락의자를 권했다. 그리고는 그의 맞은켠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공손히 서있던 녀손님은 가방을 한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안락의자에 앉았다.

《저는 함주군 인민병원 내과 의사 원정임이라고 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고 나직이 물었다.

《혹시 원영구라는 분을 기억하고계시는지요?》

(원영구라.)

금시 정다운 추억을 불러낼듯 그렇게도 귀에 익은 이름이었으나 잡힐듯말듯하면서도 좀체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미간을 쪼프리며 갑자르는 나를 민망스레 바라보던 녀손님이 똥겨주듯 말했다.

《50년 전략적후퇴시기 압록강변에서 만났던 X야전병원.》

그 말에 두눈이 번쩍 띄어졌다.

《아, 생각납니다. 생각나구말구요. 그 야전병원의 원장이 원영구선생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찌 그렇지 않겠나요. 40년이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하기야 그렇긴 합니다만.》

나는 말꼬리를 흐리마리해버렸다. 그리고는 황급히 물었다.

《그런데 동무는?》

《제 그 원영구원장의 딸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원정임의 자태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눈가장자리에 가늘게 잡힌 잔주름이며 입언저리에 감도는 따뜻한 미소는 잊혀진지 오랜 친근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듯하였다.

나는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며 물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자 내심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보이군 하는 정임의 동실한 얼굴에 헤아릴길 없는 슬픔의 빛이 진하게 어리는것이였다.

《아버지는 53년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셨는가?!》

나는 갈린 음성으로 뇌이며 창문너머 푸른 하늘이 아득히 띄어있는 망망한 공간을 이윽토록 응시했다.

《내가 동무의 아버지를 만난것은 50년 마가을이였습니다.》

나는 건잡을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었다.

...열네살에 마을사람들을 따라 별의별 고생을 다하며 만포군 별오리에 다달은 나는 이른아침, 압록강여울목이 발아래에 내려다보이는 강변에 맥없이 주저앉아있었다. 같이 온 마을사람들은 별오리인민위원회 마당에서 새로 조직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나를 말아 안고 난색을 짓던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당도한 인민군대들에게 숙소를 정해주려고 달려나가다가 나더러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자기 집을 가리키며 우선 거기에 가서 아침밥을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나는 낯선 집에 혼자 가고싶지 않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다가 물소리에 이끌려 주춤 주춤 강변으로 나왔다.

한마을사람들과 섭쓸려 후퇴의 길을 걸을 때는 몰랐으나 혼자 낯선고장에 툭 떨어지고보니 외롭고 쓸쓸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또한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와 귀여운 동생들 생각을 하니 허전한 마음을 달래일길이 없었다.

《이애. 》

누군가가 등뒤에서 석핍하면서도 은근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린 동무 어디서 왔나?》

목소리의 임자는 재차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마도 등에 훌쭉한 배낭을 지고 몸에 허줄한 양복을 걸친채 강변에 홀로 앉아있는 나의 색다른 모습에는 지나가는 길손으로 하여금 그저 지나칠수 없게 한 그 무엇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나 역시 고향을 떠나 갓 후퇴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때마다 프랑프랑하듯 목소리로 선듯 응대했고 그들이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하곤했다. 그러나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끄러울정도로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덴가고 자꾸 말을 걸어오게 되자 일일이 응대하는데 역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는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도 못들은척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쌀쌀하게 응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의 길손은 나의 침묵을 무심히 스쳐 보낼 잡도리가 아니었다. 자갈밭은 소리를 내며 등뒤에까지 바투 다가온 그 사람은 나의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너 먼데서 온 애로구나. 이름이 뭐냐. 》

그제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돌린 나는 눈앞에

중좌 견장을 단 보통키에 얼굴이 둥그스레한 인민군군관이 서있는것을 알아보았다. 나는 황급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일사하고 대답했다.

《경기도 강화군에서 왔어요. 》

《강화도란 섬말이냐?》

《예. 》

《헛참, 그런데 같이온 사람들은 어데 갔느냐?》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중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의 팔목을 잡으며 말했다.

《용감한 소년이구나. 나하구 같이 가자. 》

나는 말없이 그를 따라섰다. 강역에 자리잡고 있는 동기와를 이은 집으로 들어선 중좌는 나를 혼 혼한 아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히더니 사이문을 열고 부엌에서 서성거리는 주인집어머니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조밥 한그릇 무독히 떠주슈. 글썽 이애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강화도라는 섬에서 왔는지 않습니까. 》

《에그머니나, 서울 가까운데서요?》

주인집어머니는 사이문으로 나를 넘겨다보고 혀를 끝끝 찼다.

《그 먼데서 여기까지, 오죽이나 고생을 많이 했겐. 》

잠간사이에 네다리소반에 간소하게 차린 조반이 들어왔다. 중좌가 조반을 받아서 놓아주며 말했다.

《어서 먹어라. 우린 다 먹었다. 》

소반우에는 무독히 담은 조밥 한그릇과 두부지 지개종발이며 구수한 시래기국이 놓여있었다. ... 그 중좌가 바로 X야전병원 원장이였다. 그는 그 어디에도 의탁할곳 없는 나의 딱한 처지를 헤아리고는 당분간 자기와 함께 있을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원영구원장의 편제없는 《련락병》이 되였다.

나에게는 특별히 정해진 임무가 따로 없었다. 원장의 명령을 받고 골짜기의 농가들에 분속해있는 각 병동들에 련락을 다니기도 하고 문화부원장이 주변마을들에 주둔하고있는 병동들에 전달하라는 대내신문인 《승리를 위하여》를 날라다주기도 했다. 너군의들이 나에게 차례진 군복의 팔소매와 바지가랭이를 몸에 맞게 줄여서 입혀주었다.

그러나 나는 야전병원사업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침착하지 못한 나는 언젠가 침대모서리에 올려놓은 문화부원장의 안경우에 덜쩍 올라앉는바람에 부원장의 《눈》을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지휘성원들이 목욕

을 하는동안 원장의 시계를 팔목에 차고있다가 차례를 기다려내지 못하고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목욕탕에 뛰어들었다. 한참 점병거리며 목욕을 하다가 원장이 소리쳐서야 살펴보니 팔목에 시계를 찬채 자맥질을 하고있지 않는가. 게다가 시계 문자판에는 물이 들어가있었다.

그럴 때마다 원장은 그만 《허허, 군복을 입긴 했지만 아이야 아이라니까.》 하며 나의 불편을 가볍게 쥐여흔들었다. 《아마 넌 우리하구보다 저 트랙에서 제기를 차는 아이들하구 놀고싶겠지.》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밤깊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라디오에서는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전진하면서도 맑고 고운 소년들의 노래소리를 조용히 듣고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고향에 두고온 동생들 생각이 났다. 옆에 누워있던 원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넋지시 묻는것이였다.

《무슨 생각을 하니?》

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했다.

《동생들 생각이 나요.》

나의 목소리는 애절한 갈망에 젖어버렸다.

《왜 그러지 않겠니.》

원장은 생각에 잠겨 웅대하며 나의 손을 꼭잡아 주었다. 나는 일어나 앉아서 어른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인민군대가 강화도를 해방하기전에 우리는 리승만피괴경찰놈들에게 집을 차압당하고 온 집안식구가 맨몸으로 거리바닥에 쫓겨났다. 5.10단선반대투쟁의 주모자라고 나의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처넣은 후에도 어머니가 남편의 친구들을 숨겨주고 먹여주었다고 하여 잡아다가 고문을 하던끝에 집까지 빼앗은것이다. 할수 없이 나의 어머니와 아래 남동생 하나는 친할머니네 집으로 가고 그밑의 두 남동생은 김포에 있는 외할머니네 집으로 보내고 나는 소학교 잡부로 들어갔다.

몇달후에 나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오리쫄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초가집을 한채 얻었다. 어머니와 내 아래동생도 데려왔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외할머니네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려고 학교에서 며칠간의 말미를 얻었다. 한집안식구가 여기저기 찢기여 사느니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죽을 먹어도 다 함께 먹으며 사는게 낫다고 여겼던것이다.

외할머니네 집으로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따라나서며 목메여 말했다.

《아야, 내 온밤 궁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둘다 데려오면 안되겠구나. 방은 암만 비좁아두 외루바루 누워잘수 있겠지만 무얼루 먹여 살리겠니,

셋째만 데려오구 막냉이는 당분간 거기 놔둬라.》

《둘중에서 어떻게 하나만 데려오겠나요?》

나는 비둘기처럼 쌍지어 지내던 두 동생중에서 하나만 빼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저려나 도리머리를 쳤다. 그러나 눈물이 글썽하여 더는 말을 건너지 못하는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아무소리 못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길을 떠났다.

나루배를 타고 김포로 건너간 나는 한낮에야 외할머니네 집에 들어섰다. 금시 점심상을 물리고난 방안에 빈술가락을 듣고 앉아있던 셋째와 막냉이는 어째서인지 나를 보자 와락 가슴에 안겨 흐느끼며 눈물을 팔팔 흘리는것이였다.

외삼촌도 천정을 울려다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울망줄망 둘러앉아 까만 눈들을 삼박거리느 조카애들도 까닭없이 울먹거리고있었다. 제자식들의 작은 배도 채워주지 못해 끼때마다 눈물을 머금은 외삼촌이였지만 거기에 외조카들까지 얹혀 지내는데 대하여 지청구 한마디 내비치지 않고있었다.

쌀알을 세여먹다싶이하는 외가에서 식술을 하나 덜어내려고 왔건만 우선 끼때가 되어 밥상에다가 앉아야 하는것이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뒤산에 올라가 돌썰에 박힌 발그우리한 싱아를 꺾어주기도 하고 계루기를 캐여 샘물에 씻어서 쥐여주기도 했다. 그리고는 가시에 찢리면서도 만문한 찢레순을 꺾어 동생들의 입에 물려주었다. 이것이 내가 애처롭기 그지없는 동생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새벽잠에 외가를 떠나기로 작정한 셋째를 굴뚝목으로 불러내어 밤중에 깨우거들랑 숨소리도 내지 말고 기척없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 일렀다. 그러나 철들기전부터 눈치밥을 먹은 막냉이가 무슨 기미를 짐새했는지 내결으로 바싹 다가붙으며 애절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형, 나두 데려가지?》

《으응?!》

나는 막내의 눈길을 피하며 어정쩡하게 응대했다.

《난 다 알아, 형은 나 쿨쿨 잘 때 혼자 갈려구 그러지. 난 자지 않을래.》

무엇이라고 응대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슬며시 시선을 돌렸다. 금시 눈물을 보일것만 같았다. 그 애는 아직 저희 둘중에서 셋째만 데려가려고 한다는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한몸을 찢어발긴다 해도 형제를 갈라놓는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플것 같지는 않았다. 차라리 집안사정을 터놓고 말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무슨 말로 여섯살밖에 나지 않은 막냉이를 설복시킬수 있겠는가. 설사 어머니와 형들이 있

는곳에 따라오면 굶어죽는다고까지 말해도 막내는 막무가내로 머리를 가로저을것이다.

내 팔소매를 꼭 그러안고 두눈이 초롱초롱하여 재깁거리던 막내도 소르르 잠들어버리고 사위는 쥐죽은듯이 피곤했다. 잠뜰 잠귀신한테 흘렸던 나는 가볍게 어깨를 다치는 감촉을 받고 와풀 놀라며 일어나 앉았다. 외할머니가 속살거리듯이 말했다. 《서둘러라, 아침 나루배 놓칠라.》

어느새 셋째도 일어나 앉아있었다. 그 애는 벌써 옷까지 입고 손에는 자그마한 보통이를 들고 있었다. 나는 옷을 입은채 새우같이 꼬부리고 누워 썩썩 자고있는 막내이를 측은한 눈길로 내려다보고는 살그머니 일어나 방문을 가만히 열었다. 신발을 어루듬어 신고 토방을 내려서는데 방에서 막내이가 화닥닥 놀라며 일어나는 소리가 나더니 《형아!》 하고 목메여 부르는 소리와 함께 방문을 떠밀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아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요동치는 막내이를 불안은 외삼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빨리 가지 못하겠니?》

하지만 나는 와락 달려가 무작정 막내이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싶었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사정없이 나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떠나거라, 어서-》

나는 흑흑 흐느껴우는 셋째의 손을 으스스하게 부여잡고 허둥지둥 마당을 벗어났다.

《형아-형아》

외삼촌의 품에서 벗어난 막내이가 내달아오다 어꾸러져 우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어떻게 걸음을 내짚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등을 떠밀치는 바람결을 타고 형을 부르는 막내이의 부르짖음은 선창에 이르도록 귀전에서 왕왕 울리었다.

기슭을 떠나는 나루배의 고물에 앉은 나는 목메여 속삭였다.

《막내야, 내 인차 널 꼭 데리러 오겠다.》

그러나 인민군대에 의하여 강화도가 해방된후에도 나는 막내이를 인차 데려오지 못했다. 비행기폭격도 멎고 전쟁이 끝나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막내이를 데려오리라 걱정했지만 나는 끝내 막내 동생을 외할머니네 집에서 찾아오지 못한채 후퇴의 길에 나서고말았던것이다.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목메여 형을 부르던 동생의 목소리가 귀전에 왕왕 울려오는것만 같아요.》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마치자 원장은 나를 꼭 그러안으며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말아, 너희 형제들이 다시 만나 더는 갈라 지지 않고 살게 될 날이 꼭 온다.》...

(한데 그렇게도 다심하고 인정깊던 원장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다니.)

《전쟁기간에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동무의 아버지는 나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분이였습니다.》

나는 숙연한 빛을 띠우고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마쳤다.

시원한 인상을 주는 원정임의 큰 눈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가는 소리없이 흘러내리었다. 정임은 옆자리에 내려놓은 러행용가방을 한손으로 쓸어만지며 그 어떤 요긴한 말을 꺼내기라도 하려는듯 두눈을 내리깔았다. 이때 사이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안해가 차주전차를 다반우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인사하오.》

나는 정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언젠가 전쟁때 한 야전병원에 머물러있었다는 말을 한적이 있지 않소. 이 동무가 그때 나를 보살펴준 그 원영구원장선생님의 따님이라고.》

《그래요?!》

안해는 반색을 지으며 정임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다반을 내려놓고 고뿌에 결명차차를 붓는다.

《먼길에 수고했겠어요. 더운 차를 들면서 이야기들 하세요.》

안해는 친절하게 레의를 표시하나 내 언젠가 들려준 말은 기억조차 하고있지 않은게 분명했다.

《그럼 전.》

안해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가봐 저어하듯 정임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살그머니 몸을 일으키었다. 차고뿌를 들고 따끈한 차를 조금씩 마시며 바닥을 낸 그는 아무 말없이 한옆에 내려놓은 러행용가방의 자크를 열더니 그 안에서 자그마한 꽃보자기를 꺼내는것이였다.

나는 정임이 몹시 바재이다가 내놓는 그 꾸레미에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는것을 감촉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심스레 꽃보를 풀었다. 그러자 색이 바랜 광목천에 정히 싼 꾸레미 하나가 드러났다. 삭아서 미여진 모서리사이로는 누르스름한 공책같은것이 엿보이였다. 원정임은 그 꾸레미를 두손으로 정히 받쳐 들고 눈물이 글썽하여 나를 쳐다보는것이였다.

《이 꾸레미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예?!》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하여 류달리 큰 정임의 그윽한 눈을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심장이 세

차게 뛰는것을 감축했지만 그것이 나의 추억속에서조차 아득히 사라지고있던 꾸레미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정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보통이의 밑귀를 들어보아였다. 거기에는 희미하긴 하나 붓으로 쓴 먹글이 새겨져있었다. 분명히 그 누런 광목천우에는 나의 외가집주소와 동생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그밑에는 X혁명학원 아무개 라는 나의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꾸레미를 받아쥐었다.

《어떻게 되어 이 꾸레미가 동무한테?》

《아아보셨군요. 》 .

젖은 음성으로 뇌이는 정임의 눈에 눈물이 펴하니 어리었다. 나는 뜨거운 마음을 견잡지 못하며 천매듭을 풀고 보통이를 헤쳤다. 그러자 색이 누렇게 바랜, 전쟁때 소비조합상점에서 팔던 인민학교용 공책 스무나문권과 낡은 신문지에 찢연필 한타스가 나졌다. 아, 세상에 이런 변이 어데 있단말인가.

나는 그것들이 뜨거운 불덩이이거나 한듯이 손으로 만질념을 내지 못하고 열없이 정임을 바라보기만 했다. ...

눈꽃이 펄펄 날리는 50년 초겨울 어느날이었다. 내가 갓 입학하여 공부를 하는 X학원에 원영구 원장이 찾아왔다. 나는 보름전에 원장과 헤어져 야전병원에서 멀지 않은곳에 자리잡고있는 이 학원에 와있게 되었던것이다.

원영구원장은 병원에서 해입힌 줄인 군복을 그대로 입고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곧 전선으로 떠난다. 》

원장은 꼬마련락병을 잊지 않고 작별인사를 하자고 찾아온것이였다. 나는 원장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간청하듯이 말했다.

《원장선생님, 나두 따라갈래요. 예?! 》

전선은 이미 38선을 가까이하고있었다. 거기에서 나의 고향 강화도는 었디면 코담을데다. 야전병원을 따라가면 멀지 않아 그리운 고향땅에 가닿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들먹였다. 나는 원장의 대답을 듣기전에 두눈을 번쩍이며 힘주어 부르짖었다.

《난 무조건 병원을 따라가겠어요. 》

《원, 성미가 급하기란 콩밭에 서슬치겠구나. 》

결결 웃으며 말한 원장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차근차근 타일렀다.

《우리가 어느 전선으로 가는줄 알고 따라가겠니. 그러구 지금은 후퇴시기와는 다르단다. 상부에서 미성년의 비련제련락병들을 부대에 두지 말데 대한 명령서까지 내렸다. 소년들은 마땅히 자기 소임대루 공부를 하라는거지. 그게 곧 네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지든. 》

그러나 나의 귀에는 그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한달음에 고향에 가닿을 길을 눈앞에 두고도 참고 단념해야 한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듯싶었다. 하지만 그렇게도 친절하던 원장선생님의 엄엄한 얼굴을 쳐다본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더는 떼질을 써야 소용이 없으리라는것을 명확히 깨달았던것이다.

《자, 그럼 공부를 잘해라. 》

원장은 목단추를 채우며 혁띠를 조이였다. 울상이 되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원장선생님, 이제 전선에 나가시면 우리 고향에두 들릴수 있겠지요?》

나는 가슴을 조이며 원영구를 바라보았다.

《그럴수도 있지. 》

련민의 정이 어린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던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말이예요.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실래요?》

《부탁? 암들어주고말고. 》

원영구는 정색하고 힘주어 응대했다.

《잠간 기다려주세요. 》

나는 그의 대답을 받기도전에 방문을 열고 손살 같이 침실로 달려갔다. 내가 자리를 뜬 사이에 원장이 가버릴가봐 겁을 내기라도 하듯 사품함에서 새로 내준 발감개천으로 찢 자그마한 꾸레미를 꺼내 안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원장은 보꾸레미를 만져보며 물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건 말이예요. 》

나는 얼굴을 확 붉히며 말했다.

《학원에서 내준 학용품중에서 막내가한테 주려고 따로 남겨놓았던거예요. 》

《음. 》

원영구는 심각한 기색을 지었다. 그것은 정녕 천진한 소년만이 바랄수 있는 생각이였다. 전선으로 나가는 사람의 배낭에 불필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자리가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었다. 그는 그 꾸레미를 소중히 집어들며 넋지시 물었다.

《네가 쓸 학용품이 모자라지 않겠니?》

《안요, 난 쓰고도 남아요. 》

나는 큰소리로 맺고끓듯이 말했다.

《남는다구? 》

《예, 제 막내동생은 작년에 학교입학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 열 공부시키겠나요?》

눈물이 글썽하여 중얼거리는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원영구는 선듯 먹통과 붓을 달래가지고 학용품을 찢 광목천우에 나의 외할머니네 집주소

와 막내동생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성답아 써넣었다. 그리고는 힘주어 말했다.

《우리 야전병원이 꼭 김포에 들릴수 있는 전선서부로 나가겠는가 하는것도 아직 정확치 않다. 하지만 내 너의 부탁을 실행하기 위해 있는 노력을 다 하마. 》

영구원장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에게 공부를 잘하라는 당부를 몇번이고 되뇌이며 길을 떠났다.

이후 한동안 나는 불행한 막내동생이 내가 보내 준 꾸레미를 받아안고 기뻐할 생각을 하며 제 혼자 느긋한 기쁨에 젖어있곤했다. 그러나 전선이 38도선계선에 도착되자 나의 희망은 점차 식어갔다. 또한 이때로부터 나의 생활에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의의깊은 일들이 수없이 들이닥쳤던가. 이렇게 10년 또 20년 세월이 흐르자 나는 자신의 그 천진하고 어린애같은 소행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었다. 방금 원정임이 꽃보자기를 풀고 지난날 자기 손으로 꾸렸던 광목천에 쓴 꾸레미와 자기의 이름 석자를 알아보고야 비로소 생각이 났던것이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해별이 비쳐들어 어룡거리는 방바닥의 어느 한 점을 이윽도록 내려다보던 원정임은 꾸레미를 풀고 맨우에 따로놓인 공책을 집어들어 첫장을 번졌다. 거기에는 네모꼴을 새긴 공책장에 한절반 연필로 박아쓴 또박글이 차있었다. 정임은 그 공책장을 어루쓸며 가라앉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전직후였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공책이 여간만 바르지 않았지요. 어느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려고 앉은뱅이책상앞에 다가갔는데 공책이 한권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의를 갈아입으려고 농안에 있는 옷보통이를 꺼내다가 꽃보에 싸놓은 탄탄한 꾸레미를 본 생각이 났지요. 결봄에 책이나 공책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책을 헤프게 쓰니까 깊숙이 감추었다가 요긴하게 쓰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저는 농을 열고 보통이를 풀어헤쳤지요. 한데 그것은 신통히도 제가 바라던 칸살을 진 국어학습장이 아니겠어요. 기뻐어쩔줄 모르며 공책 한권을 꺼내어 숙제를 하는데 어머니가 방안으로 들어섰지요. 제가 쓰는 공책을

떠여본 어머니는 대뜸에 낫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누가 그 공책을 마음대로 꺼내 쓰라던, 우.>

어머니는 공책을 뺏들어 농안에 있는 보통이에 다시 싸두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여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누런 종이

장을 접어서 만들어준 공책을 쓰지 않겠다고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그시 입술만 깨물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농안에 깊이 간수했던 그 꾸레미를 꺼내 놓고 감회에 젖어 말하는것이였어요.

<너도 철이 들었으니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길 때가된것 같구나. 이 꾸레미는 네 아버지가 야전병원에서 돌아가시기전에 나에게 맡기면서 꼭 임자한테 전해달라고 당부하신거란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려주었다는 강화도에서 들어온 한 소년의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셨답니다.

재진격하는 부대의 뒤를 따라 남으로 나가던 아버지네 병원은 서울을 거쳐 강원도 원주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임무수행이 긴박하여 도무지 김포를 다녀올 짬을 낼수 없었습니다. 후날 여가를 타서 찾아가리라 작정했었는데 야전병원은 뜻밖에도 기동전 이후에 동부전선으로 옮겨 앉고말았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 정전을 한달 앞두고...》

이때부터 원정임은 아버지가 남긴 회중시계며 수첩 등의 유물들과 함께 그 꾸레미도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꾸레미가 아버지의 숨결을 몸가까이 느끼게 하는 귀중한 유물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무정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그의 아들딸들조차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얼마전에 그의 둘째아들이 농안에서 꽃보자기에 쓴 그것을 풀어보고는 어이없는 기색을 지으며 빈정거렸다.

《어머니두 한심해. 이런 싹아빠진 누런 공책은 건사해서 팔해요.》

그래서 그는 그 꾸레미를 또다시 펼쳐놓고 둘째 아들에게 거기에 깃든 기막힌 사연을 터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정색하고 말했다.

《그런데 이 꾸레미를 너의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분이 살아계시는것 같구나. 》

《그래요?》

둘째는 두눈을 반짝이며 원정임을 쳐다보았다. 얼마전이었다. 정임은 새로 나온 소설책을 보다가 눈에 익은 저자의 이름에 시선을 박은채 뛰노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책의 저자명이 농안에 간수하고있는 꾸레미에 씌여진 이름과 꼭 같았던것이다. 설마 남녘에서 온 그 소년이 이름있는 작가가 되었을가. 정임은 그날로 읍중학교 국어교원을 찾아갔다. 군에서는 나이 지긋한 그 선생을 작가라고 불렀다. 신문과 잡지들에 짧은

소설들을 냈던것이다. 그 선생의 말을 들어본 정임은 자기의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둘째는 불쑥 《어머닌 어쩌서 이걸 입자한테 가져다주지 못해요.》라고 뇌이더니 이내 멧적은 표정을 지었다.

《하긴 웃겠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다 주겠어요.》

정임은 말문이 막혀 더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그는 갈린 음성으로 나에게 말했다.

《저는 이번에 선생님을 찾아오기전에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실은 어떻게 하나 이걸 제손으로 전하려고 했었는데, 분계선이 막힌채 한정없이 세월이 흐르고보니 이 꾸레미가 무엇이 되었나요?! 용서하세요. 더는 제가 이걸 간수하고있을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원정임의 두눈에 뜨거운것이 번뜩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정임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입자조차

있고있던 보잘것없는 꾸레미를 40년이 가까와오도록 보배처럼 간직해온 이렇듯 가룩한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크나큰 감동이 나의 심금을 사정없이 흔들어놓았다. 고향을 갓 떠나 남녘에 두고온 부모형제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날의 자기를 되찾은듯 심장이 뛰고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소중한 그 꾸레미를 가슴에 꼭 그러안았다. 일가친척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이것을 꺼내놓고 분단의 지난날을 옛말처럼 이야기할 꿈같은 그날을 더는 후날로 미룰수 없다는 절박감이 숨막히도록 느껴졌다.

가슴에 꼭 차오르는 이 불같은 갈망을 그대로 분계선의 콩크리트장벽을 폭파하는 장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쓰는 한편한편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일의 열망을 돋구어주는 불길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속벼르며 첫자욱을 뻗다.

너의 집 대문가 자그마한 편지통엔...

—김광철영웅의 집앞에서—

정 룡 순

네가 기르던 하얀 비둘기들
기다리는듯 프락을 거닐었고
너의 집 대문가엔 그 언젠가
네가 걸어놓은 편지통 하나

봄철이면 초소의 봄소식
봄바람보다 먼저 날아와 실리고
가을이면 군기앞에 찍은 사진
편지와 함께 웃던 편지통

보아라, 하루에도 그 몇번
너의 집 대문가에 꽂히는 편지들
한두장만이 아닌 저 편지들을
너는 어떻게 쓰느냐

편지를 쓰는구나
《90년대의 리수복》 너의 피 흐르는
황철의 용해공 쇠장대같은 그 손으로,
청산리 농장원처녀의 땀젖은 손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며
너의 청춘을 전우들의 생명과 서슴없이 바꾼
너의 그 숨결이 그대로 뿜이는구나

네가 남긴 크지 않은 배낭엔
못보낸 편지가 이 마을에 무거워도
몸성히 잘 있느냐던 너의 아버지의 문안에
광철이는 잘 있다고 온 나라가 대답하누나

황철에 와있다고
검덕에 와있다고
대건설장에 와있다고
수천만의 《김광철》이 회답하누나

아 너의 숨결 받아안은
온 나라의 마음이
너의 고향집에 아들처럼 편지하누나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꿈이 아니다 !

남대현

력사적인 범민족대회, 해방후부터 갈라져 살아온 우리 겨레가 45년만에 처음으로 통일을 위해 자리를 같이한 민족의 대화합!... 이 회의의 성격과 목적만으로도 서로가 만나는 첫 순간부터 구면이나 지기정도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처럼 반갑고 감격스러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자주화의 역사적흐름이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대표로 참가하여 느낀 나의 가장 큰 소감은 우리는 한집안식구들이며 더는 떨어져서나 갈라져 살수 없다는것이다.

우리가 평양으로 오는 해외동포대표들을 마중나갔을 때의 일이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나를 부둥켜안고 우는 아메리카에서 온 머리가 하얀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만나는구려.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나는 그의 말에 처음 한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혹시 나를 아는 해외동포가 아닐까? 나의 친척되는분이 아닌가?...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은 수십년동안이나 서로 격폐된 세상에서 살아온 통분함, 조국을 그리면서 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내 나라 땅에 발을 디딘 감격과 뿔어넘치는 환희의 터침이었다.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으면 이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릴것인가!

이국살이에 시달린 그 어머니의 두어깨를 감싸 쥐고있던 나의 두눈에도 은연중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내리는것이였다.

《꿈이 아니올시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고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갈린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어디 가나 환영의 인파! 《조국통일》의 구호

를 목터지게 웨치며 환호하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 해외대표들은 누구나가 눈물을 삼키는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마음이며. 저 통일을 웨치는 소릴 들어봐! 그래 저 사람들이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란 말여? 우리와 뉘이 같은 혈육이 아닌가말여!...》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대표도 있었다.

《사실 전 북녘동포들이 이렇게까지 통일의 념원을 절절하게 품고있을줄 몰랐어요. 그러고보면 우린 이때까지 눈감고 산셈이지요. 저 연도환영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마다 줄지어 흐르는 눈물이야말로 진실이 아니겠나요!》

서독 광부로 팔려갔다가 거기에 눌러앉아 다른 일을 한다는 서른여덟살의 리대표. 한이라면 이번에 처와 아이들과 함께 오지 못한것이라고, 데리고 와서 이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가슴들에 안겨보게 못한것이라고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실 이번에 부부가 동반하여 온 대표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철없는 두세살짜리 아이들이지만 기어이 백두산 천지에까지 데리고가서 그 웅장한 조종의 모습을 눈에 새기도록 하는가 하면 천지의 물을 먹여주며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 자라라고 축복하는 이들도 많았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없는 이는 볼수 없는 화폭들이였다.

백두산에 오를 때 나는 일본에서 온 김대표와 함께 있었다. 언제나 우스개소리를 잘할뿐아니라 노래 또한 멋들어지게 불러넘기군하는 팔방미인이였다. 특히 《날쫓 보소, 날쫓 보소...》를 얼마나 건드러지게 하는지 누구나가 어깨춤이 절로 날 정도였다.

그런 그가 백두산천지에 와서는 시종 아무 말도 없는것이였다.

《김선생, 몹시 추운가보지요?》

내가 룡담삼아 한마디 던져보았다. 그는 인차 말을 받았다.

《출다구요? 저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있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중입니다.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이 그야말로 꿈같은 세계로 나를 이끍니다.

백두산, 백두산 하고 어릴 때 교과서에서만 외웠던 그 령산에 올라있다고 생각하니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옆에 있던 리대표 역시 김대표와 같은 심정이 라는것이였다.

《저는 오늘 백두산에서 시작한 이 통일출정식의 발걸음을 절대로 늦추지 않겠습니다. 만약 판문점에서 길이 막힌다면 일본에 돌아가 더욱 억세게 이 통일의 걸음을 다그쳐나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걷나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비장했다.

통일! 너는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던 민족의 숙원이냐. 정녕 통일을 내놓고는 우리 겨레에게서 무엇이 더 중요하단말인가?...

설사 이길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의 발악이 가로놓였다 하더라도 기어이 결단코 가야 할 운명의 길이기에 백두산정에 오른 모든 대표들이 마음을 굳게 가다듬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백두산에서 한걸음으로 평양을 거쳐 판문점에 다달았다.

범민족대회를 마치고 합토제를 지낸 다음 통일문화축제를 위해 판문각아래에 모였을 때였다.

쏘련에서 온 한 해외동포가 보도블록으로 표시된 분계선을 보고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였다.

《아니 저 보도블록이 분계선이란 말요? 저게 우리의 북과 남을 갈라놓았다는게로?...》

그는 억이 막혀 발을 구르다가 한 외국인(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이 서슴없이 그 표식을 넘어 오는것을 보고는 입을 딱 벌리였다.

《저 사람은 저걸 마음대로 넘어오가는데 어째서 우린 저걸 넘지 못하는기요? 이 땅이 뉘 땅인데?... 아이쿠 원통해라!》

그자리에 터버리고앉아 통곡을 터뜨리는바람에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원한의 분계선을 지켜보았다.

말하라. 너 민족비극의 증견자인 군사분계선이

여. 어째서 한나라 강토에서 피를 나눈 동포자매들이 너를 사이에 두고 몸부림치느냐?

백두에서 시작된 지맥이 저기 남해의 제주도 한나까지 뻗었거늘 무슨 리유로 제 나라, 제땅에서 사람들이, 주인들이 오고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나라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저주와 규탄을 퍼부었다.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평양에 돌아와 우리 대표들은 통일문화의 밤을 열었다.

모두들 대회의 성공으로 인한 기쁨에 들떠있었다. 나도 누구라 없이 불들고 춤을 추었다. 땀투성이가 되였으나 추고 또 추었다.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표이며 작가인 황석영도 출판에 잠기여 돌아가다가 나를 보자 제 잡담 팔을 끝었다. 마감무렵에 북과 남, 해외의 작가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것이였다. 그의 제의는 모두의 찬동을 받았다.

《동지애의 노래》도 불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은 장내가 통일의 열풍을 안고 목소리를 합치였다. 그것은 억누를수도 막을수도 없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의지였고 신념이였다.

나는 문득 비행장에서 울먹이며 하던 북아메리카에서 온 한 어머니의 물음이 떠올랐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꿈이 아닌 현실을 두고 그는 말했었다.

《꿈이 아니올시다. 어머니...》

나는 분명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통일은 오늘에 와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박두했다.

저 심장과 심장을 합친, 제도와 리념을 초월한 사람들이 목청껏 부르는 통일의 노래! 그 거대한 민족의 열파가 이제 곧 수치스러운 분단의 장벽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통일된 내 조국을 불러올 것이였다.

나는 사랑하는 7천만겨레가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노래부르는 통일의 그날을 보고있었다.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의 반향중에서

간백산밀영에서 나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무장대오를 이끄시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는가 하는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책에서 보고 말로만 들어오던 여기 백두산 기슭에 와보니 참으로 우리 민족은 위대한 전통을 지닌 영광스러운 민족이라고 자랑하고싶다.

나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걸어온 투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조국인민들과 함께 통일성업에 한몸 바쳐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

(재유럽교포대표단 단원 장일중)

여기 간백산밀영을 비롯한 백두산지구밀영을 돌아보게도 승용차를 타고 몇백키로를 다녀야 하는데 수령님께서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일제를 반대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지대를 중흥무진하시였으니 그 로고는 무엇으로 헤아리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을 뛰어넘으신 그 용맹은 또 무엇에 비겨 말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온 민족이 우러르는 전설적영웅이시면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민족에도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그 중심은 바로 **김일성**주석이시다.

나의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일성**장군님께 충신이 되었던것처럼 내 나이가 고령에 있어도 숨이 지는 그날까지 여기 조국땅에 심장을 두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투쟁하겠다.

(재쏘교포대표단 단원 엄계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인민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하고계신다는것을 많이 들은바 있어 알고있었지만 이번에 평양산원을 통하여 다시한번 똑똑히 느끼였다.

무자식상팔자라는 옛날 속담속에는 사람 못살 사회에서 자식들 키우기가 고통스러웠던 우리 여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져있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우리 조국의 여성들은 그런 말조차 모르며 이와 같이 현대적으로 꾸러진 산원에서 옥동자들을 낳아 무럭무럭 키우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면서 산모와 세쌍둥이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계시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그 어린것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까지 선물로 보내주고계신다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아마 이런 나라, 이처럼 행복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한없이 은혜로운 우리 조국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나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누구나 무병장수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높이 모시고 훌륭한 사회제도에서 사는 조국인민들은 행복하다.

우리 7천만겨레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조국통일 5개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온 민족이 잘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확신한다.

(재중동포 차승미)

백두산으로부터 개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펼쳐진 조국인민들의 열렬하고 성대한 환영,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거리와 마을을 활기차게 오고가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밝은 웃음과 표정,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한가정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우리 조국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인간사회의 참모습이였다.

여기에서 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무상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였다.

조국인민들이 오늘처럼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잘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땅에 으름가는 사회주의체도를 세워주셨기때문이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이 제도의 우월성을 꽃피워가고계시기때문이다.

(재쑤교포대표단 정일심대표)

콩크리트장벽이 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그것을 없다고 하는것은 통일을 반대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문제를 놓고는 그 누구나 그것을 성사시키는 방향에서 모든것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 하기때문에 콩크리트장벽을 쌓았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의 옳바른 지도를 받고있는 우리는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이라는 높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싸워나감으로써 저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을 반드시 허물어버리고 조국을 기어이 통일할것이다.

(아메리카에서 온 지창보동포)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조선출판물들이 콩크리트 장벽이 없다고 하기에 정말 없는줄로만 알았

다.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현실적으로 콩크리트장벽은 존재하고있다.

남조선의 당국자가 콩크리트장벽이 없다고 하는것은 민족을 기만하기 위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술책이다.

민족분렬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하며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일본추진본부대표단 김영희대표)

(아메리카에서 온 윤상해동포는 관문점에서 분계선남측지역에 구축된 콩크리트장벽을 돌아본후 우리 인민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자기의 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가고싶어도 못가겠구나
장벽이 높아
함께 살고싶어도 살수 없구나
장벽이 문제로다

당장 허물라 콩크리트장벽
통일이 된다 우리 조국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민족
3천리를 오가며 살리

수표

김영길

대표들만 손저으며 떠나보내고
몸은 못왔어도
붉은 기폭에 자필로 적어보낸
수표
수표...

《통일선구자》
백이
천이
한뼘한뼘 수를 놓고
심장의 뚫는 피로 새겨보낸
수표
수표...

멀리 조국으로
이름만 보내고
지금도 비내리는 이역의 하늘아래서
통일대행진의 길을 가는
결사의 그 자욱들...

오, 몸은 비록 못왔어도
마음만은 통일에 잇고 살아
실사 그길에 꽃잎처럼 생이 쓰러진대도
마지막 삶의 목적 적어보낸
수표
수표...

그 이름들 더럽히지 말자 겨레여!
그 삶들 욕되게 하지 말자 민족이여!
기폭에 적어보낸 그 념원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자
그 수표들을...

오오, 빛내여주자 벌처럼
후세에 영원할 통일기념비에
조국이 펼쳐갈 통일력사우에
그 수표들 옮겨주자

강토가 갈라진곳에서

송찬웅

판문점

온도계의 수은주처럼
예민하게 오르내리며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날카로이 마주선 판문점

옛날엔 길손들이
하루밤 쉬어가라고
큰 기와집에 널대문을 세워놓고
《주막거리》로 흥성거렸다는 너 판문점아

어찌다 평화롭던 네우에
이런 콩크리트선이 생겨
국경아닌 경계선으로
한강토를 갈라놓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네 이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대결장으로
세계의 이목을 한데 모으게 되었느냐

정전담판의 그 나날로부터
내 마음 때없이 달려오던곳
갈수록 간절한 상봉의 열망이
백두에서 한나에서 끝없이 모여드는 이곳

남녘의 열혈청년학도들이
뜨거운 아스팔트길에 누워
한치한치 배밀이 등밀이로

총검의 숲을 헤쳐 복행길을 뚫아올제

얼마나 강렬한 피의 소망이
차단봉을 내린 놈들로 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채
여기 판문점을 향해 굳어졌던가

오, 6백여리 분계선에
단 하나 뚫어진 《창문》아
너 언제면 그 언제면
그 전날의 널대문처럼 환히 열리려느냐

저기 남의 땅에 버티고선
미군철바가지들이 쫓겨나고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려
사람들 마음후련히 오갈수 있다면

아, 오갈수 있다면
서로 부르며 화답하며
나도 함께 길손들속에 끼여
여기서 하루밤 쉬어갈수 있으면만...

허나 그날에도
력사의 땅 판문점아
너는 결코 조용하지 않으리니
반백년 겪어온 분렬의 아픔을 호소하며
미제와 역적들의 죄행을 날날이 고발하며
잠시도 이 가슴에 안식을 주지 않으리라!

네가 열어간 길은

림수경
너는 갔다, 문신부와 함께
한치도 못되는 콩크리트선
낮고도 높은 경계선을 넘어

갔다, 장장 40여년
분단력사에 처음으로
제 나라 제 땅을 밟고
한걸음에 분계선을 넘어갔다

네 얼굴 한번 바라보자고
네 손목 한번 잡아보자고
격정에 설레이는 거리거리에서
파도쳐 밀려들던 그 열망 그대로 안고

철창이 기다리는줄 알면서도
기어이 가야 할 길이기에
침묵이 도사린 살벌한 남쪽길로
너는 머리들고 혼연히 걸어갔다

한결음 두결음
뜨거운 바래움속에
가다가는 다시 돌아서서
기발처럼 날리던 빨간 반소매

한몸이 그대로 불꽃이 되어
분렬의 장벽을 녹여내려는듯
피빛처럼 불타던 빨간 네 모습
오늘도 눈에 삼삼 맺혀있어라

아, 너는 갔다
통일열기에 부풀어오른

우리의 가슴가슴을 더욱 달구며
세월에 굳어진 장벽에 금을 내며

8월의 그날, 여기 관문점에
세계의 눈길이 모여든 그 시각
네가 금을 내며 헤쳐간 그 길을
우리 온 겨레의 마음이 함께 갔거니

오, 림수경 !
네가 열어간 한줄기 좁은길은
이제 통일의 큰길로 끝없이 넓어져
래일엔 마침내 7천만이 오고가리라!

강은 한땅을 흐르건만...

림진강 푸른 물결우에
남북산이 함께 비졌구나
강은 한땅을 흐르건만
길은 천리로 막혔구나

예전엔 여기서 아들이 소리치면
강건너 저기서 아버지가 화답하고
저녁이면 떠느리가 함지박 타고와
시아버지께 막걸리를 대접했다는곳

해맞이 달맞이 함께 즐기며
한철에 한톨농사 지어왔건만
어찌해 지금은 오도가도 못하는가
그 어떤 장벽이 배길을 막아섰는가

나그네 없는 나루터엔

갈대숲만 무성히 설레이고
비바람에 다 삭은 나루배엔
물새들이 등지를 틀었는데

한물살에 서울까지
배노래 부르며 오르내리던
구성진 배따라기의 메아리만
이 가슴 아프게 치는구나

분단의 원한서린 강아
네우에 배길이 열리고 꽃다리 걸린 그날을 향해
너도 쿵쿵 장벽을 부시며 노도쳐 흘러라

아, 림진강, 림진강
강토의 한지맥처럼
가를수도, 쪼갬수도 없는 하나의 강아 !

장독에서 솟아난 나무

독이 나무에 감겼는가
나무가 독에서 솟았는가
사천강 기슭 황량한 분계선우에
높이도 자랐구나 한그루 아카시아나무

세월의 먼지와 락엽이
독안에 쌓이여 부식되고
바람에 날리던 아카시아씨앗이

독안에 떨어져 뿌리를 내렸으리

한독에 장을 담그며
오בות이 살던 식구들은 어디로 흩어지고
울안에 남아있던 장독에 감긴채
너만이 형제도 없는 집터에 서있는가

저 나무 해마다 돌기돌기 년륜을 새길제

흔어진 겨레의 가슴엔 상처만 깊어지고
저 나무 해마다 줄기줄기 아지를 펼칠제
갈라진 이 나라 강토엔 비극만 덧쌓였거니

저런 나무 어찌 여기뿐이라
끊어져 녹솔은 철길우에
잡초에 뒤덮인 집울안에
주인을 기다려 애타게 기다려
피고지고 열매맺는 나무 그 얼마랴

아, 겨레의 가슴속에
피멍처럼 박혀 갈수록 더해지는
고통과 불행을 네가 다 말해주는구나
독에서 자란 한그루 아카시아나무여!

너는 기나긴 춘풍추우
기다려 애태워온 그만큼
돌아올 주인을 기어이 보자고
분계선우에 모질게도 살아남아
오늘도 옛집터를 지켜 우뚝 솟아있구나

두 기적소리

분계선너머로 초생달이 기울고
별들만 유난히 반짝이는 밤
아득히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오는 울려오는 기적소리

북녘의 뜨거운 념원실고
남으로 남으로 달려오다
안타까이 북으로 돌아서 가는
개성발 평양행렬차의 기적소리!

그 소리에 실려
내 마음도 북으로 달려는데
나를 부르는듯 이끄는듯
문득 강건너에서 들려오는
이번엔 또 다른 기적소리 구슬픈 소리!

북을 향해 오던 렬차가
문산역에 멎는가보다...
칙칙 헛김을 내뿜으며
사천강철교 하나를 못넘어 못넘어
또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서려는가

그 몇몇해더나 서울행렬차의 중간역이던 개성이
남행렬차의 마감역이 되고

이름없던 자그마한 문산역이
북행렬차의 종착역이 된것은

누가 알랴, 이 시각
개성을 떠난 저 북행렬차에
문산을 떠날 저 남행렬차에
헤어져 보고싶던 부모자식들이
갈라져 만나고싶던 친척 친우들이
제가꿈 차창에 기대여 모대기고있는지

그 어떤 그리움
그 어떤 원한이
철길을 막아선 저 장벽으로 하여
허리 끊긴 사천강철교우에 맺히고 서렸던가

아, 한낱한시에
이 가슴 흔드는 두 기적소리
하나로 잇닿은 조국의 동맥이
끊어져 몸부림치는 소리여!
겨레의 가슴을 지지리 태우며
얼마를 더 이렇게 울리려느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개성-장단 녹솔은 철길우에

통일열차의 울음이 터지는 날에야
우리 겨레의 울음도 끝장이 나리니

북으로, 남으로

두 기적소리는 멀리 사라져가도
이 가슴엔 이 가슴엔 울려오누나
분계선너머 끝없이 메아리치는
아, 하나의 하나의 기적소리가...

장벽은 무너지리

나는 보았다
육안으로도
포대경으로도
분계선 남쪽의 콘크리트장벽을

나는 보았다
서부의 둔덕에서도
동부의 여러 고지들에서도
징그러운 독사마냥 꿈틀거리며
동서를 가로질러간 분단의 장벽을

저 장벽으로 하여
산과 들이 가로막히고
철길과 도로들이 끊어지고
북에서 남으로 흐르던
강줄기와 시내물들이 흐름을 멈추었다

저 장벽으로 하여
한피줄을 나눈 부모형제들이
남편과 안해가 생리별당하고
한마을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다

묻노니
유구반만년 이 나라 역사에
동서고금 어느 나라 역사에
외적을 막기 위한 성벽은 있었어도
제 나라 제 땅을 갈라놓은
이런 피의 장벽이 또 있었던가

없었다, 이처럼 악착하게
나라의 강토를 동강내고도
장벽이 없다고 생떼를 부리며
수치와 죄악을 못느끼는 만고역적들은...

허나 놈들도
6백여리 인공장성으로
이 땅의 허리는 가를수 있었어도
하늘만은 하늘만은 가를수 없었더라

장벽너머 훨훨
저 푸른 하늘로
북녘의 기름진 논밭으로
흰두루미 날아드는것처럼
겨레의 마음속엔 장벽이 없거니

세상엔 아직
외적을 막던 성벽들도
만리장성과 《마지노선》도
력사의 유물로 남아있건만

너무도 오랜 세월
너무도 가슴아픈 고통을 들썩운
20세기 민족의 수치인
저 원한의 콘크리트장벽만은
형체도 흔적도 남겨선 안되리니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대하처럼, 홍수처럼 굽이치는

민족의 거세찬 통일흐름앞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저 마지막장벽도
이제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야말리라

아, 산도 강도 하나로 이어질 그때

조선은 세계앞에 뿔뿔이 보여주리라
그 어떤 분렬의 장벽으로써도
한강토 한피줄은 가를수 없음을,
백두에서 한나까지 꽃바다 설레일
통일천하 삼천리의 환희로운 모습을!

《통일거리》, 이 이름으로

리광

《평양시 락랑구역에
새로 건설하는 거리 이름을
<통일 거리>로 함에 대하여》

낮에 밤을 이어 들끓는
《통일 거리》건설전투장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되새기니
가슴속에 술한 생각 갈마들어나

침략과 외세에 의해
반역과 매국의 무리들에 의해
하나의 강토가 허리 끊기고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기나긴 45년 세월

오, 갈망이 뜨겁지 못해서였던가
소원과 념원이 불타지 못해서였던가
아니면 땀과 피를 적게 흘려서였던가
너무나도 오래구나 분단의 력사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어서
각과 다리, 역을 건설하고도
거기에 정으로 쏘아 새기였더라
《통일각》, 《통일다리》, 《통일역》
피타는 노력도 많았고
아까운 희생도 많았더라

허나 분단은 아직도 끝장나지 않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안해 친척 친우들
설사 이제 거리에서 문득 만난다 해도
서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니
원통하고 절통하구나
가슴이 찢기는구나

어찌 더야 미룰수 있으랴 조국통일
이대로 세월을 더 흘러보낸다면
갈라진 하나의 민족 영영 남이 되려니
그때에 가서 후손들은 누구를 찾으며
남들은 또 무엇이라고 비웃을것인가

30년대에 백두산에서 행군을 시작한 로투사
그처럼 바라던 조국통일을 보지 못하고
또 한분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에
더는 우리 가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분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겨레때문에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를
더는 잠못 이루시며 심려하시지 않도록

아,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여
조국통일로 가는 이 길우에선
종지부를 찍자
《통일거리》 이 이름으로

그리고 그날에 가서 그날에 가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동지를
통일단상에 높이 모신 하나된 강토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문과 탑과 광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금문자로 아로새기자
《통일문》, 《통일탑》, 《통일광장》이라고 !

시인의 얼굴을 생각하며 (2)

류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틀에 박힌 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꼭 짚어 말할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도 인상깊이 남는 그런 시들이 있다. 일상생활의 이야기인듯하면서도 새삼스러운 감흥을 주며 가슴 후덥게 하고 흐뭇한 정서를 안겨주는 그런 시들이...

시집 《숨쉬는 땅》을 읽으면서 시인 오영환의 시가 그런 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시인 오영환은 결코 많은 시를 쓴 시인은 아니다. 그러나 인상깊은 시로써 그는 독자들에게 알려져있다.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기전에 먼저 시집 제목이라든가 수십년간에 창작한 저작품을 묶은것만 보아도 그가 무엇인가 남들과는 다르게 모가 나게 특색있게 해보려는 시도와 탐구적자세를 가지고있다는것이 알린다. 그는 이번 시집을 다른 시인들이 시집을 내면서 흔히 하듯이 주제별분류가 아니라 자기 창작의 로정을 10년을 단위로 20대작품, 30대작품, 40대작품, 50대작품 하는 식으로 묶었다. 여기서 무슨 개성이 있다는것은 아니고 또 시집을 어떻게 묶는가 하는것은 시인 나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류가 이 시인의 시창작에서의 개성적인 탐구, 자기 식의 독창적인 탐구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게 되는바이다.

시집을 창작로정의 년대에 따라 묶은것은 한 시인의 성장과 개성을 리해하는데서 직관적표상을 주는것으로 하여 흥미있는 일이라고 보아진다. 시집 《숨쉬는 땅》을 읽으면 확실히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인생의 로정에서뿐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시창작로정에도 《년령》이 어쩔수 없이 작용한다는것이 느껴진다. 이 시인의 경우에도 대체로 30대중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전후반기의 시세계에서 일련의 차이를 감득할수 있는데 전반기의 작품들이 보다 동적이고 발랄하고 량만적인 사색과 정서로 특징지어진다면 후반기 시들에 오면서 그런것이 보다 진중한 사색과 정서로 변화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시집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시인 오영환의 얼굴은 보다 인상적인 시들로 두드러지는 20대, 30대의 작품들에서 현저하게 알아볼수 있었다는것을 부연하는바이다.

시인 오영환의 시들을 두고 인상적이라고 하게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시에서 풍겨오는 특유한 생활적인 향취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토대하며 생활적인 감정으로 일관시키는것은 시창작의 기본요구이다. 그러

나 시인마다 체험된 생활과 정서적감정을 일반화하는 그 다양성으로 하여 시들에서 풍기는 생활적향취는 각양각색이다.

시집 《숨쉬는 땅》에서 풍기는 그 생활적향취는 류다른 량만으로 채색된 생활정서의 풍만함이라고 생각한다. 시집의 시들을 읽으면 시인에게 생활에 대한 남다른 감수와 생활묘사에서 특기가 있다는것이 알린다. 그의 시에서 생활은 주로 세부 또는 일화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것은 결코 그 어떤 기이하고 유별난 세부인것은 아니다. 반면에 일상적이며 범상한 생활의 세부, 일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데도 그의 시들에서 그 생활세부와 일화들이 류다른 매력과 가지고 승고한 세계를 펼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것은 시인이 거기에서 남이 못보는 《특이한》것을 보며 그것을 자기의 독특한 량만과 환상의 세계로 승화시켜 일반화하는 솜씨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가 시 《우편국에서》이다. 작품에서는 어느 눈내리는 저녁출장은 한 중년사나이가 모자며 어깨에 얹힌 눈을 털며 우편국에 들어서서 제고장에 전화를 거는 생활적인 이야기가 그려져있다.

눈송이들과 함께 전화에 다가서서
뜨거운 입김을 수화기에 뿜어
멀고먼 제 조합 불러놓고
천정과 창문이 울리도록 웨쳤다

《...양무런 어느 골짜에 있소?》
련이어 그는 묻고 또 묻는다
수도에 온 그사이
《길호의 입당은 결정됐는가?》
《복순이 첫애기 순산했는가?》

그다음 부기장을 바꾸어달라는데
발에들 나가고 없다는 대답
들에 실어낸 엄청난 두엄무지를
그는 보는듯 꺾꺾 웃어댄다

우편국 콩크리트바닥을
제고장 벌인듯 그는 거닌다

출장지에서 전화를 거는 관리위원장으로서의 긴급한 사업용무도 있었을것이고 시외전화의 제한된 시간의 촉박도 받았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사업에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농장살림살이의 주부로서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미더운 관리위원장을 보게 된다. 공중전화소에서
의 별치않은 이야기를 통하여 사업으로 혈기넘치고
생활이 주는 만족으로 흐뭇해진 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시인이 특색
있는 생활세부들을 시적으로 잘 형상하였기때문
이다.

이러한 특성은 《차돌》, 《탈곡장》, 《밤비 지
나간 복변도로에서》, 《백사장의 무수한 발자국
들은》 등 그의 많은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시인은 세부적이며 일화적인 생활을 노래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서정토로에 안받침하는 식으로
가 아니라 시 《우편국에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활 그자체에 대한 묘사를 주면서 거기에 서정
토로를 유기적으로 배합하면서 시대정신을 뽑어
올리고있는것이다.

때문에 그의 시들을 보면 생활을 《조심스럽게》,
《점잖게》, 《엄숙》해서 이것저것 《재》면서 그
리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런 꾸밈도 가식도
없이 아예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방으로, 그
생활을 확 드러내면서 《결죽하게》 그리고있는것
을 느끼게 된다. 생활에 대한 이런 꾸밈없는 직
접적이며 진실한 개방은 처음부터 독자들을 시세
계에 끌어들이며 그 생활세계와 어울려 토로되는
시인의 서정세계는 그만큼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그의 시들은 대체로 생활적인 세부 또
는 일화로 꾸려져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세부나 일화에 대한 시적묘사가 그자체로서 그치
는것은 아니다. 중요한것은 거기에 우리의 시대
정신을 강하게 튕겨주며 인간정신을 고상하고 아
름다운 경지로 승화시키는 랑만적열정이 세차
게 나래치고있다는것이다.

그의 시들에서는 랑만적정서가 류달리 강하게
풍기는데 그것은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인이나
지향에서라기보다 오늘의 생활의 만족과 기쁨,
열렬한 긍정에서 오는것이며 그것이 때로 미래와
결부되기도 하지만 이때의 랑만은 도래할 미래를
지향하는데서보다는 오늘의 생활속에 배태되고있
는 미래적인것에 대한 환희의 감정으로 풍만하게
표현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전선을 탄원하던 날 차돌 세개를 허리
춤에 감추고 신체검사를 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새해 년하장을 보내는 시
인의 심정을 노래한 두편의 시가 있다.

하지만 소년은 끝내 밀려나
우리들이 대렬지어 지나갈 때
잘 가라 손짓도 없이 웅크려다
《전선에서 다시 만남시다!》

우리가 화선에 당도할 때까지
그 목소리 쟁쟁히 울려왔더라

차돌무게에 비할바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있어

그 소년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도
지금은 공민증 품었을 그 청년
그 어디에 있든 이 땅우에서
제몫 몇배를 해내고있으리라!
(시 《차돌》에서)

설달의 마지막 눈을 밟으며
년하장 한몽치를 우편통에 넣노라
우편통, 문안과 축원의 작은 집이여
이미 뻥뻥이 들어갔구나
...

이제 묵은 해의 수염만 밀면
우리 못다한 일 하나도 없거니
날아가라, 자랑찬 자연이여
읽으라, 벗들이여
...

벗들이여, 바라노라
우리 시대의 출근부에 적힌
그 모든 이름들이
이 험악한 시대에 빛나기를
(시 《우리는 빛나는 해들을 산다》에서)

그처럼 소원하여마지 않던 신체검사에서 비록
불합격이 되어 대오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몸이
지만 전선에서 다시 만나자고 웨치는 소년, 지금
은 어디서 제몫 몇배를 하고있을 소년의 그 정신
에 생활의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를 쫓아우려는
열망이 나래치고있는것이며 자랑과 축원의 마음
이 가득찬 우편통에 묵은 해의 수염을 밀지 못한
것을 내놓고는 못다한 일이 하나도 없고 출근부
에 적힌 모든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는 거기에 보
다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인과 축원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있는것이다.

두 시의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호
소를 직접 읽는것은 아니여도 그러나 그런 호소
에 못지 않는 생활의 드높은 숨결과 맥박, 래일
까지도 안고 오늘을 락관하며 힘차게, 줄기차게
살며 시대앞에 지닌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여가는
인간들의 숭고한 생활세계를 느낀다. 우리 생활
속의 랑만이, 우리 시의 랑만이 이런것이 아니겠
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집의 시들을 읽으면
서 시인이 생활을 세부적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랑만적정서로 채색하는 솜씨를 가지고있으며 따
라서 그의 시들은 랑만적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특유한 생활적인 향취로 하여 시인의 얼굴을 인
상깊게 되새겨주는것이다.

시집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시들이 인상적이다
고 말하게 되는것은 생활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
묘사와 관련되면서 또한 그의 시들에서 시적표현

들이 매우 특색있게 씌여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 시인의 사색과 탐구의 영역은 생활속에서 특색있는 세부, 일화를 찾아내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부, 일화가 모가 나도록 특색있는 표현들을 쓰는데도 매우 섬세하게 미치고있다. 때문에 그의 시들을 읽으면 그가 시적표현에 류다른 관심을 돌리고있다는것이 알리며 그것이 시에서 확연히 느껴진다. 사실 시에서 모든 표현들이 새롭게 씌여진다면 그이상 리상적인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짧은 시에서 새로운 시적표현이 몇개만 씌여져도 그 시의 《맛》은 벌써 달라진다.

이 시인의 시에서의 시적표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기발하다고 하기보다는 묘하다고 하는것이 더 적중할것이다. 그러면서도 매우 특이하고 모가 난다. 지어 《영동하계》까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은 생활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섬세한 관찰, 자유분방한 환상과 감성적인 체취가 낳은것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게 한다.

몇가지 례를 들어보자.

오, 나는 들었네
조국에 위험이 닥쳐오면
병자도 허약자도 없는
위대한 인민의 목소리를 들었네!
(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길에서》에서)

국경
내 나라의 산과 길이
내 민족의 풍속과 말이
여기서 끝난다
(시 《압록강력객선우에서》에서)

나라의 큰 창고문들이 열리고
저울과 자와 수판들우에서
하루사이 이 땅에 쌓인 재부들이
미끄러지며 련이어 들어간다
(시 《하루길》에서)

주소들을 나누고 헤여 지는 백사장
...
크고작은 이 무수한 발자국들은
희망이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저 수평선에서 달려온 파도앞에서
다시한번 아이되여본 흔적이라네
(시 《백사장의 무수한 발자국들은》에서)

이 시련들은 어떤것은 첫련이고 어떤것은 결구이며 또 어떤것은 가운데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련들은 그 어디에 놓이건 곱씹어 읽어보면 의미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뜻이 깊고 새롭다. 청신한 기분을 주며 흐뭇한 만족을 주며 정겨운

인상을 준다.

어떤 시에서나 흔히 찾아볼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단어와 시행과 시련으로 나타난 말마디이상의 깊고 넓은 뜻이 간직되어있으며 누구나 쉽게 생각할수 없는 그런 《묘한》 표현들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과 련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평화적건설시기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새가 없던 정양소가 전쟁이 닥쳐오자 한적한곳으로 되었으니 정말 조국이 위험에 처한 때에 누구나 가장 어려운곳으로 달려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이 아닌가. 이것을 두고 시인은 《조국에 위험이 닥쳐오면 병자도 허약자도 없는》 우리 인민이라고 노래하였다. 병자도 허약자도 없다는 이 표현이 병자와 허약자를 치료하는 정양소에서 그것도 조국이 겪는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 울려나왔다고 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울리는것인가. 얼마디, 백마디의 그 어떤 다른 표현보다도 이 표현이 주는 감정의 뜨거움과 형상적의미는 매우 크고 넓다. 이런 표현을 두고 생동하다고 하고 감칠맛이 있다고 하며 형상적이라고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비단 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길에서》의 시련뿐아니라 인용된 다른 시의 시련들에서 그대로 받게 되는 느낌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시인이 비록 련까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시행들에서 이런 특색있는 표현들을 모색해서 적극 씌으로써 형상적효과를 크게 하고 시의 《맛》을 돋구면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그 실례로 될수 있을것이다.

...동창에 유리넣는 못박는 소리, 끝까지마다 추위가 웅크리고있는데, 웃음으로 하여 흠어진 그대 눈섭에, 모두의 옷차림에 생활의 윤곽이 흐르고 메달과 훈장들은 조선의 정신을 말해줍니다. 장엄히 물들인 저 하늘은 기적같은 이 나라의 로동의 한페지, 반에 반도 통성 못한 동시대인들앞에, 단 하루 늘늘이 살아간 날 없이, 조국의 력사는 충실한 아들들을 키와 년령의 순서로는 세우지 않았구나, 곱다, 종일 웃고도 남아있는 네 얼굴의 웃음이 좋다, 나의 체증과 키와 심장의 크기를 조국에 보고하던 의사의 얼굴, 모든 원썬들을 꿰어았힐 눈초리로, 철길도 늘어지는 여름이건만 그대 눈초리만은 풀리지 않는다, 정녕 3대 혁명소조원들은 되찾은 우리의 젊음입니다, 살을 간지럽히는 바람결,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건만 내 나라엔 해종일 머물러있어라, 열매에 흰봉지 씌운 충충 과일, 상장들에 찍힌 직인들은 법적으로 그를 확인해주고, 세칸방 울리는 코고는 소리...

이러한 표현들은 시인의 체취가 강하게 느껴지는 참으로 자유분방한 표현이다. 어떤 표현들은

생활의 섬세한 세부를 감성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어떤 표현들은 형상적인 과장과 비유로 깊은 뜻을 웅심깊게 드러내고있다. 여기에서는 크고 뜨거운것이 느껴지며 강한 여운이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소리》의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색의 심연, 열정의 뜨거움, 심장의 크기에서 생겨난것이다.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시에 청신한 기운을 돋우고 시의 《맛》과 《색채》를 배가시켜주는것이다.

이처럼 시집 《숨쉬는 땅》에 실린 시들은 세부적인 생활에 대한 생동한 묘사, 짙은 낭만적열정, 생활적정서의 풍만성, 특색있는 시적표현 등으로 하여 시인의 개성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고있다.

물론 이러한 면모가 모든 시들에서 한결같은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의 시들에서는 사색이 깊고 넓으며 자유분방한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그것이 성공한 시들을 보면 그 대부분은 그에게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부적인 생활에 대한 감성적인 체험과 결부되어있는 경우이다.

이런 면에서 이 시인의 시들에서 우리는 예나 제나 진지하게 추구되는 사색을 느끼면서도 어떤 때에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시들을 보면 제외없

이 그 사색이 그에게 고유한 세부적인 생활에 대한 특색있는 탐구와 묘사와 결부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표상에 기초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시 《비행장에서》, 《나래치는 검덕이여!》, 《오, 부르친 주먹들이여》 등이 그렇게 생각되는 작품들이다.

이 시들에서 시인은 생활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생동한 세부들을 잡아쥐지 못하였기때문에 어딘가 사색의 흔적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것이 낭만적정서로 승화되지 못하고 뜨겁고 절절하지 못한, 따라서 서정토로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 못한 결과를 빚어냈던것이다.

물론 한 시인에게 있어서 20대나 50대나 창작이 한결같을수는 없다. 그러나 《년령》에 따르는 변화를 예상한다 할지라도 시인으로서의 개성적인 면모를 보다 세련시키고 풍부하게 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자유분방한 사색과 환상, 생활에 대한 예민한 감수, 세부에 대한 능란한 구사, 언어표현에서의 장끼를 계속 살리면서 20대, 30대의 그 열정과 기백으로 자기의 개성적면모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시들을 계속 왕성하게 창작해줄길 바라는 바이다.

그날의 그 용사를 못잊어

김남걸

못잊어
전사의 그 마음
차마 못잊어
내 나라 땅에 이웃나라 흙이 있어라

한식술인듯 고향집인듯
아침이면 마당비도 먼저 들던
지원군 그 전사 잃은 애수함
내 나라 땅에 이웃나라 잔디로 푸르려있어라

련락임무 마치고 오다
원췌의 총구앞에 선
낮익은 마을의 녀맹위원장을
한목숨 바쳐 구원한 그 전사

식어가는 전사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땅을 치며 가슴을 두드리던
온 마을의 애정이
압록강물 건너
전사의 고향에 가게 했어라

노을피는 학교길 오갈 때
전사가 늘 밟고 다니던 그 땅 그 흙

달뜨는 저녁 친구들 함께 덩굴던 그 잔디
전사의 령구앞에 마을사람들 안고왔어라

조선의 흙 한줌
중국의 흙 한줌
온 마을이 령구에 조용히 덮을 때
하나의 마음우에 받들린 봉분이여

아, 조종인민의 공동의 원췌를 쳐부시던
전쟁의 나날로부터 40여년 흘렀건만
눈비도 이 봉분만은 낮추지 못했어라
세월도 이 봉분만은 실고가지 못했어라

두 나라 흙이 하나로 응결된 봉분
두 나라 잔디가 한빛으로 물든 봉분
아직은 내 본일 없어
영원하고 영원할 조종친선을 생각하며
내 지금 지원군전사의 묘지앞에 서있어라

잊을수 없는 마음이
가릴수 없는 혈육의 정이
월계관인듯 매화나무 울타리를 곱게 친
지원군전사의 묘지앞에 내 서있어라

금강소나무 외 1편

(중국) 최기자

바위 틈에 뿌리박는것이 소나무라 했지만
여기 금강산 소나무는 틈이 아니라
바위에 뿌리박았다
바위를 뚫고 뿌리내렸다

장수바위의 소나무는 장수의 힘으로
삼선암의 소나무는 신선의 조화로
천선대의 소나무는 선녀의 뜻으로
우불구불
깊이깊이

굳고굳은 바위를 뚫고 뿌리박았다
오, 금강소나무여
너 드림없이 바위에 뿌리박고
하늘을 치받아 천만년 솟으려니
내 정녕 네 몸에서
강철의 조선을 보았다
일당백의 조선인민을 보았다

1990. 5. 26 —만물상에 올라—

망장천 한모금에

만물상 중턱에서 마신
망장천 한모금에
내 진정 십년 젊어졌다
래일 아예 구룡연을 바라지 말자 다진 결심
밤새에 제격 번심이 될줄이야

금수다리에 올라 비로봉도 바라보고
삼록수 맑은 물에 몸보신도 제격인데
종구나 천하요지경이 이 아니냐
허리굽혀 금창문을 뚫고나가니
세존봉, 옥녀봉이 다가서고
머리들어 옥류다리에서 쳐다보니
땅크바위, 군함바위 나를 향해 달려오는듯

이제 막 비봉폭포 거슬러 잡아타고
주렴폭포의 문발을 거두려는데

구룡폭포 어서 오라 룡트립하누나
씨엥씨엥

망장천 한모금에
내 진정 십년 젊어졌다
사내대장부도 오르기 저어하는
구룡대를 바라고
반구심의 몸매 가냘픈 아낙네
기운종게 오른다 코노래도 흥얼흥얼

이제 상팔담에 날아내려
미역이나 감아야지
아니

나무군총각에게 옷 갖기면 어찌나?

1990. 5. 27 —상팔담에 올라—

(필자는 중국조선어문잡지사 기자임)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

홍성두

출발역뿐이라
마주오는 역은 역마다
오르고 내리는 못사람들로
렬차안은 사뭇 흥성이더니

사리원... 평산...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
하나 둘 늘어만가누나
렬차에 오르는 사람대신
내리는 사람, 내리는 사람만이

기어이 그 누구를 찾으련듯
아픈 눈길들이 말없이
더듬어 살피는
빈자리 빈자리...

헤어져 40여년
소식조차 모르는 부모형제 생각에
볼수록 내 가슴 이리도 저리는가
예로부터 하나인 조상의 땅에
갈라져 살수 없는 한겨레여서
사람마다 비분에 차 바라보는 빈자리

그것은
늙으신 어머니 계시는 남녘의 하늘 향해
피가 지도록 피가 지도록 입술깨물며
어느 아들이 내리면서 남겨놓은 자리인가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애끓는 겨레의 부르짖음 들으면서도
남행길 못오르는 그 마음들이
아쉽게도 비여놓은 그자리인가

평산... 금천...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
차츰 비여가는 렬차안이 오히려
오히려 숨가쁘게 느껴지는건
저 빈자리마다에 깃든 사연이

너무도 절절히 가슴에 사무쳐선가
산이 높아 못가는 길이 아니고
물이 깊어 못가는 내 땅이 아닌
강토의 절반이 분계선에 허리끊겨
더 못가는, 앞으로 더 못가는 안타까움에
목메여 울리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아아, 사람들아 차창을 열이라
렬차에 오르는 사람 내리는 사람
가슴마다에 빈구석없이 차고넘쳐
하늘 땅 우주공간에 가득차흐르는
통일의 일념, 통일의 지향
저 빈자리마다에 어려있거니

금천... 러현...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
자리는 비여가는것이 아니구나
항쟁의 거리거리 피흘려 쓰러지고
억울히 옥에 갇힌 한피줄의 형제들
못잊어 꿈결에도 달려가는
혈육의 그 마음에 공백이란 없거니

농칠세라 스칠세라
마주오는 역명판에 눈길 못떼는
나어린 소년의 눈동자를 보아도
통일의 날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
지그시 눈감은채 생각에 잠긴
이름모를 젊은이 얼굴을 보아도
뜨겁게 어린 통일의 념원

그렇구나
하나둘 빈자리는 늘어가도 늘어가도
내리는 사람대신
오르는 마음, 오르고픈 마음만이
렬차안에 터질듯이 가득차누나
오, 개성역, 개성역이 가까워올수록